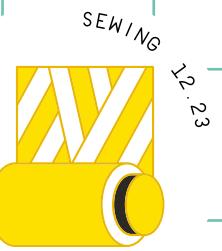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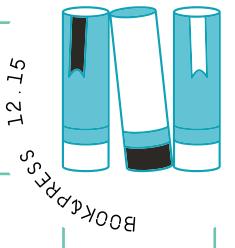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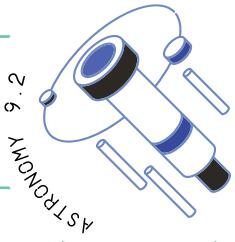
2016

창생공간



지역 – 공간 – 기술

MAKING
SPACE



2016

창생공간

지역 – 공간 – 기술

MAKING
SPACE

창생공간	_____	
사업개요		6
 공간		
이모저모 도모소		9
생활적정랩 빼꼼		37
재미		57
공도창공 수동		75
천문공작실		95
곧바로 책, 방		105
 추진 과정		
		115
 리뷰 & 제안		
제작공간의 메커니즘		140
생동하는 독립출판, 지역출판!		143
창생공간에 대한 리뷰		146
운영자 후기		152
 사례 발표		
제작기술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현상에 대하여		160
 문화재생 플랜	_____	
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170
문화재생 전략연구		180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		190
 닫는 글 / 공공 공간이 개방될 때		202

크리스 앤더슨은 자신의 저서 «메이커스»에서 메이커스를 “DIY족이면서 동시에 제조 기업가이기도 한 새로운 혁신가”라고 했고, “이전 세대와 달리 기술에 정통하고 강력한 디지털 도구를 갖춘 제조업자이자 혁신가”라고도 했다. 심지어 그는 메이커 운동이 향후 경제를 바꿔놓을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렇게 보면 메이커스는 단순히 아날로그적인 제작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미 3차원(3D) 프린터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의 제작 도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을뿐더러 그것을 이용한 1인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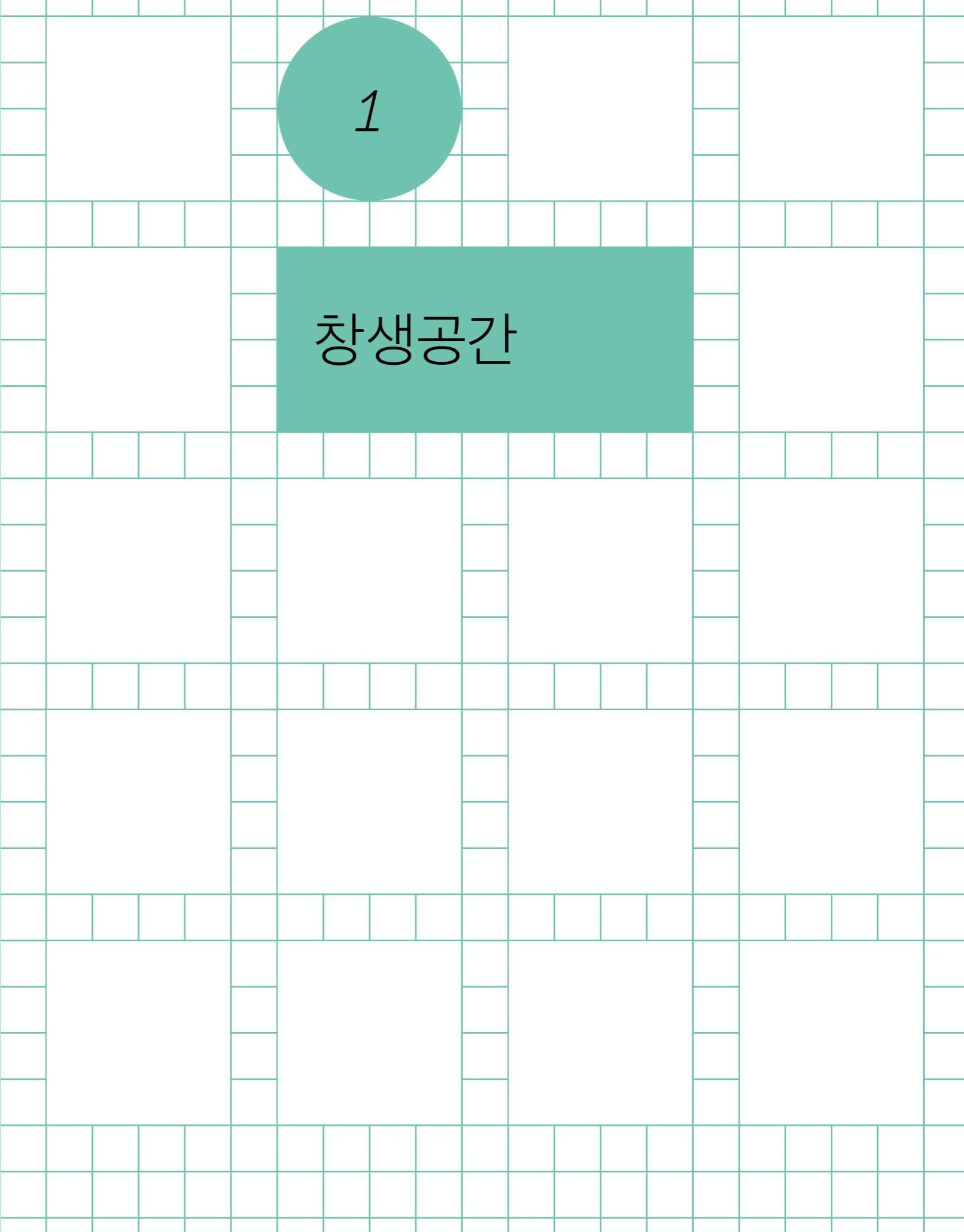
문화재생팀은 그런 메이커스들과 그들에 의한 메이커 운동을 ‘문화재생’과 결합하는 시도로 기획했다. 반드시 메이커 운동이 디지털 기반의 제작 문화가 아니더라도 제작 문화 자체를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기획과 결합할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재생 전략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재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문화정책의 핫이슈가 되어버린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처럼 그 말의 보편성은 너무 넓게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재생’이라는 말은 창조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적 변화와 변신을 위한 ‘창생(創生)’이 필요했다.

메이커스들의 공유적 제작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는 ‘창생공간’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공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교집합을 이루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으며, 지역 내 개인/공동체/단체/기관들과 네트워크하면서 지역 창생을 견인하는 메이커스들의 창생공간. 재단은 그들이 재단과 강력하게 이어진 지역 창생의 매개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지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원도심이나 낙후된 소외지역, 군기지 이전 지역, 공단지역, 쇠락한 전통시장, 뉴타운 해제지역 그리고 접경지…… 경기도에는 창생공간 사업을 시작해야 할

지역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창의적 메이커스가 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창생공간 사업은 ‘공간의 재창조’(제작 문화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초기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비에 비하면 불과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반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2016년 첫 사업에 동참해 준 여섯 분의 기획자, 예술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첫해 중점 과제였던 ‘창생공간 조성’은 과정상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모두의 견투를 빈다.



창생공간(Maker Space)은,

만들기를 실천하는 시민과 작업자를 위한 열린 제작 공간이다. 이곳은 생활기술을 매개로 생산과 연구, 기록, 네트워크, 자립에 대해서 고민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인적 네트워크망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은 삶터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내고 지역문화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의 확장과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생활권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교, 교류의 공동체 활동을 넘어서 지역 멤버십을 토대로 한 자립, 자생이 가능한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단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작 기술 기반의 공동 작업과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문화 공방은 전통적인 DIY를 넘어서 문화적 생산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작 문화를 확산하거나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하는 장인’ 또는 ‘독립적인 생산자 커뮤니티’를 시도한다. 이렇게 지역 곳곳의 개인이 생성한 기술은 지속적으로 창생 라이브러리에 축적되어 문화적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될 것이다.

창생공간은 국내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Maker Movement)에서 착안,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게 대안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메이커 무브먼트는 다양한 재료-기술-도구를 활용해 만들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1인 제조자가 시제품을 출시하며 일자리와 제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 삶터 안으로 파고든 창생공간은 개인과 공동체 활동의 문화적 근간으로 자리할 ‘제작 문화’가 새로운 문화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2016년 창생공간은,

경기도 내 구도심과 농촌지역 6곳에 문을 열었다. 6개 공간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조기술 발효, 리사이클링, 망원경(천체 관측), 재봉, 적정기술(난로), 지역 아카이브(책방)를 기반으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6개의 공간 운영자는 대상 공간을 발견하고 관련 리서치를 통해 공간 조성을 거쳐 공적 운영 원칙을 갖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적 영역의 개인이 공공영역으로 등장해 공공영역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공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목적

- 활력을 잃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새롭게 창출
- 지역공동체 기반의 제작 공간을 통해 제작 문화 확산 및 자립 기반 구축

개요

- 프로젝트 명: 창생공간 조성 사업
 - 대상지: 낙후되거나 쇠락한 구도심, 유휴지, 농촌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공공 또는 민간 공간
 - 사업 내용: 작업자와 지역 구성원이 제작·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 예술상점, 카페, 실험실 등 공간 조성 운영
- 이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주체의 발굴과 양성, 자립 구조를 위한 기반 마련

공간 기능

- 공간 유형: 작업 공간
작업공간을 주된 기능으로 조성하고 예술상점, 카페, 실험실, 라이브러리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 공간과 결합해 필요시 용도에 맞게 가변 운용
- 공간 운영 원칙
 - 만들기를 실천하는 시민과 작업자를 위한 열린 제작 공간
 - 공공성, 지역성, 공동체성, 개방성의 운영 원칙
 - 다층의 커뮤니티들과 개방적인 의견 수렴 및 운영 방향 도출 등 문화적인 재생 과정을 중시
 - 제작 물품이 지역 내에서 유통 소비될 수 있는 자립 기반 확보
 - 개인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설계를 공유하는 등의 제작 문화 확산

이모저모 도모소



추진 방향

- 방침
 -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갖춘 대상지 및 운영 주체 선별
 -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 3년간의 공간 조성비 및 프로그램 지원, 2년간의 자생적인 운영
 - 운영 주체는 공적 공간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자립적인 구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3년 연차별 지원
 - 1년차 리서치, 커뮤니티 발굴, 공간 조성: 공간 조성비
 - 2년차 자립 기반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지역 멤버십 확장: 공간 운영비, 프로그램비
 - 3년차 제작 시제품 개발 및 팝업스토어 운영
 - * 사업 평가에 따른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 4~5년차 운영 주체는 창생공간 운영 원칙을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 지속
- 단계별 추진 방향(2016년 – 2019년)
 - 1단계: 2016년**
 - 주체 및 공간 발굴
 - 메이커 이슈 발굴
 - 2단계: 2017년**
 - 지역 멤버십 확보, 공간 활용도 심화
 - 메이커 네트워크
 - 3단계: 2018년**
 - 자립 프로그램 개발, 외부 매칭, 판로 개척
 - 메이커 라이브러리화
 - 4단계: 2019년**
 - 거점 기반 자립 프로그램 상설화
 - 자생적 사업 구조화



이모저모 도모소



〈이모저모 도모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환경이 반영된 하나의 사물(事物, 일/물건)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며 〈이모저모 도모소〉가 위치한 지역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치 중심의 소셜 아트 및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Social Product Design) 활동을 도모하는 아티스트 그룹이다.

소셜 아트 그룹 〈이모저모 도모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의 대학가(성결대학교) 상권 중심지와 구도심 거주 지역을 거점으로,
첫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접촉을 시도한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죽음 – 웰다잉(Welldying) 콘텐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경제활동을 위한 수제작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실행 등]

둘째, 대학가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 문화적 교류를 도모한다.

셋째, 지역주민과 창작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실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공간 기능

공동 제작소(Co-Making Studio)
지역이슈 연구소(Social LAB)
운영 주체 스튜디오(Artist Studio)
소규모 전시장>Show Case)

제작 분야

소셜 아트 &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
(토탈 핸드 메이킹 염색, 자수, 니팅, 재봉, 펠트 리사이클 등)

주요 활동

- 소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제작 워크숍
- 소셜 프로덕트 제작(제품, 그래픽, 핸드메이킹 등)
- 수익형 시범 사업 운영(공간 세어, 아트 상품 온라인 유통 등)
- 아트 에디션 컨설팅



대상 지역: 안양시 안양8동

안양(安養)이라는 지명은 편안한 마음의 쉼터, 불교에서의 극락정토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안양은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50년대 안양유원지가 조성되고, 관광호텔이 들어서면서 서울 근교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발전하였다.

평촌 신도시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가운데 하나로, 1995년에 준공됐다. 이후, 구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신도심에 내어 주었고, 그에 따라 쇠락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안양은 경제력이 있는 젊은 층은 신도심에, 영세한 노년층은 구도심 거주하게 되는 추이를

띠고 있다. 안양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광고물 정비사업',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APAP)',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모저모 도모소>가 오픈할 안양8동은 안양의 구도심에 속해 있다. '안양8동'은 구도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 이에, 그간 <이모저모 도모소>가 관심을 가져왔던 '여성 부업 인력', '시니어 세대'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제작 협업 등에 대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졌다. 또한, '성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니어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점을 지녔다.



리서치

인구 현황

(2017. 1.)

비고	계	남	여
0 – 9세	712	369	343
10 – 19세	987	510	468
20 – 29세	1,944	1,075	869
30 – 39세	1,872	1,062	810
40 – 49세	1,808	949	859
50 – 59세	2,309	1,092	1,217
60 – 69세	1,431	738	693
70세 이상	1,017	418	599

주요 시설 및 기관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인원
경로당	8동 경로당	냉천로 29-2	32(남13, 여19)
	봉수 경로당	성결대학로 64번길 4-3	40(남25, 여15)
	명학 경로당	명학로 5번길 12	25(남4, 여21)
	삼호수정 경로당	안양로 13번길 11	25(남7, 여18)
공공기관	안양아트센터	문예로 36번길 16	50
	만안청소년수련관	냉천로 31번길 33	19
교육기관	명학초등학교	명학로 55	732
	성문중학교	성결대학로 64번길 9	542
	성문고등학교	성결대학로 64번길 9	1,270
	성결대학교	성결대학로 53	4,207



14



15

지역적 특징 및 주거환경

- ① 안양시 명학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들레 훌씨'
- 안양시 도시재생과 직원들과 주변 탐방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유.
 - 인근 지역의 특성 파악 및 공공디자인 부분 협업 가능성 탐진.
 -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징 파악.
 - 가파른 지형을 오가는 고령자를 위한 '가방방석' 개발.

- ② 카네이션 하우스
- '카네이션 하우스'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식사, 여가 프로그램, 일거리 등을 제공.
 - 안양9동 '카테이션 하우스'에는 약 30명의 독거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
 - 4회 '카네이션 하우스'를 방문하여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와 향후 프로그램 협업에 대해 논의.
 - '카네이션 하우스'의 어머님들과 협업하여 '어머님 빵' 워크숍 진행.
 - 시니어 세대의 손맛을 내세운 먹거리 상품 개발 가능성.

- ③ 예은교회
- '이모저모 도모소' 아래층에 위치한 '예은교회'는 주 2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상.
 - '예은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지만 열악한 상황.
 - 3회 방문을 통하여 목사님과 신도들을 만나고, 공간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짐.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와 수요도에 대한 조사.
 - 앞으로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개발시 테스트 필드의 역할 가능.

- ④ 성결대학교
- '성결대학교'의 7개 대학 중 하나인 예술대학은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뷰티디자인학부, 공연음악예술학부로 나뉨.
 - 기독교 학교인 만큼 음악학부에서는 기독교적 음악에 대한 수업이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 주변에 관련 업소(악기점, 레슨)들이 존재.
 - '성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문화 욕구와 수요도 조사.
 - '사라지길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 후, 도출된 단어를 양초로 제작.

협업 및 참여 가능한 시니어, 청년 세대

그 외 리서치 방향 및 현황(■ 협업 추진 중 기관)

분류	대상지	내용	방향 및 추진 현황
지역	시장	안양지역 재래시장 (명학시장 등)	명학시장, 청원시장, 유원지종합시장, 비산시장 등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근대식 주상복합형 시장을 탐방.
자연	수리산		비어 있는 시장의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생을 모색.
인구	시니어	만안노인정	안양시·군포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봄이면 진달래가 많이 핌.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등산코스와 산림욕장 있음. 안양8동에는 등산코스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음.
여성	여성 부업센터		수리산 등산로를 포함한 웨다잉 투어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산업	사회적 기업	굿윌 스토어	안양8동 거주 어르신들과 만남. 매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문화프로그램 운영 중.
■ 기업	효성 안양공장	'굿윌 스토어'는 기증받은 물품을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	제작 문화 활동 협업 가능성 탐진.
문화	기관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예술센터)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교류와 리사이클 주제를 통해 소셜 디자인 상품 개발하고 그 판매처로서의 역할 가능성.
			효성 안양공장에는 섬유 제품의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이 위치. 효성그룹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명학마을 환경 정비 사업을 함께함. 효성 안양공장의 '진달래 동산'을 1년에 한 번씩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류.
		안양박물관	효성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추진 중.
			문화 프로그램 개발 협업 및 아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안양아트센터 등에서 공연, 전시, 문화 교육 기획. 안양박물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등 안양시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기관.
			안양박물관은 지역공동체와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종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전시·교육·체험이 어우러지는 공간 운영 중.

기능 분류	제작 장르	필요 설비
1 공동 제작소 기능 (Co-Making Studio)	봉제: 공업용, 가정용 DIY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프린터(A4) 구비 모델링(양초, 비누, 빵 등) 염색 각종 핸드 메이킹	공업용 재봉틀: 본봉자동, 오버로크 (각각 1대) 가정용 재봉틀(2대) 프린터 스테인리스 재질 세척대 및 공용 부엌 스테인리스 재질 세척대
2 지역이슈 연구소 기능 (Social LAB)	지역 이슈 나눔의 장소 지역 연계 프로그램 워크숍 시니어 전문 영화 상영소	제작소 및 공용 부엌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3 운영주체 스튜디오 기능 (Artist Studio)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 Social Product Design 개발 아티스트 아트 에디션 컨설팅	
4 소규모 전시장 (Show Case)	소셜 프로덕트 소개 – 시제품 전시장 (*웹사이트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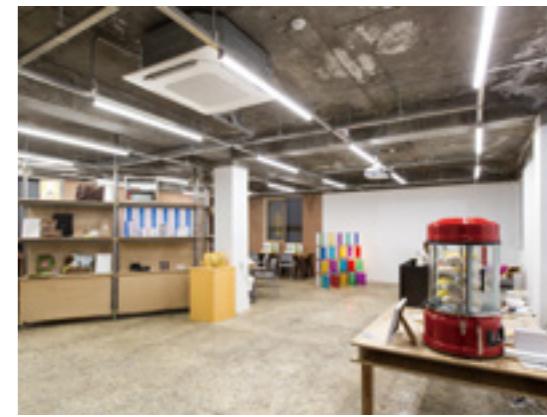
대학가 및 원도심 주거지역에 위치한 (구)간판조명업체였던 상가 건물 3층 공간
조성(201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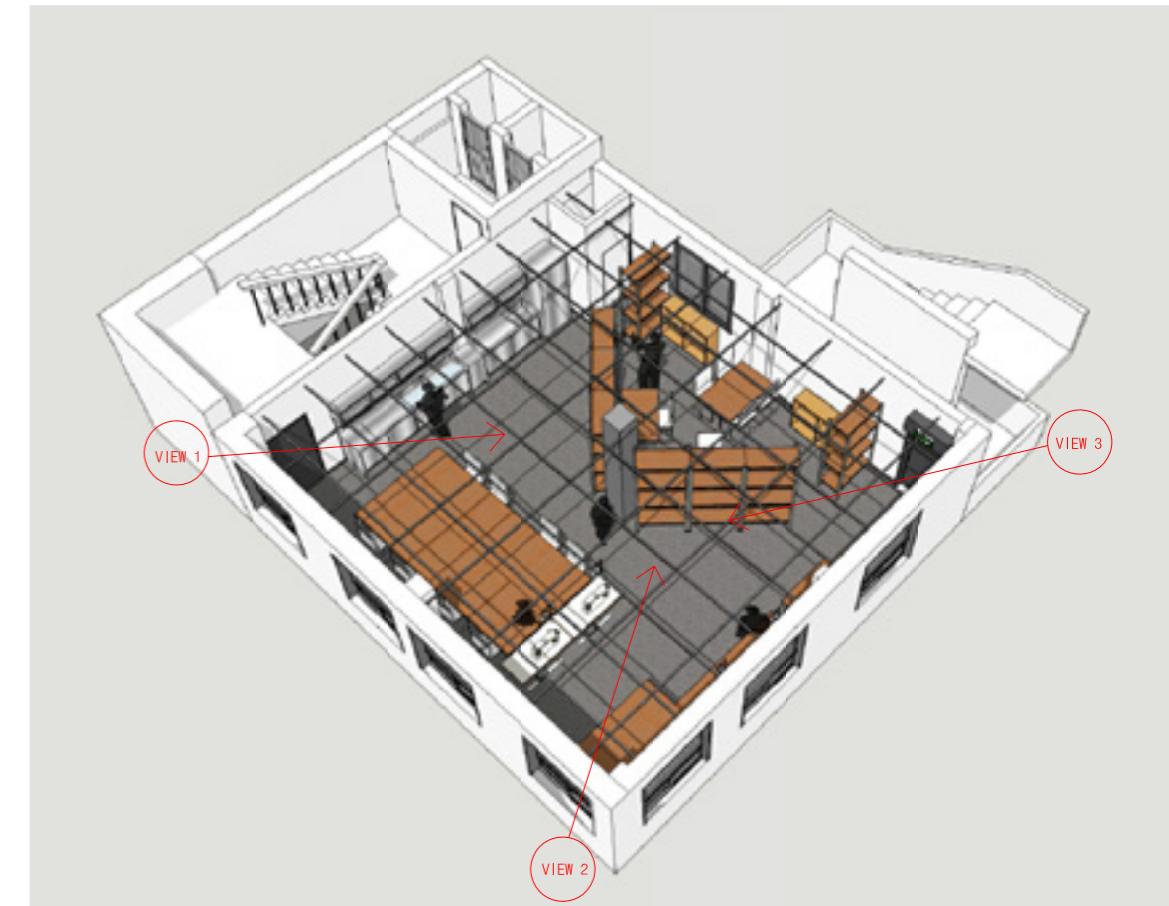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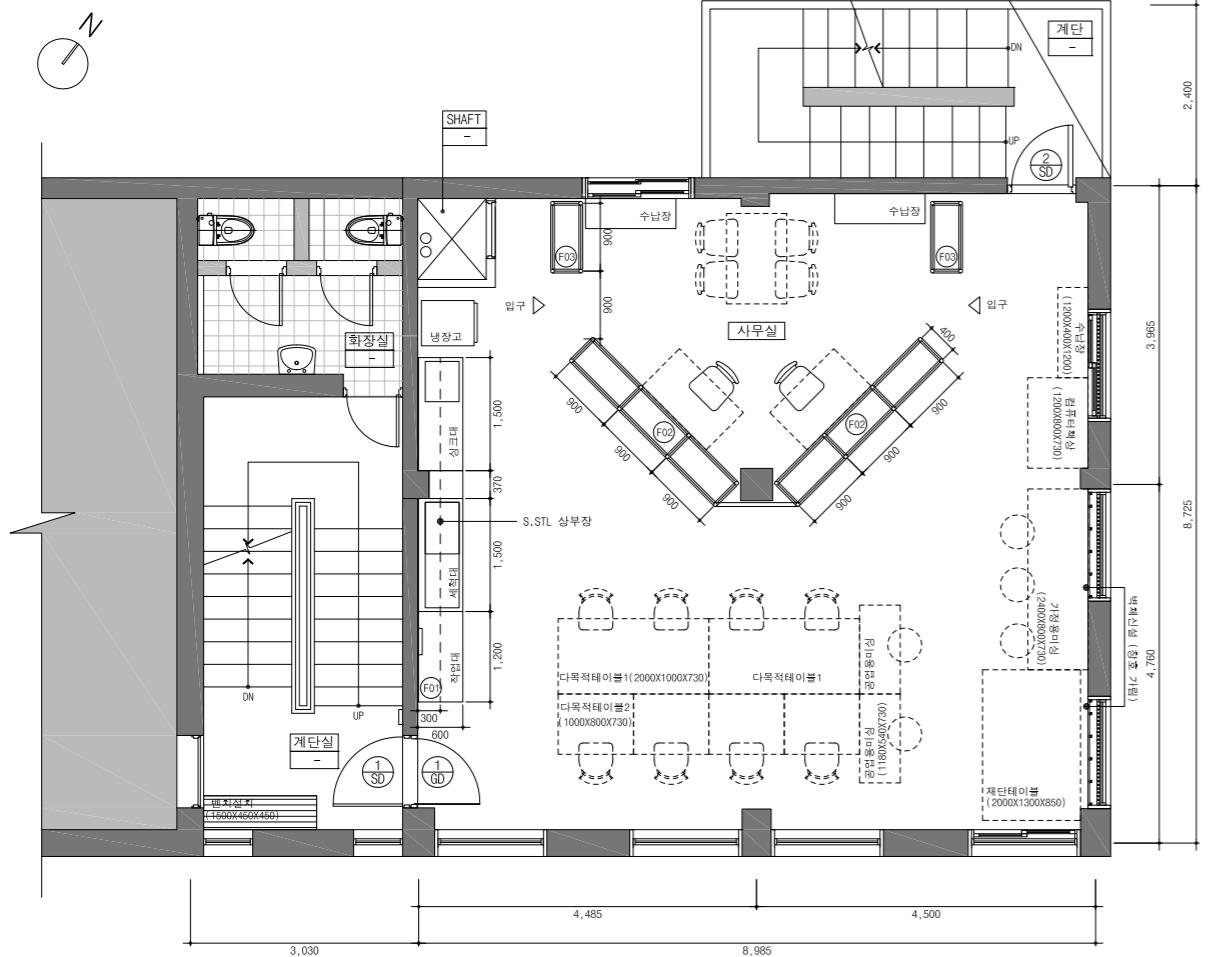
재봉 제작을 위한 공업용, 가정용 미싱 구비
선반형 파티션 설치(향후 소도구 및 재료 수납을 위한 공간 구비)
실평수 약 24평 내외 공간에서의 작가 스튜디오 겸 복합 제작소
기능을 위해 개방형 사무실 조성(2016년 12월 23일 개소식)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낙후된 건물 내부 보수(도색, 내벽 보수 등)
공용 화장실 및 배관, 펌프 공사(2016년 11월~2월)



15인 사용 가능한 다목적 테이블 및 재봉용 개별 테이블 제작
워크숍 진행 시 필요한 전기 용량 승압(5kw→7kw)(2016년 12월)
소셜 프로덕트 소개 – 시제품 전시장





사무실 용도의 (구)부엌 모습(2016년 9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소울 키친' 및 염색, 드로잉 워크숍 등을 위한 복합용 부엌 설비 완비
스테인리스 세척대사무실 용도의 (구)부엌 모습(2016년 9월)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사무실 석면 천장 철거

천장 전기 공사 및 냉난방기 구비



건물 외관(2016년 9월)



건물 외관 공간 홍보용 네온사인 설치(2016년 12월)

활동사항: 프로그램

소울 키친 파일럿 프로그램

한선경 작가의 '빵빵톡톡'
카네이션 하우스 어머님빵

2016. 12. 23.

<이모저모 도모소>의 한선경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생존의 문제를 다룬 작가의 대표작, '예술가표 선경이빵'을 지역 결합형 워크숍으로 풀어냈다. 지역 독거노인 복지시설인 안양 카네이션 하우스 어르신들의 반찬 레시피를 활용한 다섯 가지의 어르신 빵을 브랜딩했다.

기획 노트

'안양 카네이션 하우스'는 주로 어머님들이 찾고 계신다. 현재는 소소한 가내수공업을 하며 보람을 느끼시지만, 어머님들의 전문분야는 단연코 '요리'일 것이다. 어머님 세대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삼시세끼

따뜻한 집밥을 준비하는 것이 여성의 임무였다.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여쭈어도 '지금은 그냥 대충 먹어'라고 하시며, 슬쩍 흘리는 음식 이름들이 모두 별다른 요리는 아니다. 가족이 일상적으로 먹는, 혹은 좋은 날 한 번쯤 해볼 만한 친근한 음식들이다.

'카네이션 하우스'에 계신 어머님들은 '독거노인'으로 혼자 지내고 계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늘 가족을 위해 준비하시던,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한 그 일상적인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카네이션 하우스 어머님빵'을 기획하였다.

'카네이션 하우스 어머님빵'은 어머님들과 반찬을 만들고, 그 반찬을 호빵으로 완성하여 '이모저모 도모소'의 개소식에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본 워크숍을 통해 시니어 세대와 교류를 통해 그분들의 심리와 욕구, 소통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유통 가능한 상품으로서 '어머니의 손맛을 내세운 먹거리 상품' 개발 및 '어르신들의 개인 브랜딩'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카네이션 하우스 어머님빵 포장지



지역리서치01 – 안양9동 카네이션 하우스 방문



설문조사



지역리서치02 – 안양9동 카네이션 하우스 방문



지역리서치02 – 예은교회 방문



지역리서치02 – 설문/안양9동 카네이션 하우스 방문

지역커뮤니티 협력

분류	대상지	내용	방향 및 추진 현황
시니어	만안노인정	안양8동 거주 어르신들과 만남. 매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정도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	시니어 제작문화 협업 가능성.
	카네이션 하우스	카네이션 하우스 어르신들의 경우 쇼핑백용 손잡이 끈을 매듭짓고, 끼워 가방을 완성하는 소일거리를 부업으로 참여 중. 잠정적으로 시니어 금손 커뮤니티 대상자로 보고, 2년차 사업에서 <이모저모 도모소>는 매듭공예 작가와 결합해 어르신들이 제작 가능하신 난이도 수준에서 기존 단순 노동을 바탕으로 한 시니어 굿즈 개발을 도모하고자 준비 중임.	시니어 금손 굿즈(Goods) 개발 및 제작.
여성	여성 부업센터	주로 카드, 장신구 등의 단순 노동 방식의 가내수공업 종사자 다수.	제작 문화 활동 협업 가능성 타진 중.
사회적 기업	굿윌 스토어	'굿윌 스토어'는 기증받은 물품을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교류와 리사이클 주제의 소셜 디자인 상품 개발 후 잠정적 유통 채널 가능성.
기업	효성 안양공장	효성 안양공장에는 섬유 제품의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이 위치. 효성그룹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명학마을 환경정비사업을 함께함. 효성 안양공장의 '진달래 동산'을 1년에 한 번씩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 중.	효성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추진 중.

집들이

<나의 마무리 옷> 상영회

2017. 1. 8.

<이모저모 도모소> 오픈 후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새해 떡국 대접, <나의 마무리 옷> 영상 상영회 및 기 제작한 <가방+방석>을 소개하는 등 공간 홍보와 함께 구성원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 집들이 <나의 마무리 옷> 상영회 <이모저모 도모소>

내 영혼의 부엌(Soul Kitchen)

기억 차림 메뉴: 자줏빛 만두

2017. 1. 20.

〈내 영혼의 부엌(Soul Kitchen)〉은 〈이모저모 도모소〉에서 진행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다. 격월제로 진행될 〈내 영혼의 부엌〉의 2017년 첫 번째 메뉴와 이야기는 이웃상회에서 준비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한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연 있는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안양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모저모 도모소〉의 집들이와 같은

네트워크 파티로 진행했다.

〈기억 차림〉에서 본인(이웃상회)이 차려낸 메뉴는 자줏빛 손만두다. 자줏빛 손만두는 독일 체류 시절 겪었던 만두에 얹힌 에피소드에서 비롯된다.

향수에 찌들어 있던 어느 겨울날. 만두 한 끼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유학생 그룹이 도시의 마켓 모두를 뒤져도 얻을 수 없었던 만두 속 주재료인 '양배추'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엔 적양배추(Rotkohl)를 속 재료로 사용한다.

잘 짜낸 적양배추(Rotkohl) 손만두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만두는 마치 인체의 피부 아래 비취는 정맥과 같이 동물적이며, 그로테스크 했다. 피 끓는 청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과거의 시간 속에 각인된 핏빛, 혹은 자줏빛 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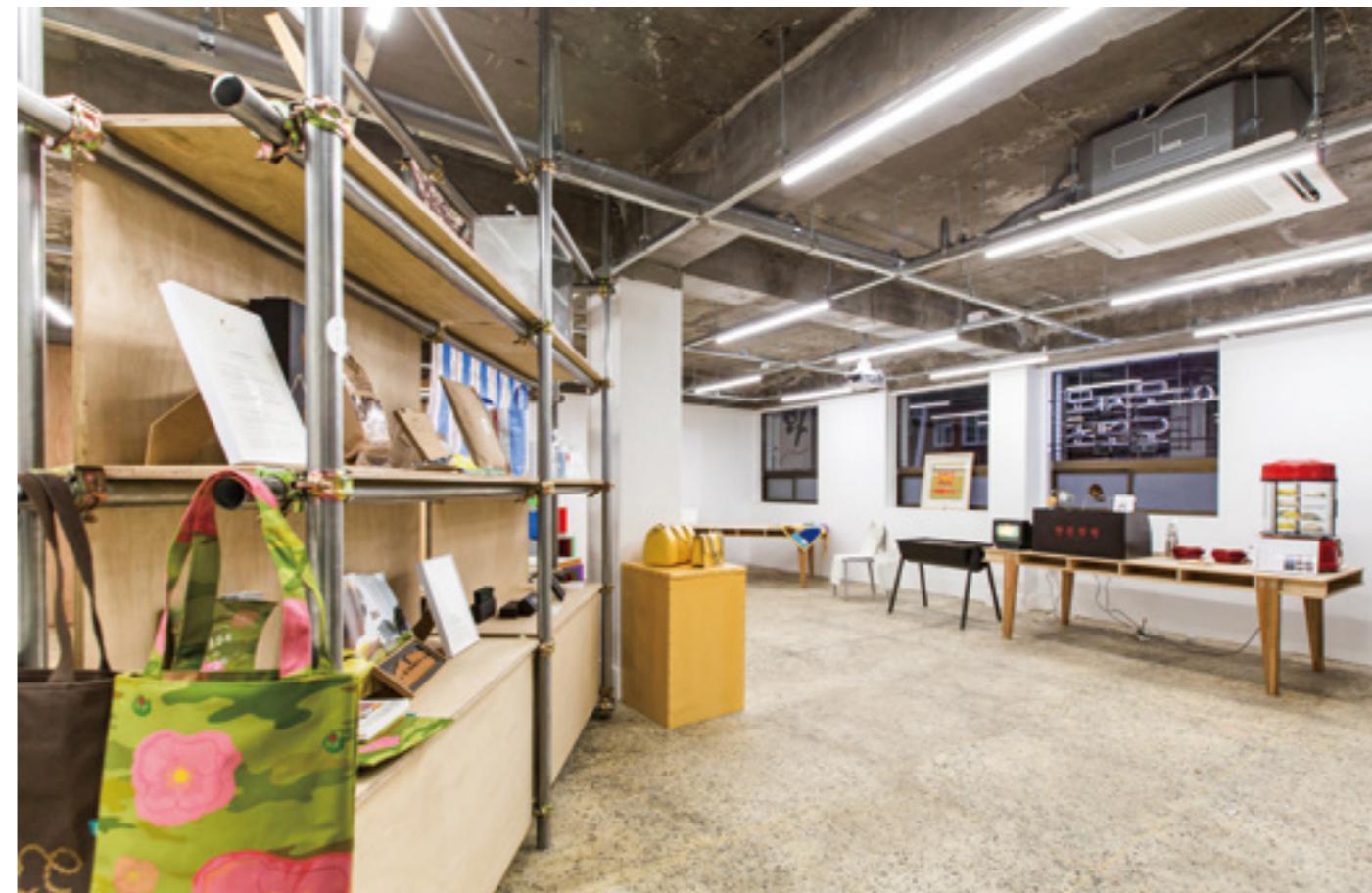
〈내 영혼의 부엌(Soul Kitchen)〉 기억 차림
메뉴: 자줏빛 만두



<이모저모 도모소> 공간 오프닝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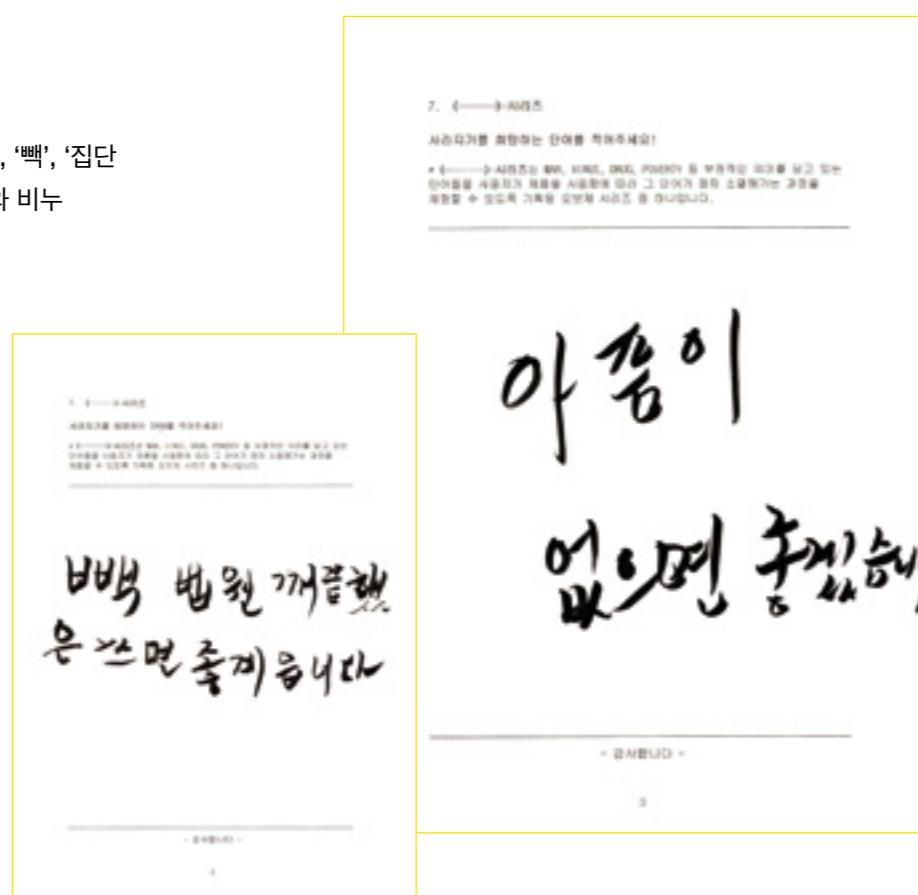
2016. 12. 23. (금) 15시

- 내 영혼의 부엌(Soul Kitchen) –
한선경의 <빵빵톡톡> 시식회
- 시니어 대상 가방+방석 론칭
- [나의 마무리 옷] 상영회
- C.P.E (Cheon Daigoang Project Edition) 전시



<— 시리즈 in 안양>

설문 조사를 통해 나온 단어 '아픔', '빡', '집단
따돌림'의 단어 형태를 담은 양초와 비누



소셜 아트 & 소셜 프로덕트

〈이모저모 도모소〉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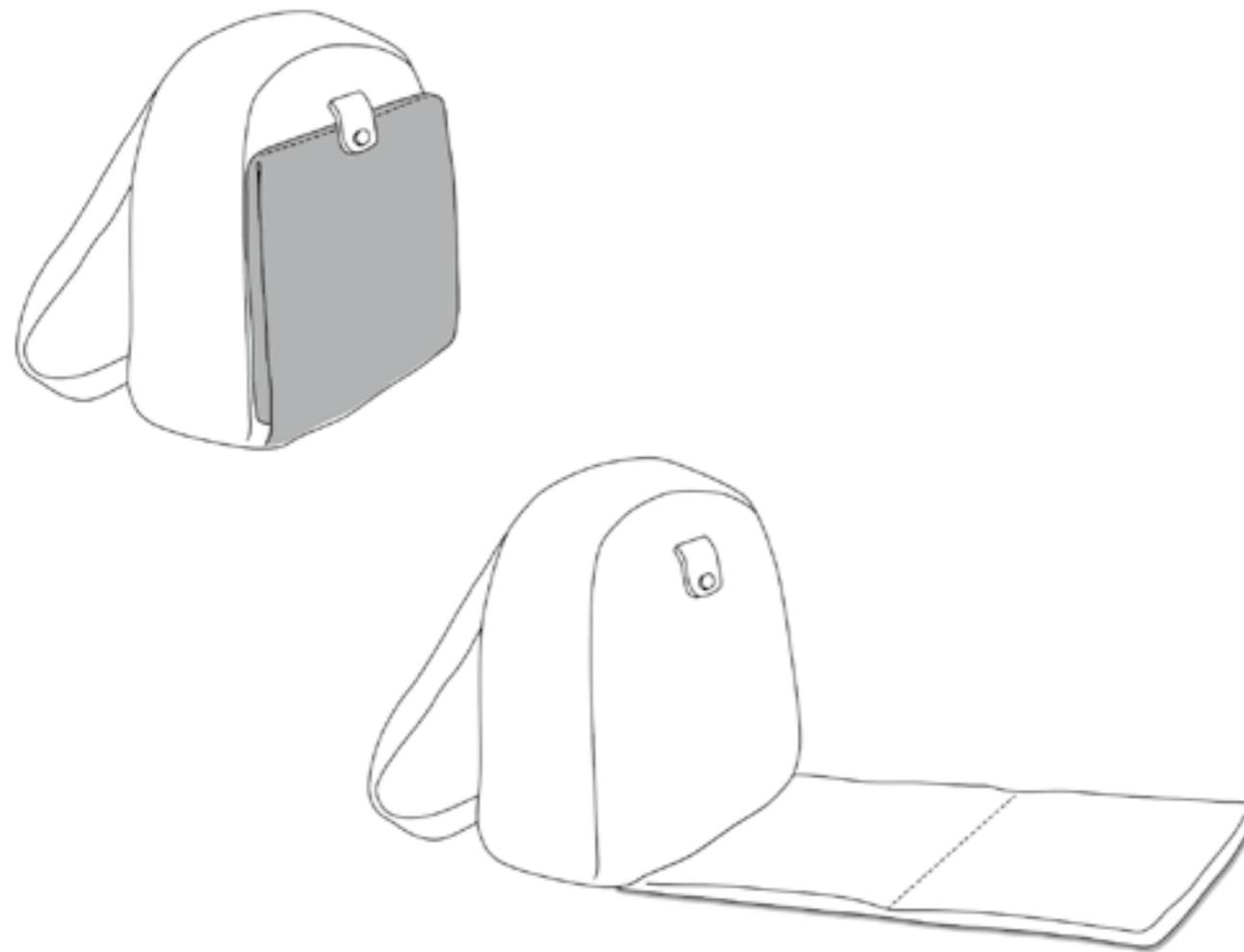
Social Product Design 개발 및 제작

시니어 대상 제품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방석+가방

안양8동 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앉아 계신 모습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방에 방석을 합체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지역 어르신 〈방석+가방〉 사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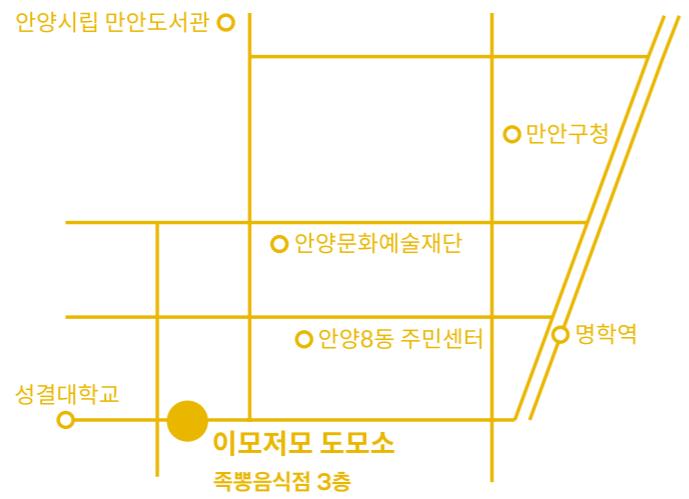
〈방석+가방〉 시제품 완성

운영 단체 소개

이모저모 도모소

'예술로 이웃 만들기'를 실천해온 이웃 상회(시각예술, 디자인, 핸드메이크 커뮤니케이션)와 한선경(시각예술), CPE(아트 에디션), 이주영(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총 4인의 창작자가 모여 안양을 거점으로 지역사회(거주민, 장소, 환경, 상황)와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실험하고자 구성된 창작그룹이다.

찾아오시는 길



단체 정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60-11 (3층)
<http://domoso.cafe24.com>
heute25@hanmail.net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생활적정랩 빼꼼

生活적정
[FERMENTATION]

생활적정랩 빼꼼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우연히 자리 잡게 되었던 서둔동과의 인연을 이어갈 공간으로 '생활적정랩 빼꼼'으로 다시 열게 되었다. 거창하지 않은, 본래 누구나 살며 익혀 왔을 일들을 통해 좀 더 살가운 삶의 언어로서 예술을 대하려고 한다. 상탑로 한편에서 누군가의 이웃이라는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편리함과 이성적 합리성을 추구해 왔던 이면에 잃어버리고 소외시켰던 시간과 노동의 감각과 감수성을 읽어내는 인문적 태도를 지향하고 싶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이 이 동네와 이곳에서 살고 일하거나 경유하는 이들에게 공유되고 기억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기록도 '빼꼼'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점에서 유통이 지난 잉여물을 발효하는 커뮤니티 키친을 운영하고자 한다. 발효제조기술을 지닌 지역 장인을 발굴하거나 작은 가게와 연계하여 발효 가공을 하는, '어느 날 가게'와 같은 마켓을 열고자 한다.



공간 기능

발효키친
리서치, 아카이브
잡화점 '어느 날 가게'

제작 분야

발효키친



주요 활동

- 발효 관련 제조/제작
(누룩, 발효종, 술, 식품, 발효조미료 등)
- 개별적 발효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인터뷰 등
리서치 & 아카이브
- 제조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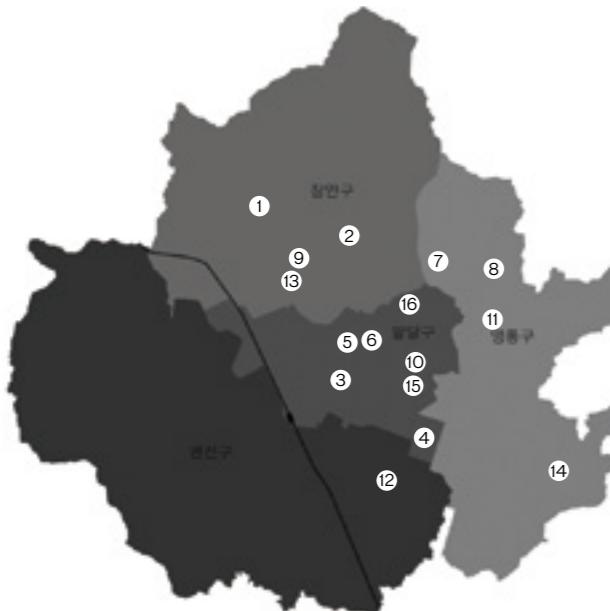
대상 지역: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 뒤 후미진 동네, 상탑로가 있는 서둔동

인구 120만의 수원에서 서수원으로 대표되는 권선구는 36만, 12개의 행정동으로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법정동으로 서둔동과 탑동을 포괄하는 행정동 서둔동은 권선구 내의 타 행정동과 비교하여 지역도 넓고 사는 사람(4만 2천 명)도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수원역에서 1.5킬로미터 반경(도보 10~15분) 지역인 서둔동에서도 상탑로 골목은 서울대 농대(시초 1907년 농림학교, 서둔동)와 농촌진흥청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두 시설이 2003년, 2014년 각각 서울 관악과 전북 완주로 이전하면서 골목은 활력을 잃었다.

서수원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상탑로는 서울대 농대나 농촌진흥청의 영향 외에도 화성 봉담, 오목천, 고색, 호매실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길목으로 유동인구가 많았던 거리다. 텃밭에서 가꾼 작물을 가지고 나와 늘어놓고 파는 아줌마, 할머니들도 많아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상탑로의 쇠락으로 시장 기능도 함께 잃게 되었다.

워낙에 수원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거주환경이 좋지 않았던 동네는 상탑로의 변화와 인근의 대형마트의 등장 등으로 인해 생활시장으로서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혼편이다.



○ 공공문화시설 ○



● 전통시장 ●

○ 공공문화시설 ○

[공연장]

1. SK아트리움
2. 장안구민회관
3. 수원시민회관
4. 수원야외음악당

[미술관 및 박물관]

5.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6. 수원화성박물관
7. 수원박물관
8. 수원광교박물관
9. 수원미술전시관

[청소년문화시설]

1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11. 광교청소년수련관
12. 권선청소년수련관
13. 장안청소년문화의집
14.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교육시설]

15. 수원영상미디어센터
16. 수원시평생학습관

● 전통시장 ●

1. 회서시장

2. 지동시장
3. 영동시장
4. 팔달문시장
5. 웃골종합시장
6. 미나리광시장
7. 매산시장
8. 파장시장
9. 조원시장
10. 정자시장
11. 거북시장
12. 연무시장
13. 구매탄시장
14. 권선종합시장

상탑로 104의 매력

'식육판매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띠지 않은 이 공간은 약 20여 년간 정육점이었다. 상탑로가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면서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정육점 주인이 혼편이 어려우니 가게 세를 내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여 가게 주인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상업적 기능이 쇠락한 상가 골목의 한쪽편이기는 했어도 작은 의원과 약국, 유치원, 문구점, 성당과 교회등과 인접한 동네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10평 내외의 1층과 5평 내외의 지하 공간으로 분리되어 넓지 않은 것에 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공간의 모양도 좁은 땅의 모양에 따라 지어진 건물의 특성상 최근에 보기 힘든 비정형성 탓에 1층과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 삼각형의 지하공간이 의외의 흥미로움을 느끼게 한다. 임대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료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할 만큼 매력이 있었다.



서둔동 일대, 까만점 – 권선구 상탑로 104
커뮤니티스튜디오104, 10평 내외의 1층과 5평 내외의
지하, 민간임대, 보증금500만 원, 월세50만 원

농대의 문화 재생적 변화와 서둔동의 관계성

최근 유휴부지였던 서울 농대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경기청년창작소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이 더욱 확충된다고 한다. 문화적 환경이 매우 취약한 동네에 이러한 변화들은 마땅히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서둔동을 비롯해 평동, 오목천, 고색, 호매실, 금호동, 구운동 등 서울대 농대와 가까운 지역은 물론이고 기존의 문화시설이 내보이지 못했던 생태적 환경과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인프라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런 문화적 풍경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최소한 지금까지 서둔동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그러하다)에게 일상, 생활에서 문화나 예술이 교류되고 집적되기 위해서는 서울 농대의 시선으로 보면 '바깥에', 그리고 서둔동의 시선에서 보면 '안쪽에' 동네의 여느 가게들과 이웃한 관계로서의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농대와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은 아주 구체적이다. 농대를 나왔다는 백발의 할아버지, 농대 학생들이

부르는 팝송을 농대 담장 너머에서 동경하며 들었던 앙카라 고아원(서둔동 벌터) 아이의 기억, 농대 교수들이 살았다는 지붕 낮은 양옥집 등은 농대 바깥의 농대의 또 다른 기억이고 현실이다.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서둔동의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문화적이라고 해도 농대의 기억이 소비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의 바탕이 되는 것들 말이다.





© 인인화락



© 인인화락



© 인인화락



자작문화는 원가를 만든다는 결과와 과정뿐만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각자의 생애에서 시간과 노동을 들여 자기 삶의 질을 조절하며 살아왔는가 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리서치에 참여한 작업자 4명은 각자가 관심 있는 세부 주제로 리서치의 목표를 정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에 들어갔다. 다양한 연령, 충위의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리서치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들에 홍보물을 붙이는 등 다각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화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라 그 외의 계층들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시간과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확인한 자작문화는 다소 연령대가 높은 할머니들의 것이었다.

할머니들의 생애에서 발견되는 자작문화

-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만들어주는' 일
“차월금 할머니 이야기의 8할은 남편에 관한 것이다. 평소 할머니가 만들어 준 간식을 좋아한다며 금슬 자랑이 끊이질 않았다. 평소에도 남편을 위해서 빵이나 쿠키를 집에서 자주 만든다고 하셨고, 남편이 간식을 먹으며 해주는 칭찬을 듣는 것이 낙으로 보였다.” (리서처 이유림의 글)
- 지겨운 일을 해낸, 구부러진 손의 기억
- 파는 것들은 나에게 딱 맞는 게 없다.
“파는 거, 사 입지도 못 하잖아. 나는 내 몸에 맞고 내 맘에 들면 암만 비싸도 사거든. 근디 이렇게 이쁘게 내 몸에 맞게 파는 게 없지. 그러니까 못 사입지…… 다 내 몸에 맞춰서 다 내 입자고 뜯거지.” (리서처 김선우의 글)

문화, 예술 한다는 낯선 이들과 관계 트기

- 이전의 정육점 간판도 떼지 않은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오리무중이다. 공간의 작업자들과 친해진 주민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 그렇지만 늘 자신들의 이야기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어렵잖하게 알 것 같기도 하다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 주민들에게 공간(사람들, 벌어지는 일)이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목격된다.

- 동네 협력자들: 서둔동성당과 서둔교회, 서둔동주민자치센터, 서둔가드닝밸리와 부녀회, 미소청과와 포차 떡볶이집.
- 옆 동네 협력자들: 기후변화체험관 두드림 이상명 관장과 희망샘도서관 김성연 관장과 인문학기획단.

소결

- 노인세대의 생활문화에서 자작문화는 고단한 노동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장을 담근다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을 하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자작문화가 같은 관계, 함의에 대해 스터디 해보고자 한다.
- 노인세대의 자작문화는 그들의 생애사와 함께 보다 심화하여 기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서둔동의 생활문화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 갈 이슈나 과제들의 도출도 필요하다.
- 서둔동의 창생공간은 생활 자작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고색동 지역에서 알게 된 인문학 학습 주체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며 실마리를 찾아봐야겠다.
- 공간의 분위기가 동네의 풍경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개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는 측면과 사람들이 쉬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전면을 개폐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

리서치는 청년 작업자 4명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향후 공간을 중심으로 가져가게 될 '발효'와 관련하여 각자가 추출한 세부적인 리서치의 기획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방식도 나름의 계획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들의 관심은 동네 사람들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발견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발효의 요소였는데 가벼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가운데 인터뷰 등으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대상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지닌 발효 자원 찾기

- 서둔경로당 할머니들과 조우하기
전통장 등의 문화를 경험하였거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지 모르는 할머니들과 만나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다. 팔찌 워크숍,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매개 활동을 하며 라포를 형성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개별 접촉하며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 아주머니들의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이미 형성된 관계를 연결하여 아주머니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릇 등 세간 살이를 통해 각자가 지닌 발효 문화 포착을 시도하였다.

동네를 문화적 시선으로 읽고 기록하기

간판, 빛, 소리 등의 요소로 상탑로를 읽어보려고 시도하였다.

작업자: 김선우, 백소민, 이유림, 조현대



서둔동, 할머니들 팔찌 워크숍 © 조현대



© 김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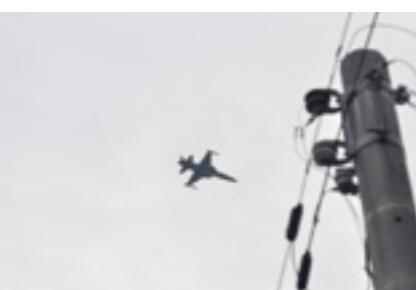


© 김선우

기 뉴 니 니
키 친



© 김선우



작업자들과 빼꼼

빼꼼의 활동에 가능하면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학생들,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 지역문화, 커뮤니티, 리서치, 발효 등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리서치나 공간의 조성, 전시, 워크숍 등에 함께 하였다. 2016년의 경우, 5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을 법한 발효문화를 아카이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기획에 직업적 전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 동네, 커뮤니티와 같은 화두를 가지고 실행해볼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면서 교류하고 서로가 성장하거나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다. 문화 거점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청년 작업자들이 공부하고 밥이나 차도 마시고 대화하며 머무르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의 역할도 가져가고자 한다.

추진 과정

1. 2016. 7. – 8. 리서치(문화적 활동을 통한 인터뷰, 관찰과 기록)
2. 2016. 5. – 11. 팝업마켓 '어느 날 가게' 월 1회 운영
3. 2016. 9. 녹취정리와 리서치 보고서 작성
4. 2016. 10. 리모델링 방향 설정과 실행 논의
5. 2016. 11. 10. – 12. 13. 1차 공사 완료(1층 전반, 외관 등)
6. 2016. 12. 16. 오픈행사
7. 2017. 1. 14. 아카이브 전시, 수작 참여
8. 2017. 1. 18. 아카이브 전시 수작 워크숍 진행
9. 2017. 1. 20. – 1. 30. 2차 보완 공사(지하 바닥) 및 기자재, 도구, 재료 구입
10. 2017. 2. 정산 및 결과 보고, 발효 워크숍 스케줄링
11. 2017. 2. – 3.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효 워크숍 시범운영
12. 2017. 3. 10. – 3. 15. 3차 보완 공사(지하 선반, 발효 거치대, 작가 사정에 의해 3월에 진행)

공간 쓰임의 플레이, '어느 날 가게'

2015년 서수원문화자원 조사연구 프로젝트에 이어진 수원문화재단과의 협업 사업의 일부이기도 했던 팝업 마켓 '어느 날 가게'는 개인의 자작물을 공유하는 문화 활동이다. 5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열렸던 어느 날 가게는 창생 사업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공간의 쓰임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감각지였다. '주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과 이에 필요한 도구는 최대한 세세하고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탓에 공간이 크든 작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동선을 열기설기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치우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문화적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의 하나로서 공간 밖의 사람들, 공간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일이다. 추후 팝업마켓의 방식이나 워크숍 등 여러 형식의 제조활동이 사람들과 밀도 있게 공유되고 그들의 연대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탓이다.



어느 날 가게의 개요

- 커뮤니티스튜디오104의 임대료 자급자족을 문화적으로 풀어보려는 하나의 시도
- 누구나 나름 있을 법한 손의 기술을 응원
- '덜 소비하기' ⇒ '만드는 일'과 '공유', 그리고 '잉여'를 관찰하고 '엮기'
- 서로가, 서로를 겪는 시간

평소에는 작업 공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루 정도는 이 관심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 대단치 않더라도 품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놓은 마음을 생각하며 서로의 작업물을 꺼내어 들춰 본다. 음악을 연주하는 이, 매듭을 만드는 이, 뜨개·바느질을 하는 이, 만들어 놓은 된장을 내어 놓는 이, 모인 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이와 사진으로 담아내는 이, 그저 함께하고자 멀리서 시간 내어 준 이들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저녁 파티까지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이면 모두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리를 한다.

열린 날들

5. 14. / 6. 18. / 7. 23. / 8. 20. / 9. 24. / 10. 15. / 11. 5.

과정과 결과, 함께한 사람들

'어느 날 가게'는 우리 공간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날씨의 부침이 많지만 되도록 앞집, 옆집, 골목, 길 등 공간의 관계성을 고려해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예술가들의 퍼포먼스가 병행되어 그저 마켓이 아니라 문화적 활동, 문화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네(사람들)는 그런 점을 매우 낯설어 한다. 장사가 아닌 다른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각자가 알고 있는, 많지 않거나 거의 전무한 문화적 경험으로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가게의 마켓 기능은 오히려 그런 낯설음을 상쇄시켜준다. 보편적인 경험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 가능한 양식인 셈이다. 적극적이지 않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준 분들, 사소하지만 당신들의 장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마음을 나눈 일들은 어느 날 가게의 큰 수확이다.

- 한마음가정의원: 주차장
- 한영종합설비공사: 전기
- 컴퓨터카페: 전기
- 이마트약국: 가게 앞
- 구제백화점 아줌마: 가게에서 파는 물건
- 김미영: 책장과 밀반찬
- OOO 할머니: 틸실
- 또오리 포장마차: 홍보와 오뎅

심심甚深한 우정

'어느 날 가게'는 공간의 임대료와 수도, 전기세 60만 원을 우리 식으로 마련해보자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그런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벗들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은 수치화된 목표 이상의 의미이다. 서둔동에 공간을 내어 우연찮게 지속하며 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미 맷은 그들이나 아직 맷지 못한 또 다른 그들 누구에게나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양분은 어느 날 가게의 내용과 공간을 채우는 요소이기도 하다. 개별적인 작업자들의 연대가 느슨함을 미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도 '어느 날 가게'의 뜻이기도 하다.

- 신미라: 만화책
- 최현지: 도예소품
- 이윤지: 손뜨개, 샌드위치
- 김선우 - 백소민: 서둔동 리서치 엽서와 팔찌매듭
- 이유림 - 조현대: 팥빙수, 요리와 일손
- 박보라: 샌드위치, 퍼포먼스
- 김영화: 노트, 디자인과 진행
- 박김형준: 달력
- 장혜윤: 그림엽서
- 박지현: 금속공예
- 김지환: 사진전시
- 나하나(양순네): 자수손수건 등 생활소품, 페브릭
- 김지현(싹바느질): 아기옷, 양말인형, 머리핀, 파우치, 에코백
- 김혜순: 머리핀
- 노영란: 그림책, 문구류, 그릇과 컵
- 살롱시소: 음악
- 잠꾸리와 사쁘나: 음악
- 임재춘: 사과쨈, 레몬청, 생강청, 밀반찬(깻잎장아찌, 오이지무침, 고들빼기김치), 샌드위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아이들 옷, 장난감, 책, 육아용품)
- 김가화: 계피 스프레이, 복숭아통조림

작업자: 임재춘, 한문화, 김영화, 박보라



© 박김형준



어느 날 가게 © 박김형준



공간 조성

조성시 고려한 점

임시방편으로 행해지던 요리와 조리가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일련의 주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간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요리대와 조리대, 개수대가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온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크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오기보다는 인테리어 측면에서 공간의 틈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다. 페인팅과 나무를 활용한 마감, 공간의 주요한 기능인 조리대를 기성화된 것들과 차이가 드러나도록 작가주도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발효와 관련된 일이 대부분 주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방의 편의성은 향후 발효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고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되었다.

'빼꼼'은 단지 주방이 아니라 발효를 통해 동네, 사람, 삶 등을 살피는 인문적 행위를 지향한다. 해서 빼꼼의 활동을 발효와 관련된 제조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효의 전문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빼꼼을 통해 발효를 접한 이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각각의 그룹이 좀 더 심화된 발효활동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지만 빼꼼은 발효를 통해 생각해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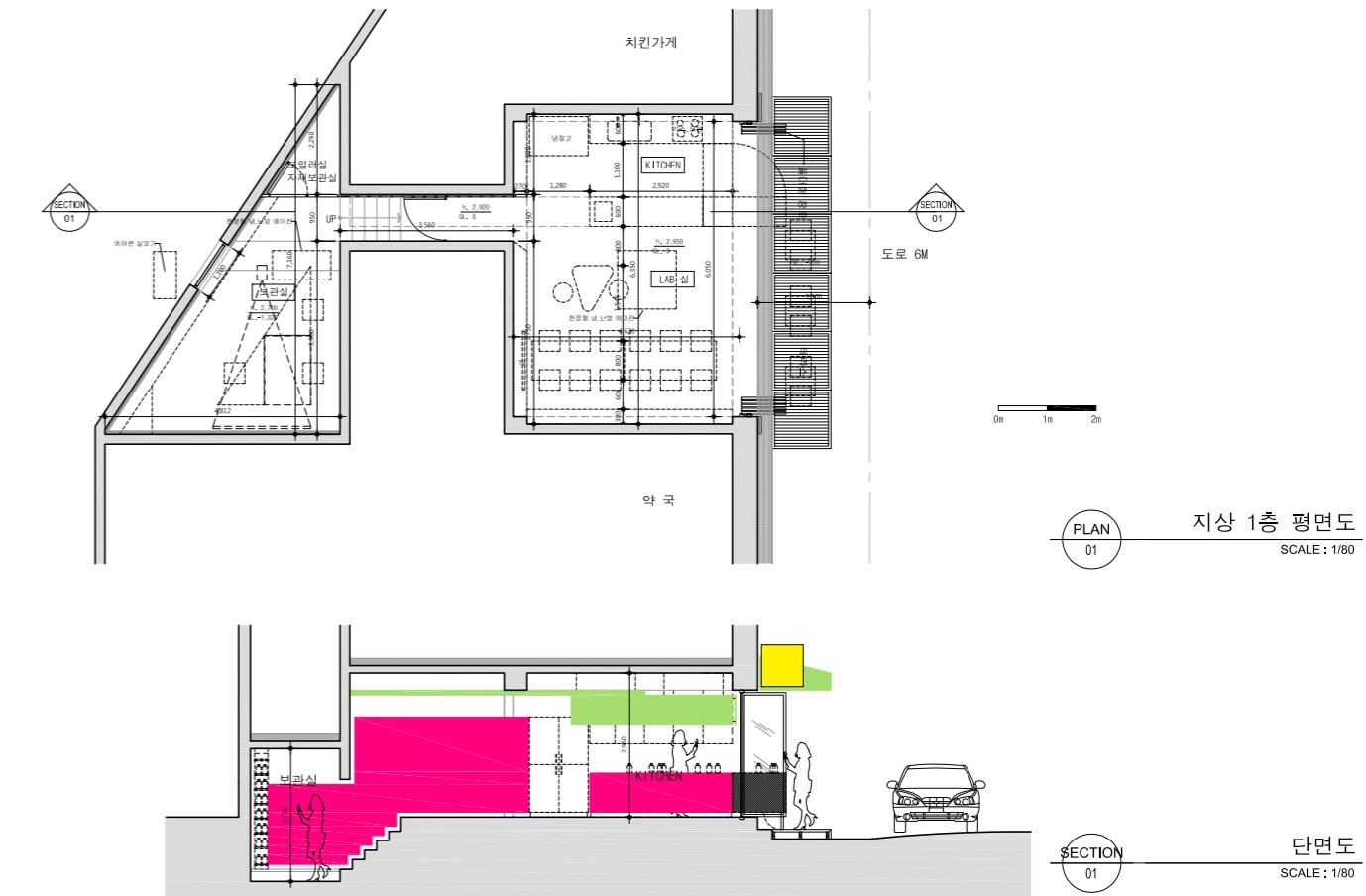
있는 삶의 태도, 사회의 면면, 삶의 실천, 지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록, 공유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유로 '발효키친'이라는 컨셉이 자치 일반적인 요리강좌나 조리실 등으로 편협하게 이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방기능과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 생활연구나 공부, 모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매개 기능도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도구인 책상(기준의 것을 사용), 의자 등과 책장의 설치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삶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도구(재봉틀, 공구 등)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소소하게 빼꼼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빼꼼도 공간 안에서, 활동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도구들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공간의 구성

1층과 지하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각각 최대 15명, 7명 내외(성인 기준)의 모임이나 워크숍이 가능한 규모로 요리나 조리, 스터디나 강좌, 각종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작업: 곽동렬, 천원진, 조현대, 이유림, 이윤지



공간 디자인 초안



공사 전

1층 주방쪽(싱크대, 온수시설 등)



1칸 여닫이



공사 후

외관 전경



간판 교체



천막(기존 골격 보수, 재활용, 천갈이)



풀딩도어



1층(선반, 페인팅 등)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복도(공중식물 인테리어)



지하(공간 정리, 냉난방시설 보완)



전기(노후배전판 교체 등)



‘생활적정랩 빼꼼’ 공간 오픈 행사

2016. 12. 16. (금) 12시

- 환대의 식탁
- 오픈오분영상
- 공간, 사람, 기록의 소개(아카이브 전시)
- 스피치 퍼포먼스 ‘만들어볼까?’
- 몸을 녹이는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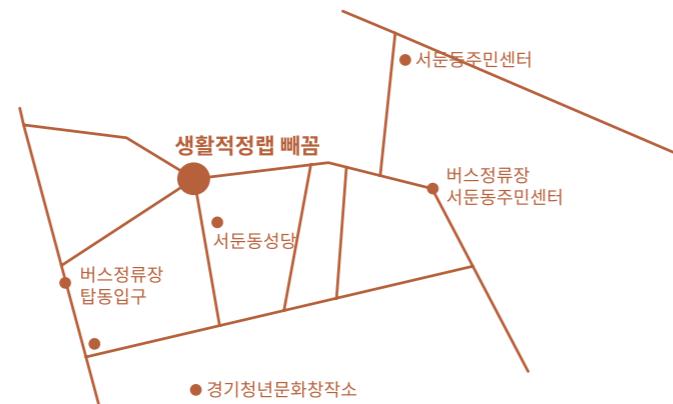
운영 단체 소개

커뮤니티스튜디오104(공동대표 임재춘)

2015년 7월 서수원 문화자원 연구프로젝트 <웨스턴 스토리>를 계기로 모여 본 단체의 거점공간을 서둔동 104에 두고 있다. 과업으로서 공간의 용도는 종료되었지만 열악한 문화 여건상 동네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목표 지향적이 않은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작업자들을 매개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네 연구, 문화적 사건 만들기, 비슷한 관심 가진 주민, 예술가, 기획자 초대하기를 주요 관심활동으로 하고 있다. 임재춘, 한문희, 조현대, 이유림, 백소민, 김선우, 이윤지 등 젊은 기획자가 함께한다.

찾아오는 길



단체 정보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04 (서둔동 200-45번지)

<http://blog.naver.com/becominglab>

문의 010-5008-2357

becominglab@naver.com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찬성
RECYCLING

재미



〈재미〉는 성남 신흥3동, 노후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있는 40년 된 옛 핫도그 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다. 수년간 공실로 방치된 건물을 그림마을이 벽화작업을 위해 발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제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창의공작소 〈재미〉는 그동안 벽화작업과 인테리어 시공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자 '그림 마을'이 직접 디자인, 공사 시공을 맡아 리모델링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오픈한 〈재미〉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시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 갤러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목공, 도예, 금속공예 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층에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제작된 상품은 월 1회 마을마켓을 통해 교류하고 카페와 공유 공간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공간 기능

1층 갤러리, 작업장, 목공기계실, 도예실

갤러리: 지역작가 릴레이 전시, 제품 전시 및 대관

작업장: 문화 교육, 워크샵, 다용도 작업, 대관

목공실: 목공 작업 및 제작 주민 참여 프로그램

(슬라이딩 각도톱, 테이블 쏘, 용접기, 각종 드릴, 원형톱, 절단기, 콤프레셔, 에어타카, 각종 수공구, 도색 장비)

도예실: 도예 작업 및 제작 주민 참여 프로그램

물레, 전동 물레, 가마(예정)

2층 카페, 마을 영화관

제작 분야

목공, 도예, 리사이클링

주요 활동

- 목공예: 생활소품(가구소품, 선반, 전등, 액자, 액세서리 등) 기능성 제품 제작 주문
- 도예: 아트 생활도자기, 장식용 테라코타 소품
- 목공과 금속을 결합한 아트간판 제작, 가구 소품 등
- 생활기술 교육
- 리사이클링 및 리폼 등



대상 지역: 성남시 신흥3동

이곳은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 14-1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수년간 공실로 방치 상태이며 대상지 인근 소재 신흥3동 주민센터에서도 흉물 시설로 분류, 대문벽화 사업으로 대문과 벽체 도색을 하였으나 본 건물 자체는 방치 중이며 대문마저 파손되어 방치된 상태이다.

사업 주체의 사업 구상 중 넓고 저렴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바, 대문벽화 활동 중 본 대상지를 발견하자 임대 문의를 하였고 사용 공간 대비 저렴하며 사용자 편의에 맞게 리뉴얼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본 대상지를 선택하였다.

대지 82평 전면에 단층주택(약 35평)이 있고 그 뒤로

30평 창고와 2층 내부 30평으로 총 95평에다 마당 17평 정도의 실 사용 공간이 가능하다.

본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시가지의 주택밀집지역 중 비교적 넓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민센터가 있다.

동쪽으로 약 100미터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하철역이 5분 거리에 있고 성남 신흥3동 종합시장 상권의 영향력을 받는 지역이다.

현재 주변생활 환경은 구시가지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으며 문화혜택의 사각지역이라 할수 있고 본 사업에 대해 주민센터도 크게 환영하는 상황이다.



화장실



뒤편 2층 건물 입구



2층 공간



대상지
앞쪽



뒤면 1층 공간



앞쪽 1층 단독주택



주택 1층 현관과 작은방



2층 반대편 사진



2층 전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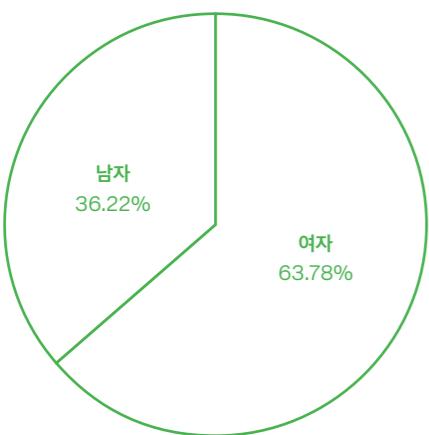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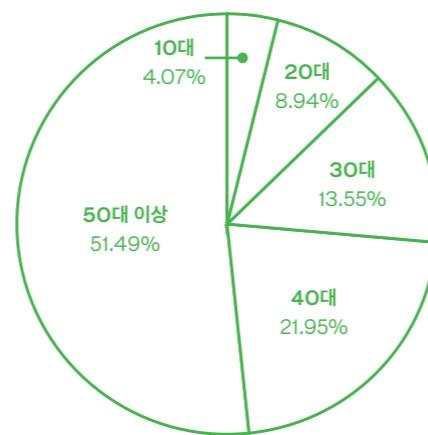
창생공간 설문조사 통계

성별	나이대	재능 여부	어떤 재능	참여 의사	여가공간	여가공간 이용 의사
유효	370	369	358	58	103	364
결측	1	2	13	313	268	7
최빈값	1.00	5.00	2.00	1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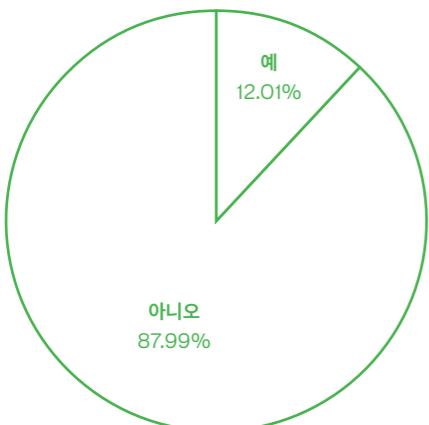
1.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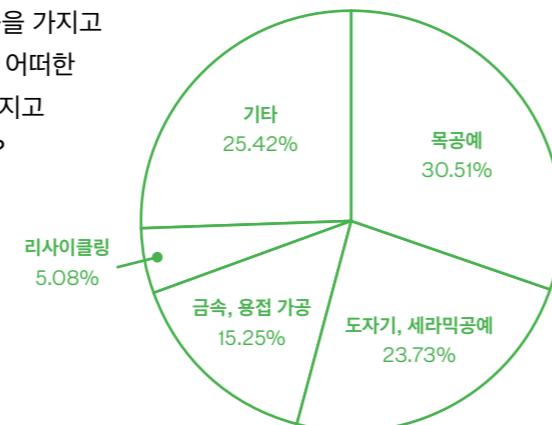
2. 귀하의 나이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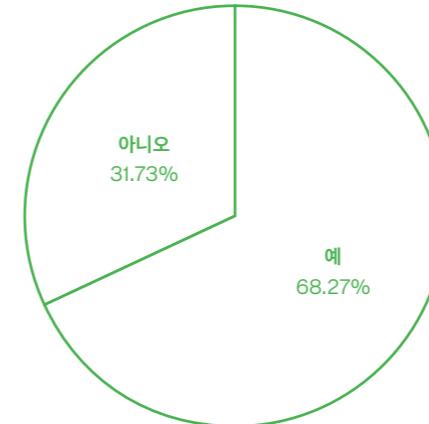
3. 목공, 도예, 금속조형 등과 같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3-1. 재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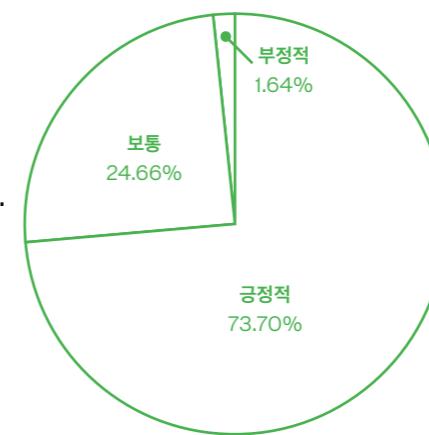
3-2. 재능을 활용할 공간이 만들어 진다면, 참여의사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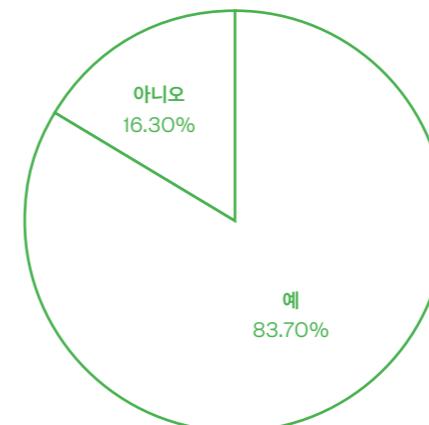
4-2. 영화관, 카페, 벼룩시장, 갤러리 외에 다른 여가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형	빈도
갤러리	6
공연장	6
당구장	1
대화공간	3
도서관	10
독서실	1
동아리	1
밥차	1
배움공간	2
벼룩시장	3
소극장	2
수공예	2
아이들놀이공간	1
어르신 프로그램	1
영화관	7
음악공간	3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1
체험공간	2
카페	6
헬스장	2
휴식공간	3
합계	64

4. 창생공간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벼룩시장, 갤러리와 같은 여가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1. 이와 같은 여가공간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위원 설명회



통·반장 설명회



탐문 조사



부스 설치 여론조사

지역 분석·공간 운영 방향

- 여론조사 결과 갤러리,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카페 등의 공간을 필요로 함.
- 창작 공간이 생길 경우 참여 의사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현재 팀이 보유 중인 기술(목공, 도예, 철제작, 회화)를 바탕으로 창작 공작소를 운영.
- 생산 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 문화적 예술적 소통 공간으로써의 활용하고 소규모 갤러리 운용(지역작가 초대전 상시 운용), 제작 작품 전시, 월 1회 문화적 주민소통(영화상영), 미술교실 운영.

전면 단독주택을 리뉴얼 하여 특색 있는 갤러리와 다용도 공방으로 조성하고 뒤편 창고 건물 1층은 공방기계실, 2층은 갤러리공방 카페로 리뉴얼. 전면 단독주택 지붕을 개량하여 데크를 설치하고 공방과 카페와의 연계 편리성을 두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카페 운영으로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갖춤. 성남지역 커뮤니티 사업으로 성남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창작 공예품 벼룩시장을 월 1회 개최하여 사업장 홍보와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로 자리매김.

주변 공간과 협력

성남문화재단, 신흥3동 주민자치센터, 신흥3동 공공미술 창작소(성남문화재단), 인근 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협의회.

〈재미〉 공간 오프닝 행사

2016. 12. 17. (토) 17시

- 오픈영상(Before & After)
- ‘재미’ 탄생과정 아카이브 전시 및 과정 소개
- 타일그림 그리기(오픈닝 타일벽화제작)
- 마을주민 잔치마당



활동 계획

- 성남 구도심 지역의 노후한 환경과 공간의 특성상 수리문화의 필요성 절감, 단순 기술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낡고 오래된 것의 가치와 보존이 접목된 제작 활동을 만들어나간다.
- 구시가지의 지역 구성원의 실태, 고령화, 슬럼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분포도가 높은 문화 혜택의 사각지대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목공, 철 제작, 용접등 기술을 접목시킨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터득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간 하우징 등에도 적용한다(구시가지의 낡은 주택의 리사이클링).
- 맞춤형 제작(목공 완제품 또는 목공 체험 키트 제작, 도예의 실생활에 접근한 주민 맞춤형 제작 및 체험).
- 주변 어르신들의 문화적 교류와 활동, 옛추억을 되살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조물조물 찰흙 만들기 프로그램.
- 엄마와 함께하는 수공예프로그램 및 어머니들을 위한 커피 체험교실.

수리수리마수리

(Repair Repair Magic Repair, 목공, 도예, 철제작)

- 주변의 모든 버려지는 물품을 대상으로 리사이클, 업사이클 기술교육 및 워크숍, 주민 맞춤형 제품생산 목공(소품 및 체험제품 키트 개발, 예: 우드스피커).
- 도예(주민 맞춤형 제품 개발) 공간 및 하우징 리사이클, 업사이클 접목 연구.
- 제작활동과 워크숍, 인재발굴을 통한 멤버십 회원을 확보하여, 멤버십 회원들과 상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JM갤러리

지역작가 및 무명작가 릴레이 전시, 창생 아카이브전시,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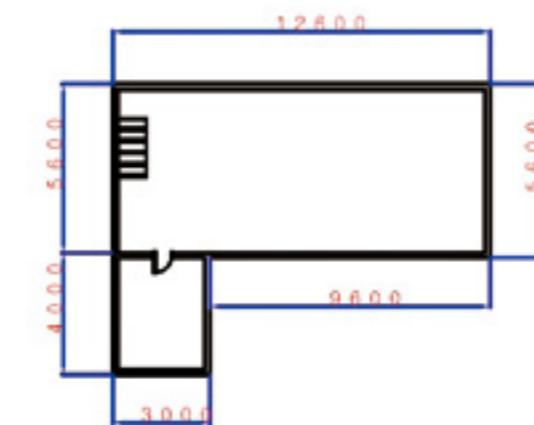
재미난마켓(오픈마켓)

격월 1회 추진 성남시 각급 공방 운영 작가참여 창생제품 오픈마켓 및 공예 체험(신흥3동 주민센터, 주민자치단체, 종합시장 상인회, 청소년 수련관 등과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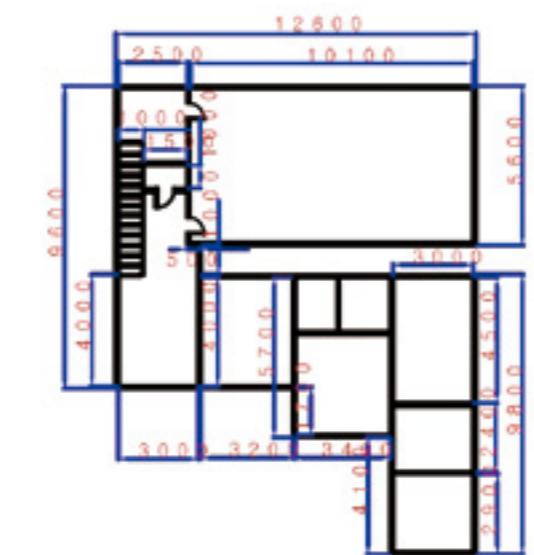
설치미술 공공미술창작

기존 마을벽화 활동 및 상업벽화 구조물 설치 및 공공미술 창작소와 협업, 신흥3동 문화마을 만들기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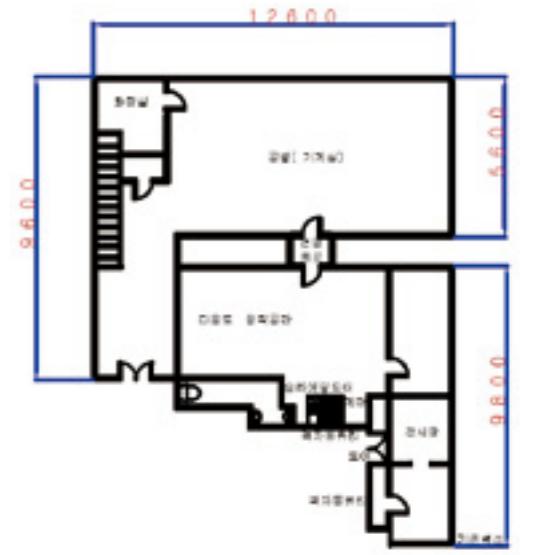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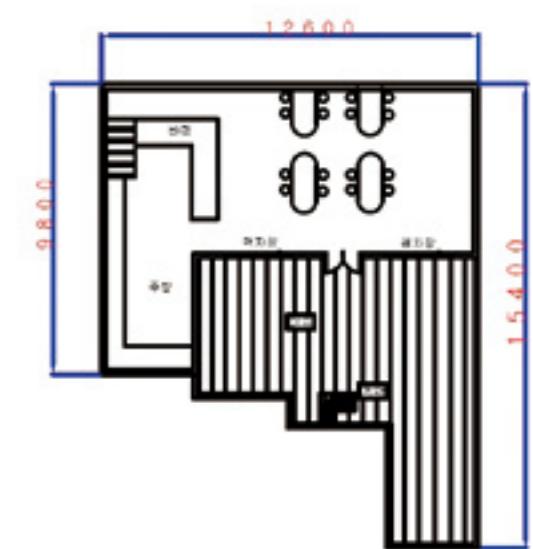
건축 컨설팅에 따라 공간별 기능 재배치



2층 변경 전과 후



1층 변경 전과 후



1. 기초공사 및 기반 공사

- 기존 외부 화장실이 있던 자리 하부는 정화조 위치에 화단 조성(적벽돌로 조적 시공)
- 1층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에 블록으로 조적 후 배관
- 계단이 들어갈 자리와 입구 부분 측량 후 거푸집 작업
- 1층 전체 바닥 콘크리트 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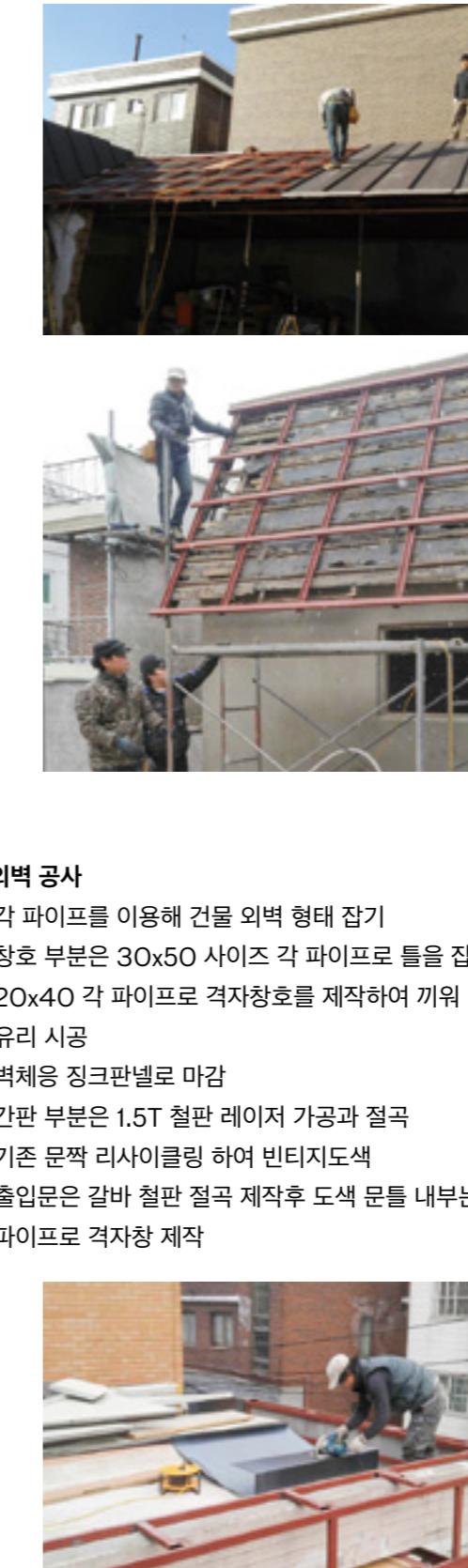
2. 기초 보강 작업

- 보 역할을 할수 있게 잔넬을 건물 형태에 맞게 설치후 거푸집 및 철근 배근
- 불필요한 기둥을 없애기 위해 데크플레이트 시공
- 중간 하중 위치에 기둥 거푸집 및 빔 기둥 보강
- 콘크리트 타설



3. 지붕 공사

- 기존 슬레이트 지붕 내부 형태 유지를 위해 덧씌우기 공사
- 각 파이프로 틀 제작 후 징크판넬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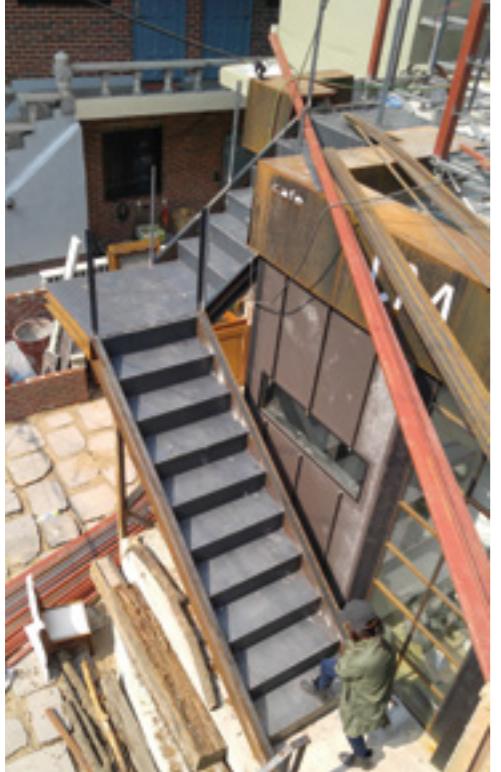


4. 외벽 공사

- 각 파이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 형태 잡기
- 창호 부분은 30x50 사이즈 각 파이프로 틀을 잡아준 후 20x40 각 파이프로 격자창호를 제작하여 끼워 넣은 후 유리 시공
- 벽체용 징크판넬로 마감
- 간판 부분은 1.5T 철판 레이저 가공과 절곡
- 기존 문짝 리사이클링 하여 빈티지도색
- 출입문은 갈바 철판 절곡 제작후 도색 문틀 내부는 각 파이프로 격자창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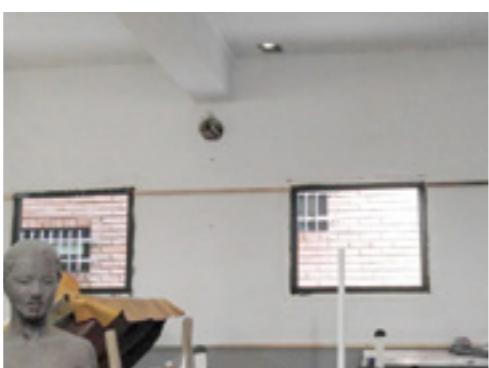
5. 계단공사

- 기존 실내 계단의 급경사와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외 계단 설치
- 폭 200mm잔넬을 이용하여 계단의 기본 틀을 잡고 크레인으로 계단 위치 설정 후 100mm 잔넬로 기둥을 세우고 용접
- 4.5mm 무늬철판을 절곡하여 계단 설치



6. 내부공사

- 기존 벽면을 최대한 활용
- 기존 화장실 벽면 포인트로 활용
- 창호를 이용한 벽장 설치
- 벽면 마감: 갤러리 공간 9mm OSB합판 시공후 석고보드 마감. 시멘트와 완결 방수재 혼합 마감. 부분 화이트 수성 도료 마감. 천정 무광 에나멜 스프레이 도색. 바닥 수성 도료 페인팅 후 에폭시 마감
- 목공실 벽면 수성 도료 도색후 OSB합판 및 스페이스 월로 기능성 벽면 시공. 폐 문짝을 활용한 칸막이 시공. 조명: 철골조에 레일등 시공
- 사무실 복층 시공 계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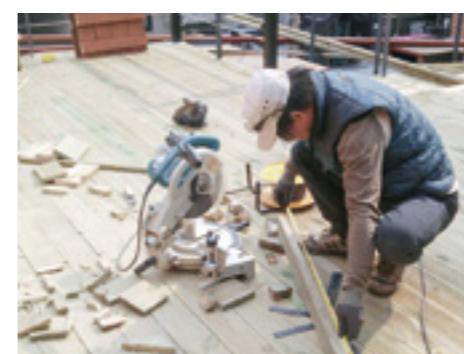
7. 화장실 공사

- 여 화장실 벽면 타일 시공
- 바닥 냉가벽돌 시공후 에폭시 도포
- 남 화장실 벽면 시멘트 완결방수액 혼합 시공
- 바닥 냉가벽돌 시공
- 출입문 각파이프와 유리로 격자문 제작



8. 데크공사

- 파렛트를 활용하여 데크 일부 시공
- 아영각파이프로 기본 틀 시공 후 데크 판재 덧씌우기
- 중앙 화단 및 벤치 시공



9. 카페공사

- 주방 벽면 타일 및 고벽돌 시공
- 천정 나무 지붕 틀 현상유지
- 벽면 일부 철거하여 창호 시공
- 빠텐 철골조 제작후 합판 위에 타일 시공
- 바닥 페인팅 후 에폭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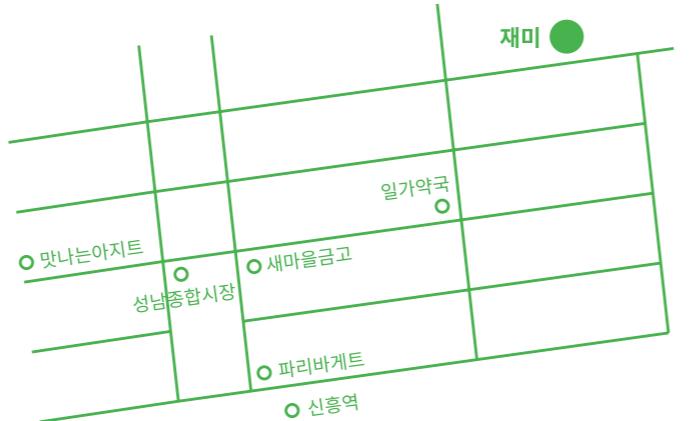


운영 단체 소개

그림마을(대표 이현식)

1990년 경원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성남지역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이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던 중 15년간 마을벽화그리기, 지역공동체 벽화행사에 주로 참여한 그룹이다. 10여 명의 작가로 구성된 단체는 놀이터벽화, 벽화공사, 설치미술, 목공, 리사이클링, 도예, 가구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찾아오는 길



단체 정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15번지 / 공원로 349번길 14-1

<http://재미.com>

문의 010-5808-5250

haaa1205@naver.com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공도창공 수동

공 도 창 공 수 동



<공도창공 수동>의 '공도창공'은 공생도구창작공간의 줄임말이며, '수동'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자 자동화 시스템에 대립하는 핸드메이드 혹은 자작(自作)의 개념을 포괄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적정기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에너지 경제 자립형 공간 운영은 <공도창공 수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서 그 실천 과제는 크게 공공성의 실현과 자립적 생존기반의 확보로 대별된다.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는 지역사회 안팎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술 교육, 적정기술 공생도구의 기술 지원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들 수 있으며, 자립적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과제는 청정연소 열 교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토브의 개발과 문화예술기획 사업에 의한 수익 창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 아이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공도창공 수동>은 향후 자본과 자원, 환경 및 생태, 축적된 지식과 경험(기술) 등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공간 운영을 모색할 것이며, 자생과 공생을 동시에 총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공간 기능

자립 아이템 개발·연구·제작·전시
에너지 자급자족 공생도구 키트를 활용한 각종 스토브 제품 등
완성된 제작물의 상설 전시
적정기술(스토브) 교육

제작 분야

우드가스 스토브, 우드펠렛 스토브, 로켓 스토브 매스히터 등
난방 및 조리기구의 디자인·설계·제작

주요 활동

-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품화 추진
 - 제작워크숍
- 포켓로켓 스토브, 가마솥화덕 제작 실습 및 연소 시연
적정기술 스토브 제작, 보급 행사(조리용 화덕 및 난로 각 1회)
제2회 적정기술 난로페스티벌 수동 인접공간
활용(자작나무공방)
- 생활밀착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용(회원제)



대상 지역: 남양주시 수동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은 동남방면으로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화도읍, 북서 방면으로 포천시 내촌면과 가평군 청평읍에 면해 있다. 송라산, 천마산, 철마산, 주금산, 축령산, 은두산 등의 산에 의해 에워싸인 전형적인 산지 밀집형 지역이며, 인구는 4,495세대 8,795명이다(2016. 5. 3. 현재).

사업대상지인 수동을 위시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는 전형적인 산촌형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펼쳐진 산림의 골짜기마다 마을이 분산되어 들어선 형국으로서 전통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간의 유기적 소통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지역 원주민들의 인성은 다소 폐쇄적인 반면 높은 자율성과 독립적 기질 및 내적 결속력을 지닌다.

수동면은 도로망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낙후하며, 이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루어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영향으로 지역의 환경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으로 대변되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웨빙, 힐링 등과 같은 트랜드와 맞물려 1일 산행이나 단기휴양을 위한 최적지로서 외지인을 유인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린 현상으로써 최근 수년간 전원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오토캠핑장 등의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도창공 수동은 이웃 자작나무공방과 함께 지난 2001년 이곳 사업대상지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이후, 줄곧 지속가능발전과 적정기술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생활해 왔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이라는 의제가 대변하듯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말하며, 사업대상지의 입지는 자연환경의 유지 및 보존,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대성 및 친화성, 생활공간(운영 주체 거주지)의 인접성, 공간 활용도의 적합성(운영 공간의 분리 및 연동),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의 맥락에서 운영 주체의 지향점을 실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본다.

리서치

창생공간 리서치 수행의 목적은 1. 커뮤니티 의견 수렴, 2. 결합 커뮤니티 발굴, 3. 지역성을 반영한 ‘제작 아이템’ 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공도창공 수동’은 공간조성사업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초기 사업계획서에 따른 리서치 수행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되었다.

사업 초기 리서치 실행 단계에서 봉착한 장애와 문제점은 커뮤니티 의견 수렴이었다. 그 이유는 운영 공간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과, 운영 주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제작아이템 개발)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숙고한 결과 커뮤니티 의견 수렴의 대안으로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 실습 워크숍(시범사업의 성격으로 각 1회)을 시행하고, 결합 커뮤니티 발굴과 지역성을 반영한 제작 아이템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전형적인 산촌형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리서치 수행은 자칫 소모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 비해 실무팀에 의해 대안으로 제시된 제작 실습 워크숍의 진행은 초기 사업 수행에 있어서 출구를 제시함과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우선 고려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각기 다른 접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창생공간 조성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 및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선 교섭대상으로 선정한 기관 및 단체는 생활향유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내 대안학교로서 커뮤니티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돌학교, 환경 및 어린이 예절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장학사업, 각종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물골안공동체 등이다.

공도창공 수동 운영 주체는 이들 각 기관 및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창생공간 조성사업의 의의와 워크숍 수행 취지를 설명하고 워크숍 참여자 모집 등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업 의사를 표명한 물골안공동체를 협력 파트너로 최종 선정했다.

결합 커뮤니티 발굴 대상으로 물골안공동체를 선정한 것은 워크숍 수행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현안의 공유와 협력관계 유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하며, 그 결과 당초 2회에 한정된 워크숍 일정이 로켓 스토브 – 가마솥화덕 제작 워크숍과 적정기술 난로 페스티벌 행사로 연장, 진행되었다.

물골안공동체

협업대상 지역커뮤니티로 결정된 물골안공동체(회장 이희원)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이 구비된 대한노인회 수동분회 물골안 다목적회관(2011년 개관. 대지면적 1,224m², 건축면적 691.13m²)을 거점으로 지난 2015년 발족된 단체이다. 현재 약 70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딧불이 축제(반딧불이 보존회)와 지역역사 발굴 및 탐방 프로그램, 예절교육 프로그램, 장학사업, 다양한 도농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의 환경보존과 차세대 교육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이다.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사업 활동의 범위와 수행, 대외 지명도 및 신인도 등으로 비추어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 본 운영 주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고,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환경보존 및 개선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을 협업할 대상으로서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골안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세 차례의 워크숍[새집 만들기 워크숍(어린이 대상 목공 프로그램)], 우드가스 스토브 워크숍, 로켓 스토브 – 가마솥화덕 만들기 워크숍]을 기대 이상의 관심과 성황 속에 마칠 수 있었으며, 공도창공 수동, 물골안공동체, 한국적정기술연합회(난로부대장터)의 공동주관으로 공간 오프닝 부대행사로 기획된 ‘적정기술 난로 페스티벌 ‘수동’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 작업실 다락공사

이 공간은 사업 시작 이전 단계 시점에서부터 이미 각종 장비와 도구, 자재, 시험 제작 스토브 등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향후 장비 설치와 자재 비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 공간, 완성된 제작물(프로토타입) 등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공간의 부분 개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재 및 물품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락 공사를 진행했다.

- 규격: 9500(W)x2440(D)x2440(H)
- 재료: 컬라각관(100x100, 100x50), OSB합판 등



2. 용접 작업대

시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용접 작업대를 제작, 설치했다. 용접 스파터 등 안전을 고려해 역삼각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상단과 하단에 선반을 설치함으로써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 상단: 용접자석, 각종 클램프, 용접장갑 등을 수납,
* 하단: 플라즈마 절단기, 티그 및 아크용접기 등을 수납

- 프레임 1500x900x800 / 상판 1500x800
- 재료: 프레임 8x100 평철(절곡), 50x25 각관 등
상판 6mm철판(절단)



3. 보조 작업대

용접 작업대와 연결 혹은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보조 작업대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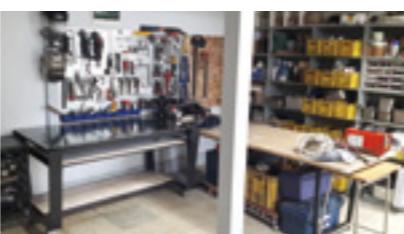
- 규격: 1600x700x700 / 1200x700x700
- 재료: 30x30컬러각관



상판결합 전

4. 용접 작업대 및 공구 걸이대 설치

제작된 용접 및 보조 작업대를 배치하고 그 배후면에 공구걸이대를 설치했다. 공구걸이대는 용접면, 마스크, 그라인더, 클램프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공기구들을 일괄 정리할 수 있어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필수 장비 중 하나이다.



5. 환풍기

각종 스토브의 연소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용접가스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작업실 천장 밑에 환풍기를 설치했다.



6. 작업등 및 용접 전용 환풍기

다락 설치로 인해 어두워진 용접작업대 위를 밝히기 위해 LED등을 설치하고, 용접가스를 직접 배출하기 위한 전용 환풍기를 제작, 설치했다.



용접 전용 환풍기



용접 전용 환풍기 흡출호스 및 LED등

8. 햇빛발전기 시공 및 전기설비

적정기술 및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공간 운영,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 등 상징적이자 현실적인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로서 햇빛발전기를 시공, 설치했다.



모듈 설치작업



인버터(주황색 박스), 접속배선함, 누전차단기

9. 용접 장비 및 기자재

각종 스토브 시제품의 제작을 위한 전문 용접장비로서 CO₂, 티그, 아크용접기와 프라즈마 절단기를 구입하고, 관련 기자재를 설치했다. 가정용 전기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대량생산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장비이다. 아크용접기 하나에 의존해 제작하던 이전의 작업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용접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제작 워크숍

워크숍 1: 아동 대상 목공 워크숍[새집 만들기]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 다목적회관 대강당

2016. 8. 10.

새집 만들기 워크숍 후기

어린이 대상의 워크숍으로서 도구 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와 위험요소들에 대해 사전숙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목적

워크숍은 재료가공 일체를 사전 제작한 후 조립만 해서 완성하는 DIY 수업방식을 지향하고, 가능한 모든 공정을 직접 가공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다. 새집을 만드는 이유를 필두로, 톱과 망치, 클램프의 사용법, 직각자를 활용한 선 긋기, 새집 디자인의 종류와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로 인한 동기부여, 새집의 구조와 형태 구성, 위험 도구 조작에 따른 주의사항(안전) 등을 설명하고, 텁질 시범을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팀별 제작에 들어갔다. 워크숍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한 것은 도구 사용과 손기술의 감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제작공정을 머릿속으로 가늠하고, 실제 제작에서 나타나는 변수와 시행착오를 깨우치고 대처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장소 및 공간

워크숍 장소는 물골안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동공방에서 물골안공동체 대강당으로 변경되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척 다행스런 결정이었다. 우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업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따로 제작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덜 수 있었다. 공간 또한 다목적 회관에 걸맞게 음향 및 영상시설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이번 워크숍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목적의 지역 커뮤니티행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냉방시설과 정수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워크숍을 마친 후에도 대형 진공청소기가 마련되어 있어 텁밥 등의 청소를 한결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다.

참가 대상

워크숍 참가 학생들의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인지 처음 대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묻기도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하게 접근해 안도했다. 워크숍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 5, 6학년에서 중학생까지로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물골안공동체와 수동사랑학부모회 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진행 과정

집중력 혹은 주의 부족, 산만함 등 어린이들 특유의 행동 유의사항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이들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판단될 정도)하고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관심도와 집중력 등의 부분에서 인상적인 학습태도로 일관했다. 제작은 2인 1조로 진행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직각자를 활용한 선긋기, 클램프로 재료 고정하고, 텁질하기 등의 작업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곧바로 숙지하고 전체적으로 곧잘 수행한 반면, 못 박기는 망치질을 하는 과정에서 못이 휘거나, 제대로 박았다 해도 결합면이 어긋나는 등 대체로 어려워했다. 사전 제작 작업 워크숍 준비과정에서의(예비작업) 통하여 어느 정도 예상했으므로 이 부분은 각 강사들이 분담해 도와가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완성을 도왔다. 재료로 준비한 1x4 스프러스 구조재는 비교적 부드럽고 가공이 쉬운 수종이긴 하지만, 두께와 강도, 나무결 등의 변수로 인해 어린이들이 작업하기에 다소 무리한 소재라 판단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워크숍 2: 주민 대상 우드가스 스토브 제작 실습 워크숍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다목적회관 대강당
2016. 8. 27.

우드가스 스토브 제작 실습 워크숍 후기

아동 대상 새집 만들기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써 성인대상 우드가스 스토브 제작 워크숍을 진행했다.

목적

이번 워크숍의 일차 목적은 창생공간 파일럿 프로그램 활동의 일환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의제를 공유하고 제작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본 운영 주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협업대상 커뮤니티로서 수동면 주민자치센터와 물골안공동체, 산돌학교를 선정했다. 그 이유는 이들 기관과 단체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운용할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3일 경기문화재단 창생 파일럿 프로그램의 홍보를 겸한 행사로써 제작 워크숍의 구체적 진행 방향을 결정한 후 선정된 기관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홍보물을 전달한 바 있다. 물골안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업의사를 표명한 단체이며, 나아가 공간 사용 및 워크숍 참가자 모집, 인력, 물품지원, 지역민들의 구성과 특성에 대한 조언 등 이번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단체이다.

이번 워크숍은 앞에서 언급한 일차 목적에 더하여 보다 내밀한 요구와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도창공 수동>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는 적정기술과 지속가능발전 테제를 지역内外에 보급하고 그 연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에 의한 제작문화의 확산은 창생공간사업의 가장 주요한 모티프이며, 이는 언급한 본 운영 주체의 지향점과 부합되는 가치이기도 하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수동면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촌형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계곡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탓에 주민들의 주거형태는 거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드가스 스토브와 로켓 스토브, 햇빛 건조기 등 친환경적 열에너지 이용 기술을 지역에 보급하는 일은 조리용 화덕과 난로, 구들, 소각로뿐 아니라 각종 나물의 위생적 건조에 이르기까지 일상영역에서의 활용범위가 넓으며, 그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공도창공 수동>의 활동 방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본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그리고 커뮤니티

간 협업 프로그램의 첫 단초를 채운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가진 의의와 기대가 매우 크다.

장소 및 공간 활용

워크숍 장소는 지난 새집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던 물골안공동체 대강당이다. 지난번 워크숍과 차이가 있다면 공간 이용을 대강당 내부와 외부 테라스로 이원화한 점이다. 목공작업을 진행한 지난 워크숍과 달리 이번 워크숍은 깡통에 충전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 것이 주된 작업이다 보니 바닥에 쇠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었다. 떨어진 쇠가루를 맨발로 밟을 경우 자칫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팀원들과 협의 후 천공작업은 야외 테라스에 진행하고, 그 외의 다른 작업은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참가자

처음 모집 대상은 수동면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2명이었으나 예상 참가인원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물골안공동체 측의 권고에 따라 참가인원을 20명으로 늘렸으며, 일시 또한 직장인들을 고려해 토요일로 변경했다. 신청자는 주로 물골안공동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수동사랑학부모회 소속회원들로서 그 성원만으로도 참가 인원이 충원되고도 남을 거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운영 주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주민들은 참여 신청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청 인원이 조기 충원되어 이후의 신청을 제한하기도 했다. 워크숍 당일의 실제 참가 인원은 약 19명(성인 17명, 아동 2명)이며, 노인층에서 중장년층, 젊은 학부모 등 폭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아동을 동반한 참석자도 있었다.

진행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료에서 도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예비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드가스 스토브를 제작할 주재료로서 1리터와 0.5리터 원형깡통이 선택되었으며, 천공규격과 배열을 다르게 적용하여 다양한 모델을 시험제작한 후 연소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효율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 워크숍 제작 실습 프로토타입으로 결정했다.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재료와 도구들을 참가 인원 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새집 만들기 워크숍의 경우 망치와 칙각 자 등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재료와 도구였기에 비용 부담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우드가스 스토브 워크숍의 경우는 충전드릴 등 필요한 공기구를 구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회에 국한된 사업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구 및 도구의 구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주변 지인들의 공구를 빌리고, 추가 공지를 통해 충전 드릴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지참하도록 했다.

워크숍 진행은 우선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 사업 및 <공도창공 수동>을 소개하는 것을 필두로, 현대 소비사회에 의해 야기된 생활기술능력의 퇴보를 지적하고, 잃어버린 삶의 기술을 회복할 필요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본 주제인 우드가스 스토브의 연소 원리(TLUD/Gasification) 및 구체적인 제작 실습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나갔다.

실제 스토브의 제작에서는 초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팀원들에 의한 개별설명과 참가자 상호 간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비교적 순조롭게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게 제작에 몰입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후 충전 드릴을 이용한 천공 작업 등 초보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작업도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참가자들이 대체로 완성도 있는 스토브를 제작할 수 있었다.



자체평가 및 진단

— 커뮤니티 발굴

물골안공동체(회장 이희원)는 물골안 다목적회관을 중심으로 반딧불이 축제(반딧불이 보존회)와 지역역사 발굴 및 탐방 프로그램, 예절교육 프로그램, 장학사업 등 지역의 환경보존과 차세대 교육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이다.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사업 활동의 범위와 수행, 대외 지명도 및 신인도 등으로 비추어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 본 운영 주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고,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환경보존 및 개선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기획을 협업할 대상으로서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물골안공동체를 협업대상 커뮤니티로 선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한다.



— 워크숍

예상대로 워크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산촌형 마을공동체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로켓 스토브를 중심으로 하는 열에너지 이용 기술의 교육 및 제작 워크숍의 실행은 비단 수동면뿐 아니라 경기북부 전역에 그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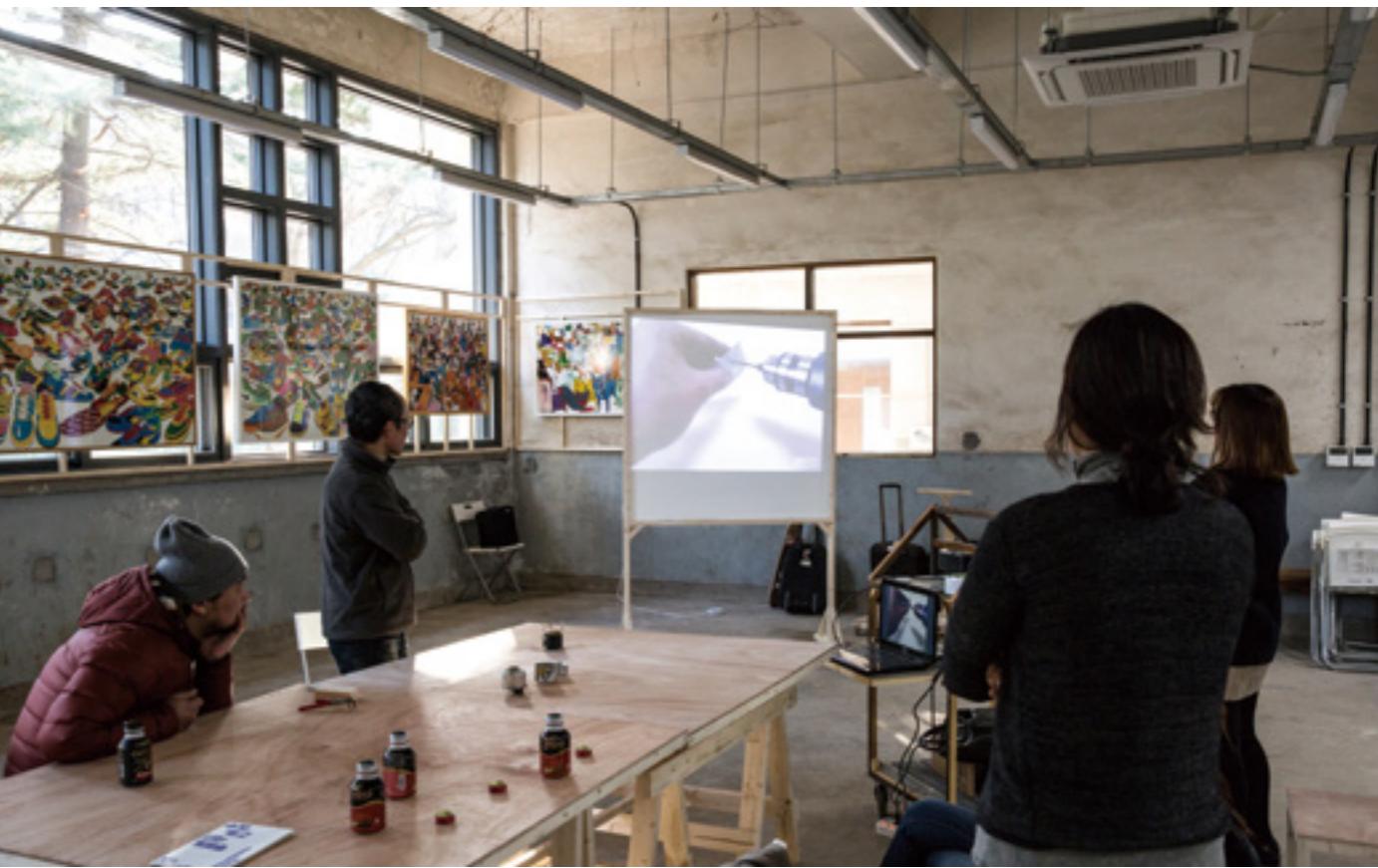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의 주제인 우드가스 스토브는 간단한 도구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원리 속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연소원리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들의 진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그 대표적 내용은 집에서 화덕으로 사용할 정도로 스토브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내통과 외통의 비례, 난로로 이용할 경우의 제작 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작한 우드가스 스토브의 용량은 0.5리터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이다. 연소시험 결과 펠렛을 연료로 이용할 경우 버닝타임이 약 50분 정도 지속되므로 백팩킹의 용도로는 손색이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참가자들의 질문은 실생활에서 적정기술 스토브의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우드가스 스토브는 경량화, 휴대 편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조리용 스토브로 활용된다. 물론 가마솥 화덕 등의 용도로 용량을 크게 제작하거나 난방기구(난로)를 제작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열변형과 취약한 내구성의 한계에 더하여 철저한 기밀 유지가 요구되므로 일반인들이 제작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로켓 스토브는 재료와 용량에 관계없이 조리용 화덕에서 난방기구, 구들에 이르기까지 열에너지 활용범위가 매우 넓으며, 언급한 우드가스 스토브의 한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열에너지 이용 기술이다.

본 운영 주체는 이러한 참가자들의 질문을 반영하여 향후 로켓 스토브를 주제로 별도의 워크숍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시기는 물골안공동체 측과 협의한 후 10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침니 제트 알코올 스토브 만들기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제작 워크숍



워크숍 3: 주민 대상 로켓 스토브 – 가마솥 화덕 워크숍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다목적회관

2016.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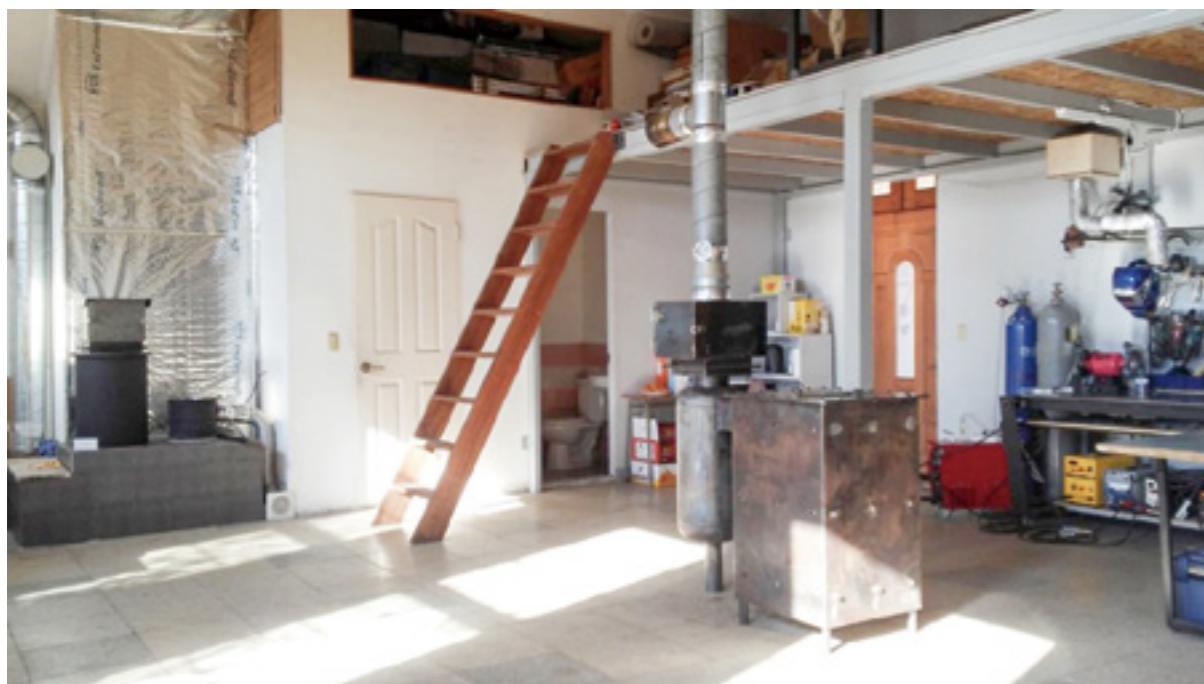


<공도창공 수동> 공간 오프닝 행사

공간 소개 및 프로토타입 디스플레이

2016. 12. 10. (토) 14시

- 태양광 발전, 자체 개발 프로토타입 로켓 스토브 매스히터 등 소개 및 시연
- 에너지자급자족 공생도구 키트 소개
- 공생도구를 활용한 조개 시식



오픈 연계 ‘적정기술 난로 페스티벌 수동’

물골안다목적회관(남양주시 수동면)

2016. 12. 10. ~ 11.

주관: <공도창공 수동>,
한국적정기술협회(난로부대장터),
물골안공동체 공동주관

- 각종 스토브 전시 및 연소 시연
[한국적정기술협회(난로부대장터) 소속 고효율 난로개발자들과 공도창공 수동의 자체개발 난로]
- 용접시연 및 교육
- 먹거리 나눔행사(가마솥손두부 만들기, 수제 바베큐, 핫플레이트 로켓 스토브 철판요리 등)
- 통나무 장작패기, 통나무 로켓 스토브 연소 시연 등 각종 이벤트



프로토타입 시제품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주된 수행과제는 크게 연구 및 시험 제작에 의해 자체 개발된 제작 아이템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업 커뮤니티 발굴 및 적정기술 제작실습 워크숍을 들 수 있다.

제작아이템 개발은 우드가스 스토브와 로켓

스토브, 펠렛 스토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와 시험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제시될 시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이 중 협업 커뮤니티 발굴은 이미 '4. 지역커뮤니티 또는 작업자 네트워크 연계'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적정기술 제작 실습 워크숍'은 네이버 카페 '공도창공 수동' 혹은 <공도창공 수동 활동자료집>의 '워크숍' 항목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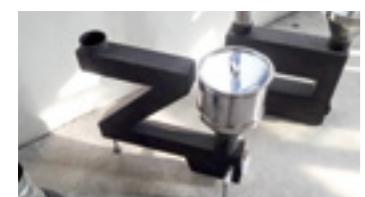
1. 우드가스 스토브 타입 E



우드가스 스토브는 아웃도어 및 백패킹용 조리기구로서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이 장점이며, 주된 특징으로서 기구설계의 간편성, 연기가 없는 청정연소 및 높은 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외 시장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무동력 연소방식으로서 조리용기 바닥의 그을음 및 타르점착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

'우드가스 스토브 타입 E'는 이러한 기존 제품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시장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작아이템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양산형 제품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2. 우드펠렛 스토브 '버드(Bird)



우드펠렛 스토브 '버드'는 기존의 'Z'자형 스토브의 성능을 보완, 개선한 스토브이다. 연소통로의 길이와 각도를 최상의 효율을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소 그레이팅의 형태와 간격 또한

최적의 상태로 재조정함으로써 단순 연소 구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열효율을 구현했다. 연소로 상판을 이용,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다.

공간 오픈에 이어진 최근의 전시를 통해 디자인의 특이성으로 인한 다중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향후 관찰창 및 그레이팅, 힌지 등 일부의 장치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양산형 제품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3. 우드펠렛 스토브 '네모(Square)'



우드펠렛 스토브 '네모' 역시 기존에 개발 중이던 스토브로서 기술적 보완과 동시에 보다 심플한 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완결성 있는 시제품으로 변모했다. 연소통로의 길이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 상향식 연소 구조를 채택했으며, 디자인의 완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들을 내장했다.

연소로 상판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며, 향후 '버드'와 함께 불꽃관찰창 및 그레이팅, 힌지 등 일부의 장치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양산형 제품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4. 비엔나스토브



'비엔나 스토브'는 기존의 적정기술 업사이클링 모델인 트윈 스토브의 디자인과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새롭게 탄생된 시제품 모델이다. 유연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구성요소가 분리, 결합되는 구조로서 탁월한 공간조형성을 지녔으며, 거꾸로 타는 연소방식 및 상하로 두 번에 걸쳐 왕복하는 연소구조는 최상의 발열량과 완전연소에 가까운 연소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연결통로와 더불어 새롭게 부착된 오븐을 이용하여 조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비엔나 스토브'는 동종 연소구조의 '로봇 스토브(활동자료집 34쪽 참조)'와 함께 공간조형성이 뛰어난 모델로서 일반적인 난로디자인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유연한 공간연출이 가능한 창의적인 난로 디자인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향후 특화된 공간디자인을 요구하는 장소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시장을 개척할 모델로서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을 시도할 계획이다.

5. 트윈 스토브 I



엄청난 발열량에 비해 열손실이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조리를 할 수 없는 포켓로켓스토브 아르케타입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한 자체디자인 모델이다. 로켓 스토브 특유의 청정연소와 최상의 연소효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난방 및 조리겸용 스토브로서 기능적인 측면 또한 최적화되었다.

최근 2, 3년 동안 적정기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 모델에 대한 기술지원과 보급을 시도해 왔으며, 주변의 작가들 및 지인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됨에 따라 그 성능이 검증된 스토브이다. 최근의 전시('수작, 먹고사는 기예술')에 불꽃관찰창 겸 이차공기투입구를 장착한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디자인 및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보급용, 주문제작용 시제품.

6. TPR(Transform Pocket Rocket) 스토브



기존의 적정기술 업사이클링 모델인 트윈 스토브의 기능과 이용 상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효율과 안정성, 편의성을 실현한 스토브이다. 열변형 방지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화실 라이닝이 부가되었으며, 그레이팅과 재서랍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TPR 스토브'의 디자인 요소는 단순하고 남성적인 강고함이며 작업실, 창고, 소규모 사업장 등 다소 개방된 공간을 위해 최적화된 모델이다. 향후 제품생산단계에서 불꽃관찰창 겸 이차공기투입장치 등 기능 및 편의성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스토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주문제작용 시제품.

7. 로켓매스 히터 우드펠렛 연소기



우드펠렛 연소기를 결합한 로켓매스 히터 열교환기로서 기존 로켓스토브의 주 연료인 화목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우드펠렛은 톱밥 형태로 분쇄된 나무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고효율 연료로서, 이의 활용은 화목을 연료로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노동과 시간, 적재 공간, 이용 상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로켓스토브 연소장치에 비교할 때 구조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으므로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넓은 열교환기 상판(핫플레이트)을 활용한 조리기능 또한 커다란 장점이다. 공간구조와 용도에 따라 별도의 가변식 벤치형(혹은 침대형) 구들을 제작하여 결합하는 구조로서 기존의 로켓매스 히터와 함께 주문제작용 시제품이다.

8. 에너지 자급자족 공생도구 키트



'에너지 자급자족 공생도구 키트'는 전기 및 천연가스,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설이자 장치이다.'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에 핫빛 발전기, 로켓매스 히터, 핫플레이트 로켓 스토브, 우드가스 스토브, 핫빛 음식물건조기, 빗물저금통, 생태화장실 등 총 12개의 공생도구가 결합된 구조로서, 공간 오픈ning 전시를 위해 기존에 제작된 키트의 부분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공간규모(3,000x3,000)에 적합한 사이즈로 이동식 로켓매스 히터를 축소하여 제작했다. 교육용, 모바일하우스용, 국가재난구호용으로 특화된 주문 제작형 시제품으로서 키트 전체 혹은 일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영 단체 소개

공도창공 수동(대표 정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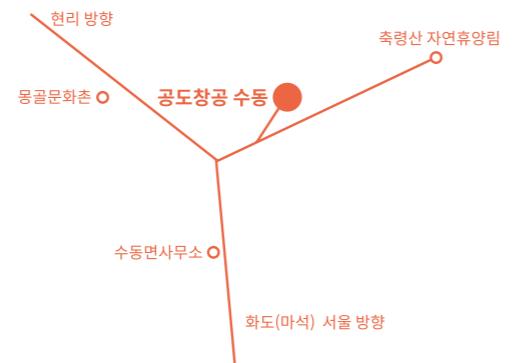
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의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줄곧 적정기술과 지속가능발전 관련의제를 실천과제로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로켓 스토브, 로켓매스 히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적정기술과 공생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험해 왔다.

2010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2010APAP)

오동팀의 폐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로켓스토브 조리용 화덕, 로켓매스히터 구들, 생태화장실, 옥상빗물연못정원, 자연농법텃밭 등 생태 순환적 삶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적정기술 공생도구를 선보였다.

최근 수년 동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공미술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울 동북부 저개발 지역 도봉구 창동, 방학동 일원에서 로켓 스토브와 로켓매스 히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적정기술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찾아오는 길



단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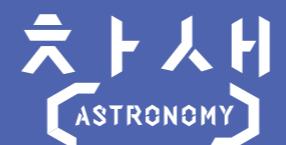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37번길 40-1
<http://cafe.naver.com/convivialmake>
문의 010-9018-2926
wieammaint@hanmail.net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천문공작실



천체 제작 실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한 천문공작실은 천체 관련 제작 교육 및 체험 교육, 교육용 제작 키트를 개발하는 단체로서, 천체망원경의 제작 이론 교육, 도면, 디자인, 가공 조립 등을 직접 할 수 있고, 천체 관측 및 천체 촬영을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자체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삼봉리 구봉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있으며 1층 휴식 및 부대 공간, 2층 제작 및 체험,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된 다양한 원리의 망원경은 항상 보아왔던 망원경이 아닌 새롭고 독특한 응용제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론, 제작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천체망원경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제작 공간으로 교육용 제작 키트 및 전문적인 천체망원경의 필수 부품들을 구비해 방문객들은 언제든지 직접 제작 할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목공방과 Farm77O 주말 체험농장은 삼봉리 마을이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다양한 체험을 연계 할 수 있다.



공간 기능

시민 천체 관측

제작 워크숍:

굴절망원경, 뉴토니안 반사망원경, 돋소니안 망원경,

쌍안망원경 조립, 제작, 관측

목재가공 및 금속가공 설계, 제작

제작 분야

천체망원경 제작



운영시간

체험제작 10시 – 18시

자율관측 20시 – 새벽 3시(매주 월 휴무)



삼봉리에 있는 마을회관은 마을 개발위원회의 협조 아래 공익사업을 위한 적합한 장소로 마을회관의 비어 있는 2층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다. 수도권에 근접한 위치로서 저렴한 창조 작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술인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높은 수준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그동안 마을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마을단체 활동이 있었으나 가시적이고도 지속적인 콘텐츠 문화사업 육성이 필요하였고 마을 전체 주민과 함께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산의 사상을 배경으로 과학과 문화의 도시 남양주, 그중에서도 조안면 삼봉리가 특성화된 지역의 허브로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을회관

- 2층은 DIY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회관 50평 규모 활용(1층은 마을주방, 회의실).
- 마을회관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 노지를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 북한강 주변 맑은 경관, 3천여 평의 넓은 대지로 관측시야 확보 및 천문캠핑 장소로 활용.



공간 조성 전

마을 행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단기 임대 등으로는만 사용하여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떨어졌었다.

공간 콘셉트

자연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 형성, 창의적 활동을 통한 소통과 친목의 공간

- 마을 회관 2층(50여 평): 망원경 원리와 이해를 돋기 위한 기자재 전시 및 교육
- 제작 및 세미나실: 천문 관측을 위한 교육
- DIY 부품창고: 체험학습을 위한 시스템 확보
- 수용 가능 인원: 1회 30명

공간 조성 후

관측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및 타 지역사람들의 관심과 왕래가 많아졌고 체험 제작 공간과 프로그램 이용 및 관람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광고판 및 홍보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문의, 교육단체와 연계가 만들어지고 타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에 대한 제안이 많아졌다.

[옥상] 관측 장소 조성 및 망원경 제작 설치와 휴식 공간 조성.

[2층] 제작 체험 교육, 천체망원경 제작 과정, 망원경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 조성 및 제작 체험 공간 조성.



옥상



삼봉리 구봉마을회관



2층 천문공작실

천체망원경 제작 체험 & 워크숍

8월 조안면 삼봉리 천문공작실

서울 상문고등학교 제작 체험(26명)

반사망원경의 원리 이해 및 제작 체험

9월 조안면 삼봉리 유기농 박물관

남양주 지역 가족 단체 천체망원경 제작 체험

별자리 이야기 및 목공 굴절 망원경의 제작 체험



10월 남양주 조안면 체험농장 Farm770

남양주 진중교회 어린이들 제작 체험(20명)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이해 및 제작 체험

양평 오커빌리지

실학박물관 연계, 제작 체험(46명)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이해 및 제작 체험

남양주 물의 정원 행사

지역시민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이해 및 제작 체험

11월 남양주 인재지원센터 제작 체험(15명)

인재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굴절 천체망원경의 이론 및 제작 체험



12월 남양주 조안면 체험농장 Farm770

남양주 수동중학교 제작체험(48명)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이론 및 제작 체험, 기타 교구

제작 체험 제작용 행사 등에 사용되는 학습교구,

실학박물관 교구제작 100세트, 상상공작소 교구

제작 20세트, 남양주 자연학교 10세트, 일반

35세트

목공공방 농촌체험 주말농장 연계

DIY 과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상: 직장인, 동아리 단체

1~4주 동안 원하는 사양의 망원경을 조립완성,
야외로 출사, 관측 후기 나눔 및 관측 일지 작성

자연 체험 캠핑

오전: 부모님과 함께 농촌 체험(감자, 고구마 캐기)

오후: 망원경 KIT 각 부품의 설명과 각각의 기능 익히기,
천체망원경 조립, 망원경 작동방법과 원리 익히기, 계절별
별자리 설명, 달 표면 관측 및 촬영 및 성단 성운등 별 관측



실학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가족 체험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토요일엔 망원경을〉

대상: 아버지와 초등학생 이상 자녀, 최소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 참여

참여 후 SNS를 통해 별 관측 사진 후기 남기면 베스트
포토제닉 시상

야외 출사 및 캠핑

관찰 시설 및 캠핑을 위한 야외 데크 조성

빔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별자리 사진 학습)

천문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 왜 낮과 밤의 길이는 계절마다 바뀔까?
• 왜 달의 모양과 뜨고지는 시간이 변할까?
• 왜 지난달 보았던 그 별자리가 안보일까?

이 모든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밤하늘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인류는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고 연구했습니다.

계절과 날씨를 알게 해 주는 별자리와 달의 변화.

시간을 알려주는 태양의 그림자.

천문은 우리주변 곳곳에서 인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시운용 프로그램

• 천체관측 체험(야간)
• 별자리 / 신화 해설
• 달, 행성, 성운, 성단 관측
• 천체망원경 대여 / 자유관측

단체 프로그램(사전예약)

• 천체망원경 제작체험
• 굴절 / 반사망원경 자작
• 목공 천체망원경 자작
• 망원경 원리 이해

천체공작실...

• 모두가 쉽게 별을 보길 바랐던 망원경 제작자와
• 자연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는 Farm770 이

• 경기문화재단과 삼봉리개발위원회의 후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속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밤 하늘과 별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데미공간 『천문공작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천체망원경 클리닉

• 천체망원경 관리 / 사용법
• 전자식기대, GOTO기대 활용
• 극축정렬 방법

천체망원경 주문제작

대구경 굴절망원경 제작



천체 쌍안경 제작



반사망원경 제작



<천문공작실> 오프닝 행사

2016. 9. 2.

참여자: 이동희, 최동안, 김기영, 강영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관장 및 지역단체장, 삼봉리 마을 주민

- 내빈 소개
- 공간 및 활용계획 설명
- 천체망원경 체험
- 잔치마당



내가 만드는 천체망원경 –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제작 워크숍



운영 단체 소개

2013년, 천체망원경 DIY 체험 및 관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 조성 목적으로 삼봉리 소재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천문인 커뮤니티 카페 설립하였다. 이후 마을 공익사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구봉 마을회관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위원회 위원들의 자문과 도움, 창생사업을 계기로 천문공작실을 오프라인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관찰/체험학습의 장 조성, 지역 학교 방과후 교실 활성화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님과 함께 남양주 조안면의 천문관측 체험 마을을 구성하고 타 지역 사람들의 체험학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며, 주민의 단합을 통한 공공 수익 창출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경의 중앙선 운길산역 – 마을버스, 일반버스 56, 167, 112-1(구봉마을 입구하차)
자가용: 서울–팔당대교–양수대교–가평방향–구남양주 종합촬영소(1km 전 우측 구봉마을 회관)
전철은 운길산역 하차, 버스는 56, 167, 63번 이용

단체 정보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770번길 9(구봉마을회관)
<http://cafe.naver.com/woiow>
문의 010-3773-6110
ipanema70@naver.com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곧바로 책, 방

곧바로 책·방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지역문화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지역출판의 제작기반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래된 지역의 한 공간에 책방을 열었다.

출판학교 <북스튜디오 사이다>를 운영하여 출판 전반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실습과 제작, 출판전시회까지 진행해 보고 출판 인재 양성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료와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한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책방에 한데 모아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책 판매도 진행한다.



공간 기능

출판 교육과 실습 진행
지역아카이브 서점 운영 및 판매



분야

출판 기획, 지역 아카이브



출판학교 졸업식 및 출판 기념회

2016. 12. 15. (목) 14시

- 북스튜디오사이다 출간 책 소개
- 출판기념 낭독회
- 출판학교 사진전
- 소공연



활동 사항

공간 리뉴얼

과거 성안 마을로 불렸던 구도심권의 신풍동 2번지에 위치한 더페이퍼 사옥은 2012년 한옥 건물을 개조하여 <골목잡지 사이다> 발간을 비롯해 편집디자인, 문화기획, 주민인문학교육 등을 전개하며 동네 안에서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공간 옆에 ‘평상’이라는 작은 공간을 출판학교와 지역아카이브 서점으로 조성하였다. 수원 중심의 지역자료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출판물을 책방에 한데 모아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 공간에 있던 넓은 평상을 치우고 출판학교 수업 공간이자 지역아카이브 서점으로 꾸미기 위한 공간 인테리어가 필요했으며, 책장을 구비하고 강의 공간 마련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공간에 배치하였다.

출판학교 프로그램 개설

출판학교 <북스튜디오 사이다>는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출판 전반에 관한 개괄적 이해부터 출판기획, 원고 작성, 교정교열과 편집디자인, 저작권과 출판권, 유통과 마케팅 등의 강의를 구성하고, 현장실습 체험과 특강을 강의 사이사이에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공개하였다.

수강자 모집 공고 및 홍보

지역 도서관과 독립서점, 주변 학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출판학교 수강자를 모집·홍보하였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하였다.

공개 특강

개강 전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의 공개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출판의 의미와 현실, 지역에서 출판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였다.

출판교육 진행

출판학교는 소수정예 운영을 목표로 하여 총 11명의 수강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출판프로세스 베이직 강의를 시작으로, 수원학과 지역콘텐츠 개발, 출판기획, 전자출판,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이덕규 시인의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정교열과 출판저작권, 편집디자인과 유통, 마케팅 부분을 강의로 진행하였다.

실습 체험

수강생들 각자 원하는 지역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취재를 나서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는 실습체험을 진행하였으며, 편집디자인 툴을 배워 간단한 명함 만들기와 잡지의 한 코너를 직접 편집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다.

출판물 제작

수강생들이 직접 원고 작성한 결과물을 한데 모아 <북스튜디오 사이다에서 책을 만나다>를 제작·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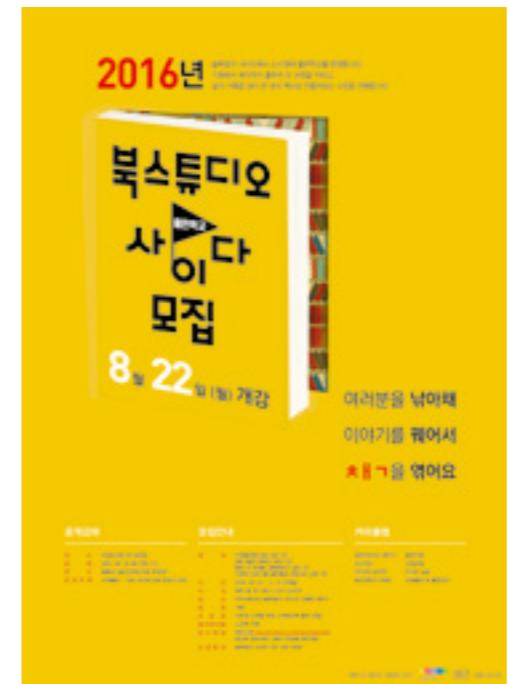
수료식 및 출판기념회

총 11명으로 시작한 출판학교 수강생은 최종적으로 5명이 수료하였다. 출판학교 1기생들은 물론 도서관 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판학교 <북스튜디오 사이다> 프로그램을 마쳤다.



북스튜디오 사이다 커리큘럼

활동구분	회차	날짜	내용	강사
공개특강		8/16	지역출판 – 지금 여기에 진짜 문학가 있다	황동년 편집장 전라도닷컴
강의	1회차	개강일 8/22	출판프로세스 베이직: 기획에서 인쇄까지	홍영완 대표 월북출판사
특강	2회차	8/25	수원학과 지역콘텐츠의 개발	한동민 박사 수원학성박물관
강의	3회차	8/29	출판기획[1] 출판 아이디어 창출: 출판트렌드 파악, 출판 동향과 전망, 출판 분야별 출판기획 방법	김경도 원장 한국전자출판교육원
강의	4회차	9/1	출판기획[2] 출판 목표 시장 분석: 출판시장 조사, 독자욕구 파악, 목표시장 설정, 멀티유즈 계획 수립	
강의	5회차	9/5	출판기획[3] 출판 콘셉트 설정: 독자 분석, 장르 특성 도출, 핵심 콘셉트 확정, 출판편집기획서 작성	
강의	6회차	9/8	출판기획[4] 출판 프레젠테이션: 출판물 구성요소 결정, 편집 배열표 작성, 출판편집일정표 작성	
강의	7회차	9/19	골목잡지 사이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콘텐츠 기획과 취재 그리고 구술채록 중심으로	최서영 편집장 골목잡지 사이다
강의	8회차	9/22	전자출판: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진) 기획과 편집	김경도 원장 한국전자출판교육원
강의	9회차	9/26	사이다식의 글쓰기 방법 및 주제 선정	은정아 작가 EBS지식채널
교육	10회차	9/29	원고 작성[1]: 글쓰기 구성방식 및 구현 방법	
체험실습	11회차	10/6	인터뷰의 실제: 취재 현장 실습 및 인터뷰 체험	개별진행
교육	12회차	10/10	원고 작성[2]: 초고 작성	은정아 작가 EBS지식채널
특강	13회차	10/13	이덕규 시인 특강	이덕규 시인
강의	14회차	10/17	교정교열의 가치와 중요성, 유용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박익순 소장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강의	15회차	10/20	저작권과 출판권의 이해	
강의	16회차	10/24	인디자인 베이직 – 유용한 기본 툴과 팁	강희 기자 경인일보 편집부장
교육	17회차	10/27	디자인 실습[1]: 인디자인 체험판 설치 및 디자인 툴 실습	더페이퍼 디자인팀
교육	18회차	10/31	디자인 실습[2]: 명함 만들기 실습	
교육	19회차	11/3	디자인 실습[3]: 사이다 내지 편집 작업 실습	
교육	20회차	11/7	출판편집과 인쇄 제작 실무	최서영 대표 더페이퍼
강의	21회차	11/10	출판 유통과 마케팅의 실제: 출판유통 과정과 홍보마케팅의 전략 & 효과	최성구 (사)유통진흥원
교육	22회차	11/14	작업물 완료 및 검토, 출판기념회 기획	더페이퍼 기획팀
교육	23회차	11/17	제작물 인쇄 출력 및 품평회	
종강	24회차	12/15	출판학교 졸업식 및 출판기념회	





공개특강 – 황풍년 편집장



특강 – 이덕규 시인



강의 – 최서영 편집장

외부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인문360'과 경인일보, 수원e-뉴스 등의 온라인 지면을 비롯해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네트워크를 통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여러 지역에 SNS를 통해 널리 홍보하였고, 오프라인으로 더페이퍼 사옥과 선경도서관, 인근 학교에 포스터와 전단을, 출판학교 온라인 계정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ookstudiosaida/>를 통해 총 19회 이상의 업로드를 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전시

운영 단체 소개

골목잡지 더페이퍼 (대표 최서영)

수원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2012년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를 창간한 발행인. 지역의 숨어있는 이야기 발굴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현재까지 총 13권의 잡지를 발간했다. 역사와 문화, 환경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체 정보

<http://facebook.com/bookstudiosaida/>
문의 031-225-8199
thesaida@hanmail.net

1-2

추진 과정

창생공간 자문회의 1차

일시: 2016년 3월 30일 목요일 14:00
장소: 경기문화재단 1층 아트플랫폼

참석자: 문화재생팀, 생활문화팀 등
발표: 조주연 (죽티팟 대표)

주제: '문화로 지역재생'을 위한 지식 공유

연구, 기획, 실천의 숙고 과정 필요

지역을 재생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 쪽은 특히나 더 여러 예술적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로 연구, 기획, 실천하는 이런 과정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 말이 좋아서 시범사업, 또는 시범정책,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부처에서도 대부분 잘 모르니까 (사실 물어보면 되는데도) 결정 권한이 있으니깐 “야 한번 해봐” 그리고 나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일정과 예산을 딱 짜서 사업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풀어서 하든 아니면 무식하게 기획하고 실천을 하든 기획을 정말 빠르게 예산 결정하는 순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굴려보게 됩니다. 폐 산업시설, 작은 미술관 등이 많지만 그해에는 시작해 놓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막 던져서 그냥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여러 정책들이 오랫동안 거쳐서 정책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서 한 10년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2-30년 동안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

우리는 빨리 기획하고 실천만 했다가 계속 이게 아닌가보다 하는 식의 반복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면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달성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내는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에 맞는 연구와 기획과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실천적인 연구, 실천적인 플래닝, 또는 실천적인 실행 등을 통합해서 질문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영역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실천도하면서 과정까지도 함께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게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의도나 모든 것들은 좋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책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있어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액션리서치, 액션플래닝 단계에서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쓸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읽는가를 리서치

청년들이 서울시의 유휴공간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업들을 좀 해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서울시에 물어보면 되잖아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각 실국에, 과에 그리고 공원은 공원과에 있을 테고 도시개발과 재생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갖고 있어도 서로 다른 부서에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부서들이 통합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그 공간들에 대한 정보 자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유휴공간들을 빨리 리서치하고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를 빨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을 리서치하고 플래닝 하는 것들을 청년들이 찾아 나가는 실행 프로젝트처럼 하자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청년 허브에는 여러 청년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깐 그 팀들이 팀 결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트려서 내려오잖아요. 쓸 사람들이 직접 그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니깐 아래로부터의 기획을 해보자 한 것이 시민하고 청년 키워드인 것이죠. 청년의 필요를 제대로 알고 공간에 쓰임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찾아냈으면 이제는 압력을 가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 행정적으로 풀어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프로세스까지 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도시 공간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했죠. 어떤 사업이든 다 앞에 시민 자만 붙으면 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시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어떤 공간에서 공공적이고 어쨌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시장을 열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든가 인증을 해주든가 허가를 해주든가 하는 방식으로 거리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하고 싶은 건가 물어봤어요. 시민시장은

누가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건가요? 박 시장이 하고 싶은 건가요? 누가하고 싶은 건지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거 맞지만 민간의 자발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금을 계속 투여하면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사업들은 저런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하다가 끊으면서부터 어떤 계획이었는가 하는 상태가 노출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패를 놔두는 거죠. 저런 실패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쓰임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공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공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쓸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공간의 쓰임을 다시 계획하는 어떤 기획. 쓸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읽는가를 리서치인 거고 그런 쓰임에 다시 어떻게 기능을 부여하는 계획을 세울까 하는 것이 플래닝인건데 그런 경험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성공적인 어떤 디자인 계획을 세워보는데 이제 액티비티에 결합을 시켜보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간에 질문을 하고 필요를 리서치하고 기능을 플래닝하고 그것을 어떤 행정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되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정이 마스터플랜을 짜게 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 할 수 있게 합니다.

청년일자리 허브 / 서울시 공간리서치 사례

예술가, 건축가, 도시연구, 순수문학 분야별로 색깔이 다른 청년 4팀을 구성하여 3개월 동안 공간리서치를 했어요. 갈등, 쓰임, 공유혁신, 편협한 차이 4가지 키워드로 서울 권역을 4지역을 나눠서 리서치한 사례입니다.

서울 테두리를 리서치한 거예요.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경계지역을 리서치한 거죠. 서울과 경기도 사이도 경계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은 서울도 관심을 안 갖고 경기도도 관심을 안 가져서 아주 지속적으로 소외된 곳들이 많아요. 고양에 가면 수돗물을 재생시키고 하는데도 냄새가 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항상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어요. 차라리 서울로 편입시켜라 이런 거죠. 땅은 경기도 땅이고 시설은 서울시 거예요. 시설이 서울 것이라서 서울의 수돗물을 재생시키는 거니까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있어도 피해는 서울의 시설로서 보는 거죠. 차라리 서울에 넣어주면 서울에다 민원을 넣으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플랜카드가 항상 걸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계지역의 갈등 문제와 공간을 리서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임을 키워드로 한 대상지역은 동북 지역에

치중되어 있어요. 장위동, 석관동 등 이런 지역은 뉴타운을 하려다가 안 된 곳들에 대한 쓰임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공유 혁신 모델은 서초, 강남 지역에도 폐교라든지 주차장 공유 부지라든지 강남 한복판에 여러 공유 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공유 방식으로 혁신 모델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예술가가 리서치한 팀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소를 선택을 한 거예요. 특히나 공개 공지 같은 곳에서 이런 저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공개 공지에 공간을 만드는데, 차라리 예술가들의 편협된 사고로 좀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식의 제안을 한 4가지로 만든 거예요.

동북권의 공영주차장, 동남권의 공영주차장부터 폐교된 학교시설 여러 가지 공간을 나누었고 세부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갈등 경계지역은 갈등 중심부 위주의 개발을 통해서 외곽쪽이 소외되면서 지속적인 소외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리서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둘러싸인 이해 주체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이런 곳을 공간 재생의 핵심적인 모델로 삼아볼 만한 거죠. 그래서 갈등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주변부에 있던 것은 외면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의 주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누구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꺼 아니야,라고 외면하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뉴타운 사업 경우도 중간에 시행사가 포기하면 그 돈을 쓴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했을 때 서로 남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고 난지 물 재생 센터가 고양시 현천동인데 서울 상암동이 딱 끝나면 바로 경계지인 여기에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계속 서울로 편입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나 고양시 둘 다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주민들만 빼고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포 레미콘은 풍납동에 있는 공장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해업소 이전 계획을 세워 놓고 거의 다 이전해 갔어요.

굉장히 쇠락해 있는 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찾아낸 거죠. 두 번째, 다시 쓰임을 찾으려는 공간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쓰임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이런 공영주차장을 많이 찾은 거죠. 동북권에서 이런 주차장들을 쭉 찾아놓고 이 공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 새로운 쓰임들을 기존 공간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찾아내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큰 공간을 어떻게 도대체 찾으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우기가 서울을 4개로 나눠서 각 팀들이 무식하게 찾다가, 안되겠다 싶어 정치권에 쌓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청장 공약, 구의원 공약 이런 것들이 꽤 오랫동안 쌓인 중요한 데이터가 된 거예요. 찾은 공간에 청년이

들어가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를 결합시키기 위해 이런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마스터플랜 사례

원래 경기도 신청사는 전임 도지사 부임시 36층 건물로 건축 계획되어 현재 공간 건축 설계가 70%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역재생을 혁신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죠. 신발회사 자포스가 지역에 들어가 기업이 어떻게 서로 상생하면서 재생 할 수 있을까, 했던 것과 같은.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지역에 들어가면 건물 하나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최소한으로 짓고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잖아요. 지역에서 지역의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상생하는 게 기업의 성공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민청 같은 경우 공공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주인이 되게끔 하는 방식인데 경기도청을 접근해보면 문제는 청사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집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은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꼭 저걸 먼저 하고 나중 일은 맞춰서 하면 된다 하는 식이에요.

연구, 기획, 실천을 하나의 도청 마스터플랜이라고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는 일인데 청년 허브 때처럼 액션리서치, 액션플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실천이 되게 하는 거죠. 계획을 할 때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청이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가 들어가 공공미술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실천이냐 이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이나 예술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리서치하고 기획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 자체가 실천인 거죠. 조형물이나 벽화를 만드는 실천보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청사는 저층 구조로 가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고층 구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최종 의견이 나오기까지 프로세스를 보면 리서치 워크숍, 오픈 테이블, 상상 워크숍, 창의대회로 이루어졌습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현장이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시민들은 실제 기획하고 구상하는 워크숍을 해요. 도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문제를 도출해서 만났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셜디스커션(Social Discussion)을 하고 나서 소설 픽션(Social Fiction)을 통해 30년 후 도청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쟁점을 만들고 상상력을 내보는 거예요. 20번의 오픈테이블, 소셜디스커션, 전문가 워크숍, 공무원 조사 등을 통해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요. 사람들이 미래 모습이 무엇이냐 상상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느냐 변화시켰느냐 등을 측정할 기준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얘기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창의대회를 통해 결정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조사를 정리를 합니다. 도청은 대부분 행정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해서 도민, 의회, 행정 내에 협치나 협력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되려고 하면 수직적인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 35,000평의 큰 광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창생공간 자문회의 2차

일시: 2016년 4월 7일 목요일 14:00
장소: 경기청년문화창작소 2층 참살이방

참석자: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본부장),
박찬웅(군포문화재단 본부장), 황우자(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장), 허명범(화성문화재단
홍보기획팀장), 김진희(수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김종길(문화재생팀장), 조지연(문화재생팀)

주제: 지역 운영 주체 및 운영 계획 타당성 협의

요약

대상지를 공공 공간으로 한정했을 때 [1]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2]공적 공간 활동의 제약(수익 구조 요구사항과 대치됨. 시 정책으로 변동될 수도 있음), [3]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팀의 경우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 ⇨ 민간 공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운영 주체도 민간이 수행해 낼 때 [1]팀의 부적정성(기획, 정산), [2]인큐베이팅의 필요, [3]공사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 운영 주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습장 조성 사례처럼 건축가가 일체를 다해주는 방식의 검토를 포함)

지역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자립 구조를 압박하는데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지역 내에서 문화적 소비가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자립 목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적 과정'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황우자(안산문화재단)

– 안산시 내에는 리모델링할 유휴 공간이 없고 공유지도 거의 없다. 2016년 초에 안산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청년큐브'가 한양대와 서울예대캠퍼스에 생겼다. 광덕시장 건물 2층에 20개 단체가 입주하였고, 서울예대 출신 문화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임차한 공간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은 없다.

– 지역 내 문화자원은 운영 주체의 예술가 그룹, 시민 중심 기획자 그룹, 청년 그룹 네트워크가 있지만 공유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수행할 단체는 리트머스 정도로 공간이 많지는 않다. 이와 같은 창생사업이 지역에 제안됐을

때 충족이 될지,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작은 마을 단위 자립 구조가 가능한 일인지 고민이 남는다.

손경년(부천문화재단)

- 메이크무브먼트는 정보도 빠르고 순환되기 때문에 서울숲에 몰려 있다. 공방은 최소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창생공간과 유사하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 생활문화센터와 차별성이 없을 것을 고려해 창생공간 콘셉트를 분명히 잡는 게 필요하다. 생활문화센터는 가이드라인, 연습, 만남 장소, 회의 공간, 미디어실이 있어야 동아리들이 자율적인 아이디어로 놀고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생산하는 건강한 소비 공간을 만들었을 때 진지하게 접근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을 얹지로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공공 공간의 문제는 판매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 장사를 할 수 없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로나 가능하다.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적 공간의 한계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 공공 문화재단은 그 지역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가나 외부 보조금 재원이 연동되면 세팅하고 지역 주체를 발굴한 뒤에 업무가 넘겨진다.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하는 생활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팀이 전담하여 협력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생활, 주민자치회, 시 문화예술과에 들어가서 논의해야 한다. 재단 성과가 아니더라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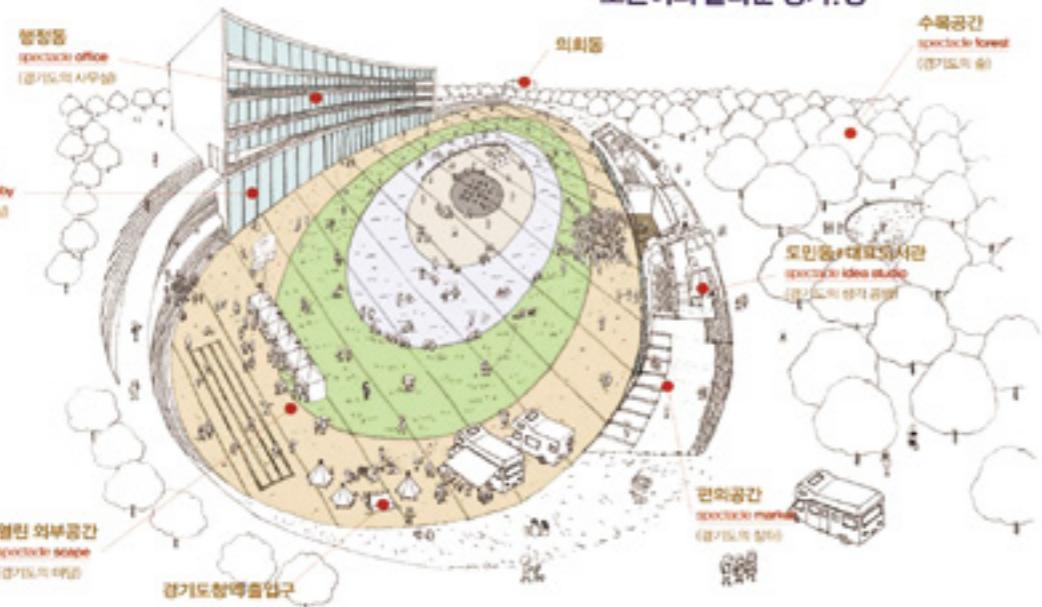
허명범(화성문화재단)

- 화성시 내에도 유휴시설이 많지 않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첫째는 화장실 변기 만드는 회사의 경우로 대표가 예술적 자질이 있어, 레지던시 참여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는 전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수익 구조가 못 되기 때문에, 창생공간과 같은 메이커스가 미술관과 코워킹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화성시에는 소마미술관이 있다. 새로운 공간 만들기가 힘들고 또한 지속성을 갖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간을 활용, 연계)

김진희(수원문화재단)

- 수원에는 공예, 아트포럼, 공방 거리도 있다. 공방 지원 형태의 사업이라면 특별히 강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존 공방에서의 소비가 많지 않아, 실제로 수원도 관광객들이

모든이의 놀라운 경기.장



보려 와야 일부 소비가 발생한다. 공간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려면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서울처럼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신도심, 광교, 영통도 현재는 문화적 소비가 없다고 보인다.

박찬웅(군포문화재단)

- 군포파출소, 지하보도에 청소년 카페, 평생학습원, 거기서 발굴된 동아리실을 자생적으로 임대해 공방을 운영할 차례이다. 당정동 공업지대를 유한킴벌리에서 5년째 내놓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당장 지역 내에 창업지원 센터와 같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 실제로 창업지원센터의 실패로 역제안을 할 수 있겠다. 5년 계획이면 투자가 되고 설비가 시작되면 건드릴 수 없게 된다. 인프라 리모델링 등 건드릴 수 있는 액수가 안 된다. 시흥ABC센터, 가스 공간 건물을 통째로 타운을 만들었다. 건물을 청년 코워킹 센터로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끊임없이 입주 작가를 지원해야 한다.
- 서울 작가, 외부 작가 등을 계속 지원하면서 생기는 악순환도 있다.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주변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 경기문화재단의 새로운 사업에는 항상 기존 단체들이 배제되는 것을 봤을 때 현장에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단체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 기존 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를 위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부천문화재단 손경년 본부장은 기존의 공간을 갖고 있는 팀들을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을 제안함)

김종길(경기문화재단)

여러분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의식이 있으므로 환류 시스템, 상상하는 메이커스, 자생성, 자립성 등과 같은 개념을 공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맥락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되면 좋겠다. 담당자가 '창생공간' 개념을 제안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후 최장기 프로젝트로 5년간 지속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대상	의견 수렴	주제	의견 수렴	반영 및 개선사항
문화기획자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을 공간을 희망함. 자립적인 운영 구조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으나, 자율적인 운영이 장기간 보장된다면 시도할 의향이 있음. 서울시의 경우 공여지 및 자투리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문화기획자 그룹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축, 위탁 운영할 계획임(세운상가, 석유비축기지).	대상지 범주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공간이 없거나 (의정부, 안산, 용인 등) 규모가 커서 적정치 않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수요를 대상에 반영해야 함.	공공 공간과 민간 공간으로 확대(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사용허가서 필요).
공무원(지자체)	민간 운영 주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관리유지비 편성 및 사후 관리 유지를 위해 기초문화재단이 전담할 것을 제안함.	사업비 분담	지자체와 사업비 공동분담은 운영 주체가 자립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침과 대치, 자율적인 운영 방향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운영 주체의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초재단의 지원은 최소화 및 자율적 운영 방침 존중.
공간운영자	'지역에서 지속적인 자립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간 대여를 하거나 문화서비스를 통해 자립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지역에 제작자(Makers)의 범위는 예술가, 공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일 것이며 1인 제조자들이 산업을 전제로 한 시제품 제작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창의적인 시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최소의 운영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투자가 있는 운영 주체가 중요함.	자립성 확보	3년간의 공간 조성비 및 운영비 지원 후 완전한 자립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지역에서 문화적 소비 외에 다른 자생성 확보 장치 필요.	지역에서 자생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시도.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반영(제작 문화를 확산하거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및 브랜드론칭 프로그램 지원).
기초문화재단	각 재단은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공동체 모임, 지역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나, 운영 주체로서 역량 면에서 편차를 보임. 일부 재단은 직접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지원금 수혜를 희망하기도 함. 또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다가 운영 주체에게 이양할 방법을 제안함. 지역별로 시가 보유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규모가 적정하지는 않아 민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줄 것을 제안함.	운영 주체, 방식	공간 조성 과정 자체를 문화적 재생 과정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합의된 결정 구조 방식으로 공간 조성, 공동 소유. 운영 주체가 지역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	공간 조성이 목적이 아닌 '사용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 자체를 통해 공동체성과 공공성 경험, 지역에 지지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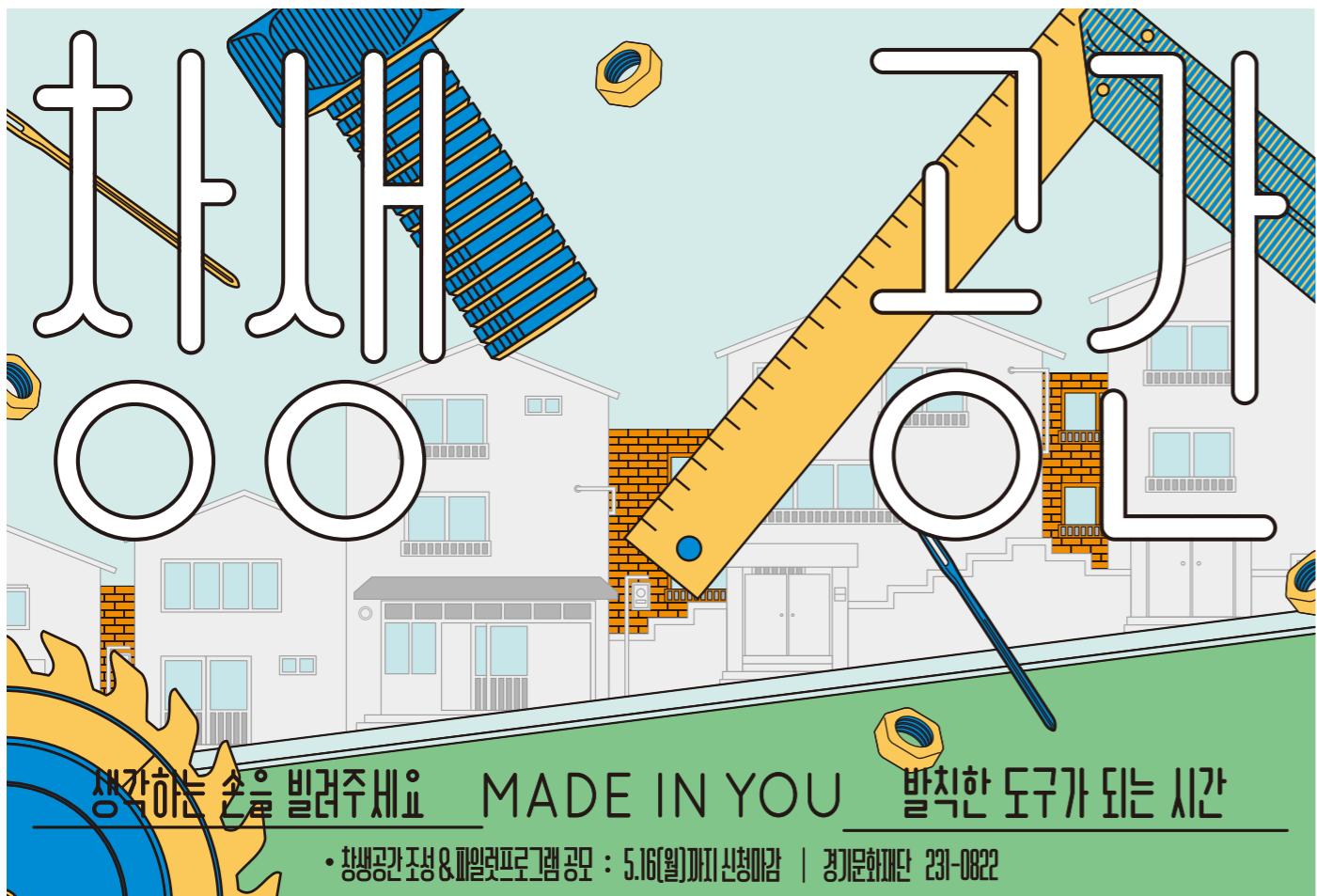
창생공간 설명회

일시: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14:00

장소: 경기문화재단 1층 아트플랫폼

참석 대상: 지역예술가, 기획자, 주민활동가 등 40여 명

주제: 창생 공모 취지 및 방향성, 의견 수렴



창생공간 선정 심의

공고 4. 15. – 5. 16.

접수 5. 2. – 5. 16.

서류 심의 5. 25.

현장 실사 5. 26. – 6. 2.

인터뷰 심의 6. 3.

심의위원: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전고필(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송수연(청개구리제작소 요원), 허길수(스튜디오 정미소 대표 건축가)

심의평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실험과 실천을 하는 단체들이 풍성해진 것은 문화다양성이나 지역 문화생태계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여기에서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창생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해 주신 단체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깊게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의 결집이라 여겨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본디 목적인 창조적이고 실천적이며, 지역 사회와 함께 수작업을 비롯한 공동 작업을 실행하는 거점을 조성한다는 모토에 충실했던 제안자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갈수록 분절화되는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창생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작업의 연장선상이거나, 지속적인 실험, 혹은 몇몇만의 독립 공간, 지속가능성의 불확실 등이 보이는 단체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작과 제작 공간'이라는 화두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동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만들기'라는 제작 행위와 그것을 확장하는 '공간'을 매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생산성을 실험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생활문화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의 미래를 찾아가는 일은 우선 스스로를 놓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를 이해하고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존에 더 천착하는 경우가 보여진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역문화의 현장이기 때문이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미래를 찾는 분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공모사업이 갖는 한계성은 그것이 다분히 공적인 일이어야 하며, 재원의 쓰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고 해도 이 또한 공익과 부합하며 상호 공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취약한 지점들이 보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이 창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끝이 아니기에 안타깝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미리 갖추고 도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깁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보완내용을 잘 참조하시어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이자 생산기지로서 창생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며,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한 단체는 또 좋은 기회를 가져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실사



창생공간 & 파일럿 착수 워크숍

일시: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14:00

장소: 경기청년문화창작소 2층 참살이방

참석자: 김종길·조지연(경기문화재단), 임재춘·한문화·
이유림·조현대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이미화·한선경(이웃상회), 이현식(그림마을),
이동희(천문공작실), 정길수·임상빈(공도창공 수동),
최서영·최주영(더페이퍼)

김종길: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 동탄 지역을 리서치해보니까 DIY를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지역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진다던가 하는 문화기획적인 측면에는 폐쇄적인 점이 있어요. ‘창생공간’ 사업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테크니컬한 지점을 지역과 어떻게 결합하면서 문화적으로 지역과 만나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작 공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작 공간들이 지역 현장에 흡수될 수 있다면 최소한 지역 재생의 작은 사례들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입장에서도 ‘창생공간’ 사업을 운영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각각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을 지역현장에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주체: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사업명: 비커밍 브리꼴뤼(Becoming Bricoleur)

제작 분야: 발효

지역: 수원시 서둔동

‘비커밍 브리꼴뤼’은 레비스트로스가 고안한 개념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삶, 관계, 지속, 덜 소비하는, 인간성 회복’ 등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완전한 브리꼴뤼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이다.

수원의 서쪽에 위치한 ‘서둔동’은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상권도 활력을 잃고 비행기 소음으로 시끄러운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는 근대적인 감수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기본적으로 텃밭을 돌보거나 물건을 수리하는 문화들이 동네에 남아 있다.

이 공간 외에도 일대에 농업·축산업·임업 기반시설들이 많았던 동네이니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작년 서수원 문화자원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한 ‘상탑로 104’에 위치한 공간으로,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도로명 주소에서 따왔다. 상업적으로 쇠락했지만 동네 교차로에 해당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못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후미진 공간에 사는 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서둔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심심한 손, 잉여의 재료, 왕년의 기술자’, 과거에는 기술 하나면 먹고 살 수 있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어 손이 빈 기술자들이 존재한다.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바로 앞 과일가게에서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과일을 다 버린다. 그리하여 104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샘을 만들어봤다. 그런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4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공간. 이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동네가 너무 후지다”, “놀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104는 “나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재료로 같이 놀지 않을래?” 같은 제안을 하는 공간이다.

‘상탑로에 없는 것’을 고민한다. 기존 상권과 충돌을 피하면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서둔동은 굉장히 많은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인데, 필요한 게 많지만 살 게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과’처럼 기존에 있지만 연결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 ‘직접 만드는 ○○’으로 빵, 술,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샌드위치, 효소 등 ‘적정기술 제조 도구와 시설’을 모아, 내 삶의 문제의식, 살림에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 ‘발효 키친’이라는 콘셉트를 도출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적정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리서치를 중요한 틀로 생각한다. 만남-관계의 미디어로서의 리서치를 통해 서로 관심 있는 것들을 배우고 순환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공간을 열었으니 오시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당신 생각은 어떤지 묻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만나는 방식은 사회과학에서 진행하는 인터뷰가

기본이 된다. 리서처들이 문화 예술적으로 캐주얼한 매개를 시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 예를 들면 네일아트를 통해 비용을 받는 대신 이야기를 수집한다.

개인 작업자들과 더불어 훈련된 주민 작업자들이 드나드는 동네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제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곳으로서의 ‘발효 키친’을 지향한다.

운영 주체: 이웃상회

사업명: 이웃상회 in ○○, 프로젝트 그룹 ‘이웃상회’

제작 분야: 커뮤니케이션 핸드메이드 & 디자인

지역: 미정(당초 신흥동으로 신청, 장소 변경

조건부 지원)

프로젝트 그룹 ‘이웃상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은 전형적인 구도심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그 안에 지역주민들의 방공호가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해 사용 위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생공간에 지원한 계기는 2009년부터 재래시장에 3년 정도 입주해 개인 작업도 하면서 디자인, 공예 작가들과 작업했던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하기 전에 개념적인 현대미술을 했었는데, 난해한 현대미술보다 잘 만들어진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품의 아트 에디션이 과잉의 설치미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준비하던 차에 디자인·공예에 포커싱된 유휴공간 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입주하여,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재래시장 안에서의 작은 소품들이 채워진 카탈로그도 제작하였다.

이후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 마을에서 70세 이상 장인을 발굴해서 지역 미군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마을 예술 프로젝트를 런칭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니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터부시되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84세 할머니가 자신의 수의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옷일 수 있을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결과는 영상과 책자로 제작하여 지역에서 대상자들에게 확대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어디에 터를 잡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니어 문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그룹 ‘이웃상회’ 운영 주체에는 이웃상회(기획 및

디자인), 한선경(그래픽디자인·아트 에디션 기획), CPE(아트 에디션)(공간 디자인·리사이클 제품 기획·아트 에디션 제작), 이주영(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참여한다.

한선경 작가는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일상에서 쓰는 작업들로 <삼겹살 그릴> 프로젝트 진행하여 삼겹살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돌판이 싱계석의 모습과 닮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돌판에 자기계발 문구를 새겨 넣었다.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오브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웃상회’는 성남 신흥동을 중심으로 공간을 준비하다가 다른 지역을 모색 중이다. 성남 신흥동에서 부업을 하는 다양한 여성인력을 모아서 예술로 재편시키고, 제작품을 아트 에디션으로 만들려고 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잠재적인 기술을 이끌어내서 아트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손뜨개, 재봉, 각종 부업 기술 활용, 염색, 금속공예 등 이러한 기술자들의 ‘금손’ 발굴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 주체: 그림마을

사업명: 창의공작소에서 재미를 찾다

제작 분야: 목공, 도예, 금속조형

지역: 성남시 신흥동

그림마을은 1990년 그룹을 결성하였는데, 경원대 회화과 출신이 모여서 그룹전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벽화, 마을 공간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부터 마을 공간 조성 사업, 해맞이 행사, 지역공동체 전문 인력 파견, 벽화 제작, 목공교실, 책 테마파크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장소는 신흥3동 주민센터 옆 방치되어 있는 가옥(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14-1)으로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다. 총 면적은 90평으로 단독주택과 창고가 붙어 있는 구조이다. 벽화활동을 하다가 발견한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찾던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신흥3동은 성남의 구시가지로 낙후되었고, 노인층이 많고 외국인도 많다. 할렘가와 비슷하게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 요건은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건너편에는 고급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층 비교된다. 반대쪽에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레지던시 공간이 있어서 연관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목공, 도예, 금속 등 세 가지를 조합해서 리서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기본 계획안을 만들고, 그림을 병행해서 색다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회화, 목공, 도예, 금속조형을 통한 창의적 생산으로 각자 운영하고 있는 소품,

공예 공방들과 연계 방안 모색 중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민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교육 콘셉트로 접근하여 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목공, 도예, 미술, 금속을 결합한 교육과 제작을 같이 해가면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주제: 천문공작실

사업명: 망원경 제작 체험, 천문 관측

제작 분야: 천체망원경

지역: 남양주 삼봉리

천체망원경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 2006년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는데 망원경을 구입해야 할 때 천체망원경이 너무 비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어서 수공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돋보기는 망원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다가 해외 사이트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제작하게 되었다.

2012년도에 부천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 가공을 섭렵하여 남양주에 천문카페를 열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2년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공간에 와서 별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지만, 천문대는 비용을 지불하고 잠깐 보고 가야 하는 구조여서, 내가 직접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사람들, 학생들, 가족들, 아이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창생공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마을에서 50평 규모의 장소를 공동 임대해준 이유가 크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유롭게 와서 별을 관측하고 촬영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체망원경은 기성품과는 다른 개념의 망원경을 15개 정도 제작했고 특히 출원을 준비 중이다. 천체망원경 제작 카페 천문공작실의 주요 활동은 천체망원경 제작 보급, 과학교재 DIY 키트 제작, 천문관측 프로그램 운영, 체험 학습지원, 생활목공 체험 및 목공천체망원경 제작, 천문캠핑 지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교재 DIY 키트는 학생들을 위해 보급하는 키트로 5가지 정도의 종류가 구비되어 있다. 목공 공방과 함께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상업적 제품은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가격이 3~4배

비싸다. 교육의 일반적 보편화 차원에서 열린 체험 공간을 지향하며 찾아와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안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싶다. 천체망원경의 제작은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즐겁고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캠핑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외부적 기회로 받아들여 여가 시간, 여유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천체공작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교육적인 의미에서 태양계의 행성 중에 목성, 토성 등을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직접 보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천체망원경 제작은 설계-재료 선정-부품 가공-조립-테스트-분해-후가공-조립-테스트-제품 과정을 거친다.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기술적인 공유를 해주고 계신다. 천체망원경을 활용해서 쌍안경을 만들고 새나 부엉이 등을 촬영하며,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촬영도 가능하다. 조립제작프로그램, 관측체험프로그램, 생활목공 제작프로그램, Farm770 농촌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른 지역 10군데 정도와 연계해 진행하고자 하며, 망원경 재료를 많이 모아두고 있다. 협력프로그램으로 별자리 강연, 광학이론 및 제작 강연, 촬영 강연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의 활동 계획: 이 공간은 이미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천문시스템 마무리 및 제작 관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정리하였다.

조지연: 남양주 삼봉리는 노년층 200~300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예술인들이 꽤 거주하는 마을이다. 남양주 실학박물관과도 10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실학과 별자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지역 예술가 중에 이장님의 공방을 크게 운영하시는 바닐하우스에서 조합원들이 목공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자재가 잘 구비되어 있다. 고구마를 수확해서 요리할 수 있는 고구마 농장 카페 등 지역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잘 활용된다면 방문자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주제: 공도창공 수동

사업명: 화기애애 불로장생

제작 분야: 로켓 스토브(적정기술)

지역: 남양주 수동

남양주 수동은 천문공작실이 있는 남양주 삼봉리에서도 한 시간 반은 더 들어가야 있다.

'화기애애 불로장생'은 3명이 운영 중이다. 원래는 현대미술을 전공한 뒤 2001년도에 수동면에 있는 깊은 산속에 외딴집을 짓고 살고 있다. 현대미술에 대한 회의가 들던 중,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적정기술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과 예술에 대한 고민. 아방가르드와 제도미술이 중산층을 기반으로 두고 발전된 게 아닌가 회의가 들었다. 그런 사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연스레 예술을 삶과 현실에 의지하고 결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산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양주 수동은 기온이 강원도 철원과 비슷해서 한겨울 난방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적정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실험해왔고 보급하려는 노력 중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왜 가난한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는 떠나버리는지..... 벽화마을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혜택인지, 시혜성 복지, 나눠주기식 복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겨울만 되면 연탄을 나눠주고 김장해주는 일이 반복되는데,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대상자들에게는 세부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이 지역만 해도 연탄을 나눠주는 자선단체가 3개이고, 각 단체에서 150~200장씩 연탄을 나눠주는데, 사실상 이들 집은 8평 가옥에 오래된 아궁이라서 연탄을 때면 가스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분들은 연탄을 받아서 다시 되팔기도 한다.

새로운 마을 만들기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 생활기술을 보급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거버넌스형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시 조약이 바뀌면서 서울시 내에서 고체연료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로켓 스토브의 주요한 연료는 나무, 즉 고체연료이다. 여전히 나무나 연탄을 때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고체연료를 제약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어떤 연료를 쓰는지에 따라 계층이 갈린다. 거대 기업이 하는 석유산업만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생겼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시적인 이벤트에서는 허용해준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 기술 보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에서 확대하고 싶은 것이다.

로켓 스토브는 적정기술 중 하나로 난로, 화덕, 구들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별별예술 프로젝트로 '에너지 자급자족 공생도구키트'의 프로토타입 가상 배치도를

제작해보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구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는 '불'로장생은 각종 스토브 제작 워크숍, 성미산학교와 송파마을예술창작소 학생과의 협업으로 '적정기술 연구 모임 – 로켓마스터 제작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로켓스토브 구들방 워크숍'을 도봉마을예술창작소 '창고'에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형 공간은 주로 임대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동이 가능하다.

운영 주제: 더페이퍼

사업명: 북스튜디오 사이다

제작 분야: 출판제작

지역: 수원시 행궁동

'골목잡지 사이다' 출판

'더페이퍼'는 출판과 편집디자인, 출판기획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골목잡지 사이다'라는 지역 잡지를 만들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는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내고 있는 잡지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생활사 기록이 중심인 무료잡지이며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역 예술가, 역사학자, 일반시민들 50여 명이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동네엔 골목이 있었다. 우리 동네뿐 아니라 모든 동네엔 골목이 있었다. 그 길에는 동네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 옛날 골목길이 그립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볼 수 없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의 이야기이자,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소소하게 골목,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골목잡지'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하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는 2012년에 창간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수원에 작은 동네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고 택시아저씨도 모르는 동네가 남수동이다.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담는 잡지 발행을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사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이에 대한 것' 이 지역에 터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잊혔지만 숨어 있는 이야기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

동네의 상례, 장례 의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장례식장이 대체해버렸다. 돈, 자본을 쫓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다.

지역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콘텐츠를
잡아서 만드는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문화생산자=문화소비자 (+즐거운 소통) 실제로
만나서 즐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연을 하거나 향유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는 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있다. '지역출판의
활성화'.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어야 이 일이
지속된다. 어떻게 무료잡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창생공간의 경우 제작 기반 확산이 재단의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장이 형성되고 유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지역출판계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 파일럿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북스튜디오
사이다'이다. 출판학교인데,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출판학교. 여기를 졸업하면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기를 목표로
한다. 실험이 잘 된다면 출판계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연결되면 사이다가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책들과 지역책들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



창생공간 & 파일럿 공유 워크숍

일시: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11:00

장소: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참석자: 김종길·조지연(경기문화재단),

임재준·한문화·이유림·조현대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이미화·이주영·

한선경(이웃상회), 이현식·김진숙·라광보·

전혜주·이병철·이현주(그림마을),

이동희(천문공작실),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최서영·최주영(더페이퍼)

주제: 진행 과정, 활동 사항 공유

천문공작실

9월 2일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망원경 8개 설치 예정이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1,000평 정도 되는 평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오픈장터, 마을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아트장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제작체험 행사는 8월 초부터 진행했고, 교육을 의뢰하는 학생들을 위해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작 체험부터 관측,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체험까지 진행하여 천체망원경의 역사, 변천사,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자료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망원경 원리의 이해하고 만들어볼 수 있는 제작 학습 과정용 키트를 샘플로 30개 정도 만들어두었다. 마을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 근방 공공단체(실학박물관, 유기농 테마파크 등)와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오픈식 때 남양주 교육청과 학교 사람들을 초청할 예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소정의 공간 사용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이장님의 직접 간여하게 되면 마을에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다.

공도창공 수동

'공도창공'은 '공생도구창작공간'의 줄임말로, 지역의 적정기술,

특히 로켓 스토브와 관련한 기술을 마을에 보급하고자 시작하였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활동기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웹 카페를 개설하였다. 공간 운영으로 지원했다가 파일럿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8월에 아동 대상 '새집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수동은 전부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이지만, 최근 개발 열풍이 불어서 환경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새집 만들기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골안 공동체가 제안을 해주셔서 다행히 8월에 진행된 '로켓 스토브 제작' 워크숍에 20명 정도의 회원이 먼저 참여했고, 그 외에도 마을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 욕구가 있었다.

수동은 1년에 겨울이 6개월이라고 할 만큼 추워서 지역주민들이 난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수동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보일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0월 중에 로켓 스토브 워크숍을 다시 하기로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공도창공 수동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일회성으로 진행된 워크숍이긴 했지만 마을 주민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더페이퍼

현재까지 13호의 골목잡지 사이다를 발간하면서, 지역 이야기를 담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 22일 출판학교 '북스튜디오 사이다'를 개강하였다. 지역 아카이브 서점("곧바로 책, 방")을 운영 중이다. 지역 출판사들에서 다양한 책들을 받았고 제주, 담양 등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도 모았다.

8월 16일 수원시 선경도서관에서 '지역출판, 지금 여기에 진짜 문화가 있다'를 주제로 월간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의 공개강좌를 진행하였다.

8월 22일 출판학교 개강. 월북출판사 대표로 출판계 현업에 종사하면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인 흥영완 교수님을 통해 출판에 대한, 책 한 권이 독자의 손으로 가기까지 출판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8월 25일 2강.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콘텐츠'를 주제로 수원화성박물관의 한동민 관장님의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지역 안에 있는 이야기를 출판과 연결해서 글쓰기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셨다.

8월 29일 3강. '출판기획'에 대한 강의를 동북대 출판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전자출판교육원 원장으로 계신 김경도 교수님의 진행으로, 출판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짚어볼 수 있었다. 출판에 대한 책을 교재로 나눠주셔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출판에 대한 과정을 워밍업으로 진행한 상황이고, 커뮤니케이션 실습도 같이 진행하면서 출판기획 첫 강좌를 마칠 수 있었다.

출판 기획과 글쓰기, 디자인 실습, 교정교열 실습,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전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출판사들의 책을 받아서 지역 아카이브 서점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림마을

8월에 창생공간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600명 정도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참여했고, 나이대로는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붕을 걷어내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 컨설팅을 받아서 지붕을 들어내서 옥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2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1층 뒷공간은 공방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공간을 조성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며, 지붕 철거 공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제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의 공간이 좁고 부적합하지만, 서수원의 문화적 의미와 결핍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접하게 됐고, 지역 현장에서 문화적 생태계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간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창생공간 사업 취지에 맞는 방향을 현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7, 8월 동안 가졌다.

서둔동은 과거에 땅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커뮤니티스튜디오104는 그러한 건축적 특징이 남아 있는 몇몇 건물 중 하나이다. 큰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서둔동의 근대적 경험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농업 기반 상권이 발달했을 때 큰 공간을 쪼개서 세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형적으로 작은 공간만 남게 된 것이었다.

리서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조문화와 관련된 기술, '발효키친'이라는 콘셉트를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천착한

문제들을 기획으로 풀어내고 싶었지만 이 문제를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살림이나 먹는 문제가 이 공간을 매개로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를 비춰볼 수 있는 기호로 '발효'로 보고 있다. 먹고 나누는 것이 활동의 중요한 방향이다. 올해는 사람들을 만나서 워크숍도 해보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월부터 개인의 자작물을 가져와서 파는 '어느 날 가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둔동에 자작물에 관심이 있고, 개인의 관심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가게'는 이 공간의 쓰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간의 한계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점이 이 공간의 장점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어느 날 가게'는 매달 진행하고, 9월에는 24일에 진행되는데, 이 행사는 이른바 동네에 추파를 던지는 과정으로 아직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반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연결시켜보다가 '발효'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었다. 이 주변에 아직도 많은 텃밭이 있다. 관계를 트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매개로 '발효'를 설정하였다. 밭에서 나는 작물들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둔동이 농업 기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령인구가 많다. 발효의 대표적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의식들이 가설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관심을 가지고 올까,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기보다는, 좀 더 자기 욕구, 자발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를 바랐다.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리서치를 했다.

젊은 작업자들이 경로당 노인들과 팔찌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팔찌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할머니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공간을 매개로 할머니들에게 장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들, 왜장을 만드는지, 만들지 않는다면 왜 만들지 않는지 등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색이나 자기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공간의 또 다른 젊은 작업자들이 네일아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할머니들에게 손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발효'에는 발효의 노동이 있다. 노동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손에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할머니들의 지혜를 어떻게 아카이빙 할지가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다.

팔찌 워크숍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단상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엽서를 제작해서 ‘어느 날 가게’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만남을 더해가면서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천기술에 대한 리서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최근의 젊은 사람들이 피클이나
장아찌를 많이 만드는데, 장을 만드는 것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본래 발효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지
않을지 컨설팅을 받았다.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향후에도
중요하게 논의하면서, 단순히 생활문화 차원이라기보다 지식의
생산과 공유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웃상회

성남에 공간 조성을 계획했으나, 최근에 안양8동으로 공간을
물색 중에 있다.

조지연: 향후 공통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공사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공간으로 구성할지를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워크숍, 공간을 사용할 작업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밀도 높게 갖길 바란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 모임, 포럼이나 간담회를
개별적으로 갖길 바란다. 아울러 제작·제조분야 관련 워크숍
프로그래밍이나 판매 가능한 키트·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고민을 더해 내년 1월 즈음에 아카이브전시를 겸한 메이커들의
제작 워크숍을 검토 중이다. 참여 의사나 여력이 될지 추후 진행
경과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및 작업
과정시 ‘안전’이 중요하므로 구조 안전진단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란다.



만찬제공 by 커뮤니티스튜디오104



'아카이브전시' 준비 워크숍

일시: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15:00

장소: 경기청년문화창작소 2층 참살이방

참석자: 김종길, 조지연(경기문화재단),
임재준(커뮤니티스튜디오104), 이미화·
한선경(이웃상회), 이현식(그림마을),
이동희(천문공작실),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최서영·최주영(더페이퍼),
김월식(다사리문화기획학교 교장),
신성은(다사리문화기획학교 2기)

공간별 진행 과정, 활동사항 공유

추진 경과 및 오프닝 행사(안) 계획 공유
관련 분야, 지역 멤버십 등 네트워크 확보: 간담회, 포럼 등
창생공간 운영 원칙 점검: 개방적인 공간 운영, 멤버십 확보,
작품 시제품 개발 등

공간 명	오프닝
공도창공 수동	12. 10.(토)
곧바로 책, 방	12. 15.(목)
커뮤니티스튜디오104	12. 16.(금)
재미(在美)	12. 17.(토)
이모저모 도모소	12. 2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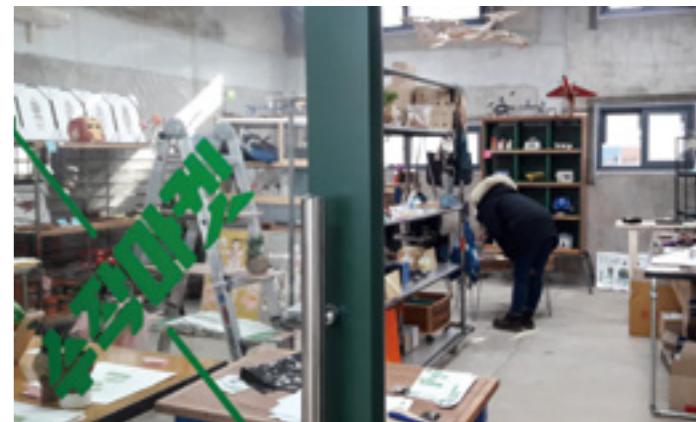
* 천문공작실은 9. 2.(금) 기오픈하여 운영함



상상공작실 공사



공간답사



수작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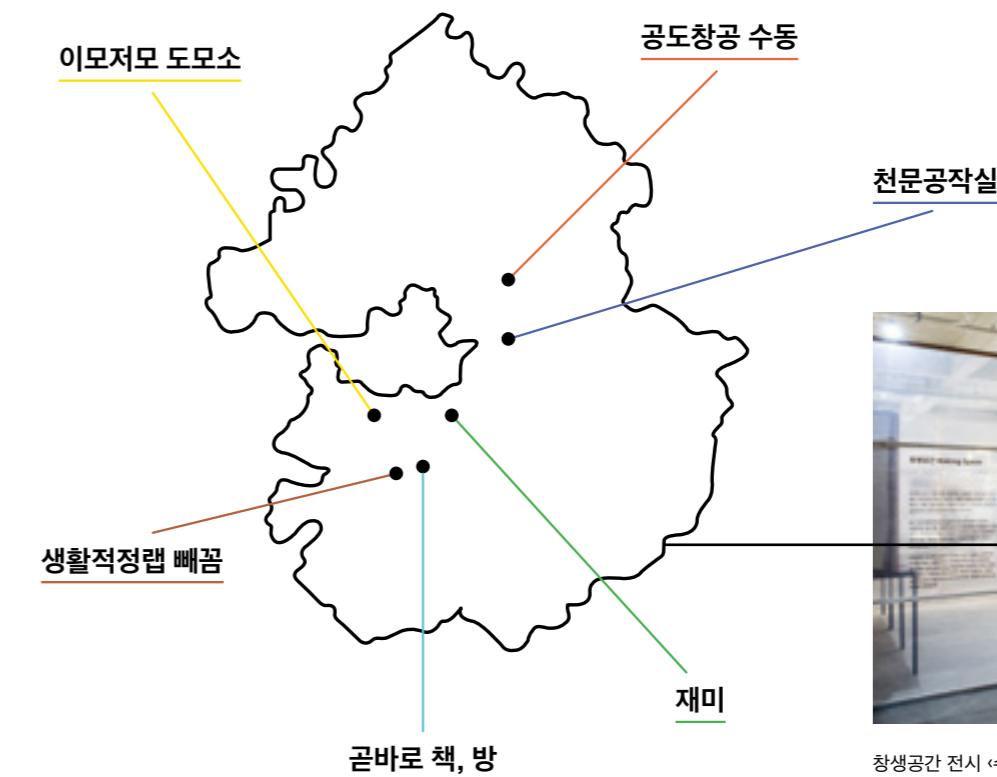
공통 과제 방향 논의

행정사항: 정산기한, 자산구입물품 관리, 운영 원칙 준수

통합홍보: 오프닝 영상 촬영, 홍보자료 작성 안내 및 브로셔 제작

창생 아카이브전시 & 메이커 전시(2017. 1.) 관련 협의

- 목적: '제작 문화'에 기반 한 문화재생 활동 결과 및 방향성 제시, 메이커 & 예술가 & 기획자 & 시민들 간의 활동 공유, 교류 촉진 활동
- 행사명: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 내용: 제작 워크숍, 아카이브 전시, 포럼, 쇼케이스, 마켓 등
- 일정 및 장소: 2017. 1. 14.(토) 예정(10일), 상상공작실(공방, 랩)
- 참여팀: 창생공간 + 메이킹 활동그룹 + @ * 제작/제조 분야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시제품 및 제작키트 상품 등



창생공간 전시 <수작, 먹고 사는 기예술>

컨설팅

선정된 운영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자문 성격보다는 각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창생공간 제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우선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창생공간 조성사업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판단이 필요로 했고 공적 운영 원칙을 통해 공간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기획·운영 전문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마련하였다. 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운영자를 위해 건축, 공사시공 전문가가 컨설팅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자문 위원

분야	성명	소속
공간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건축, 디자인	조재원	스튜디오01 대표, 건축가
공사	박현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공사PM
제작기술	송수연	Unmake Lab 연구원
문화기획	윤현옥	비빔텃 대표
정책, 생활문화	안태호	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출판, 미술비평	이정화	독립출판 에디터

공간명	성명	일정	대상	내용
천문공작실	안태호	7. 13, 7. 25	이동희, 이장	현장수업 참관, 향후 계획 논의 예산 조정 및 사업 방향 조정
공도창공 수동	안태호	8. 23, 10. 15, 12. 11	정길수, 수동팀	자립 방향, 인터뷰, 오프닝 참관
곧바로 책, 방	이정화	9. 19, 11. 10, 12. 15	기획자, 참가자	수업 참관, 인터뷰, 출간기념회 참관
생활적정랩 빼꼼	송수연	8. 24, 12. 16	임재춘, 청년팀	방향 논의, 오프닝 참관
창의공작소 재미	이선철, 조재원	8. 22, 12. 27	이현식, 재미팀	공간 조성 방향 및 컨텐츠 구성
이모저모 도모소	윤현옥, 조재원	10. 26, 12. 23	이미화, 한선경	공간 조성 방향 및 컨텐츠 구성

박현 감독: 빼꼼, 재미, 이모저모 도모소의 공사 계획과 공사비 검토



빼꼼

천문공작실

이모저모 도모소

재미

공간 오픈 행사

신규 공간과 파일럿 프로그램 등 6개의 공간은 적정기술(난로), 지역아카이브(책방), 발효, 리사이클링, 재봉, 천체관측 등 제작 도구를 갖추고 작업장과 쇼룸, 카페, 갤러리 등 지역 여건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였다.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리서치, 리모델링, 파일럿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공간 오픈행사를 갖았다.

공도창공 수동 12. 10.

곧바로 책, 방 12. 15.

생활적정랩 빼꼼 12. 16.

재미 12. 17.

이모저모 도모소 12. 23.

천문공작실 9. 2.



리뷰 & 제안

1-3

제작 공간의 메커니즘

송수연(언메이크랩)

모니터링을 통해 지켜본 ‘생활적정랩 빼꼼(Be:come)’의 경우는 초기에 제작 공간 모티프로 ‘음식’과 ‘요리’ 설정했다. 알다시피 음식은 감각적이고 일시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이다. 그리고 일상의 문화를 이룬다. 이런 주제를 제작 공간의 이슈로 재발견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쉬운 것과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수반한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조합의 요소를 찾아내야 흥미로운 것이 된다. 그런데 새로운 조합의 요소를 더 찾아내지 못하고 공간의 성격을 일반화 또는 보편화시킨 것이 매우 아쉬운 점기도 했다. 물론 이제는 공간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었고 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지금의 생각을 뱉어내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1. 메커니즘과 변수¹

작동하는 메커니즘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아날로그의 세계—제어할 수 없는 자연과 사물들,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들—에는 예측하지 못할 변수들이 많은 반면 디지털 세계에서의 변수는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하다. 변수를 예측하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인간의 실험과 시도는 계속 진화와 진보를 만들어왔다. 정보와 기술의 메커니즘 연구는 예측 불가능했던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기계어인 컴퓨터 언어에서 변수 지정은 오차 없는 작동을 만들어낸다.

또한, 변수는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주는 요소인데 프로그램 실행 도중 변경이 가능하다. 디지털 세계는 코드를 잘 짜면 오차 없는 작동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아날로그 세계에서 스스로 선언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은 빈약하다. 외부 변수들도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오작동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자신이 하는 노동, 작업, 활동에 대한 작동과 수행의 메커니즘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다.

2. 창생공간의 변수들

난데없는 변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창생공간 조성에서 일어났던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고자 함이다. 공간마다 그리고 공간을 기획한 운영자 개인들이 경험한 변수의 사례는 매우 다를 것이다. 기획서의 의도나 의미와 다르게 실전에 들어가면 공간을 함께 만드는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참여 동기와 욕망, 관심사, 지원 사업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 지원금의 규모, 운영 원칙들은 다양한 변수로 펼쳐지며 의도와 무관하게 오작동을 만들어낸다. 공간 구성의 요소에서 변수를 살펴보면 더 많은 세부 변수가 펼쳐진다. 지리적 조건, 주변의 환경과 이용자 특성, 공간의 크기, 공사비 등의 문제는 미래 지향적 이상과는 다르게 제어하기 어려운 오작동의 변수들이 생성된다. 창생공간에 참여한 팀들은 변수를 어떻게 설정했고 처리하며 공간의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었는지 들여다보는 일은 기금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평가의 지표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특히 예술과 창작활동에서 잘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예술의 특성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술적 방법으로 구조와 원리를 만든다는 것—오류가 적은 메커니즘을 설계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학적 접근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구조를 만드는 생각과 접근 방법에는 장점과 함께 한계와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만들기, 조합과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화의 과정

음식 요리를 위한 레시피에는 원형(독창성)이 없다. 즉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든 조리법은 기존의 요리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레시피는 개발되고 공유되며 삶의 식문화를 채운다. 많은 것, 비슷한 것 중에서도 도드라지는 독창성과 개성, 감동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레시피가 가능한 것은 요리사가 새로운 맛의 조합을 위해 음식의 요리 과정에서 각종 변수를 만들고 제어하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은 요리 도중 발생하는 각종 변수를 고려해서 조리법을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불만과 불평이라는 오류를 제어하는 레시피이자 매뉴얼이기도 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작 공간의 생성과 쓰임도 요리를 만들고 먹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주변의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제작 공간의 사례들을 보면 새로운 원형과 시도를 발견하기 힘들다. 기존의 공공미술이 가졌던 커뮤니티 아트의 특성들, 동네 공방의 활동들이 다른 형식을 가진 공간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의 다양한 레시피처럼 어떤 차이를 공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비슷한 주제와 기술로 제작 프로그램을 다루어도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조직화해 가는 실험이 필요하다.



출처: <http://data-cuisine.net>

1

창생공간의 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간을 생성해 갈 때 작동하는 그리고 작동할 수 있는 변수의 가능성은 연결해 보았다.

4. 데이터의 맛 – 맛있게 만들기

마지막으로 음식과 요리에서 일어나는 변수를 독창적으로 해석해 낸 프로젝트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데이터 시각화를 요리로 전환한 ‘데이터 쿠진(Data Cuisine)’ 프로젝트는

2011년에 시작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오는 패턴을 음식에 매핑하는 아이디어로, 설정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 조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해서 요리법을 배우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데이터와 음식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요리하지 않는 사람이 먹는 경우 음식에서 데이터를 읽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 쿠진’에서는 워크숍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찾고, 음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감각은 데이터를 더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쿠진’은 음식의 다양한 특성 색과 형태, 질감, 냄새와 맛, 영양, 조리 시 온도, 식문화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식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이 곧 변수이고, 변수라는 요소를 잘 활용해서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독창적 워크숍이 나오게 된다. 데이터의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는 새로운 이야기와 이슈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워크숍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현지에서 구하는 음식 재료들이 생산지에서 오는 거리’, ‘학계에서의 여성의 수 비교’, ‘가난과 불평등의 관계’, ‘지역별 음주량의 차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사고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변 인구 수 분석’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만드는 수행적 행위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조직과 자기실천의 과정을 잘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고,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은 사회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창생공간이라는 모델이 기존의 커뮤니티 공간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올해도 지원이라는 외부 변수가 계획되어 있다. 외부 변수와 함께 각 공간이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공간을 운영해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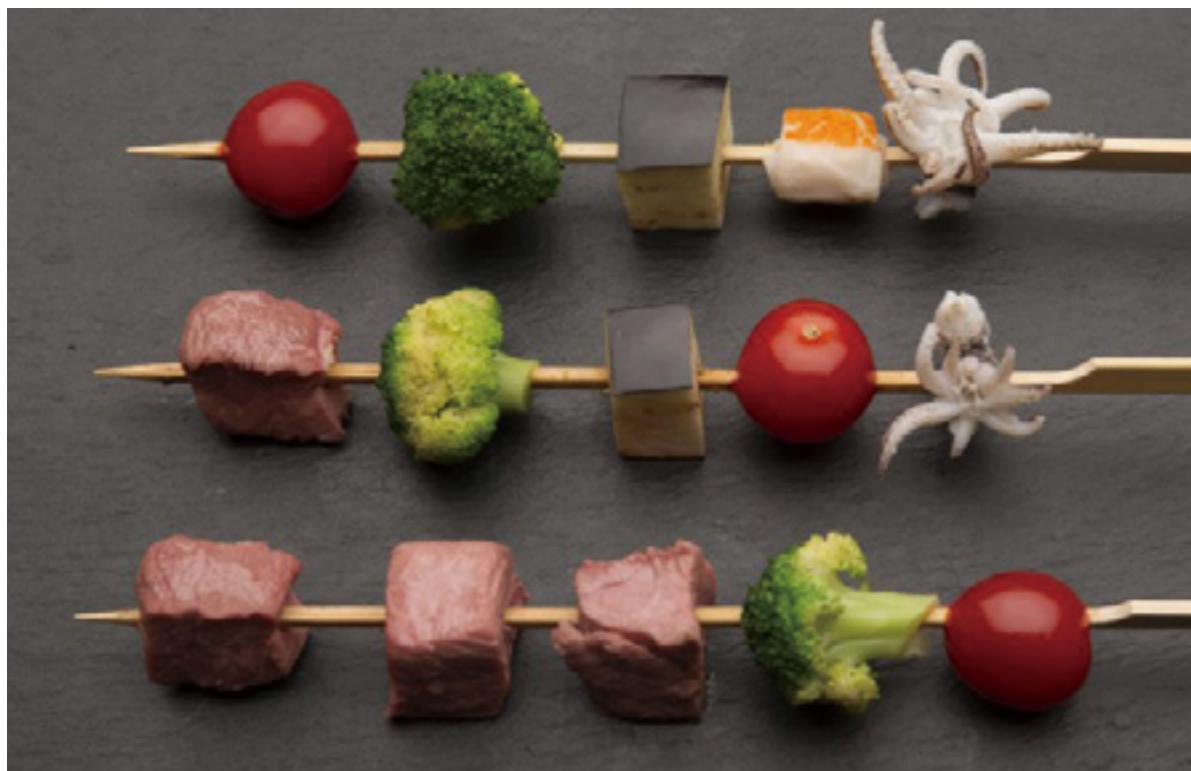
생동하는 독립출판, 지역출판!

이정화(독립 에디터)

최근 책 문화의 흐름이 다양하고 독특해졌다. 필자가 동료들과 함께 독립잡지 『냄비받침』 1호를 낸 5년 전만 해도 독립출판물은 일반인에게는 낯설었고, 출간물 수도 적었으며, 독립서점은 20~30여 개 정도였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다양한 제작 동기를 지닌 소규모 독립출판, 일인출판, 지역출판¹의 출간물들이 온, 오프 일반서점과 전국 130여 개가 넘는 독립서점들에 입고되어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² 소규모 출판물 페어도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여러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 주관한 아트마켓에도 초대되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출판물도, 그 출판물을 담아내는 공간도, 그것을 향유하는 문화도 이전에 비해 다채롭고 유연해졌다. 지난 1월에 열린 <수작, 먹고사는 기예술>(경기청년문화창작소 상상공작실, 1. 23까지)전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다양한 출판물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기지가 넘치고 ‘시각적’ 참신함이 두드러지는 출판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Fig. 1: 독립책방 이후복스



1

소규모 독립출판, 일인출판, 지역출판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려 한다. 소규모 독립출판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이 자신의 언어와 이미지로 창의성을 표현하는 ‘창작’에 방점을 두고 자율적 편집 방식으로 출간물(창작 주체가 편집권을 가지며 출간물의 모든 과정을 일임), 일인출판은 1인 혹은 2~3인의 멤버가, 기존 출판사가 기획하지 않는 참신한 콘텐츠를 시각성 돋보이는 편집 방식으로 제작한 출간물(소규모 제작 주체가 자체 기획력과 콘텐츠를 무기로 상업 출판사와 출판시장에서 경쟁), 지역출판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의 색깔과 목소리를 책 구성에 반영하고 잘 다루지 않는 특정 이슈를 기획한 콘텐츠(창작과 제작 주체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아카이브에 기여). 독립잡지에 대해 좀 더 보충하자면, 주목할 만한 대표 잡지로는 현재도 발간되는 흥대 대표 소식지 『스트리트 H』와 매호마다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독자들의 대답을 모아 잡지를 제작한 『헤드에이크』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독립잡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싱클레어』 편집장 피터는 독립을 자치(Self-rule)의 축면에서 정의한다. “자치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적인 결심과 행동, 그것이 가능할 때 독립잡지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문학 콘텐츠를 독립잡지의 특징으로 꼽고 있으며, 다양한 독립잡지가 출간하게 된 계기로 “개인이 출판물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소량의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보급”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우리, 독립출판』, 북노마드, 2016) 필자는 여기에 ‘다양한 사물(오브제)을 이용한 제작 문화에 대한 창작 주체의 관심 증가’도 추가하고 싶다.

2

또한 시집 전문 서점, 펍을 겸하는 서점, 아카데미에 특화한 서점 등 구체적인 콘셉트로 주인의 개성적인 시각과 자율적 기획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립출판, 일인출판, 지역출판의 출판물과 상업 출판사의 출간물을 함께 판매하는 서점이 늘어났다. 독립, 상업의 구분보다 주인의 안목을 책 선정에 반영하여 ‘잘 만든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독립출판물과 창업한 독립서점들을 리서칭하고 그 결과를 SNS에서 공유하거나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toragebookadfilm/posts/1319114131442960:0>, 자료 출처는 스토리지앤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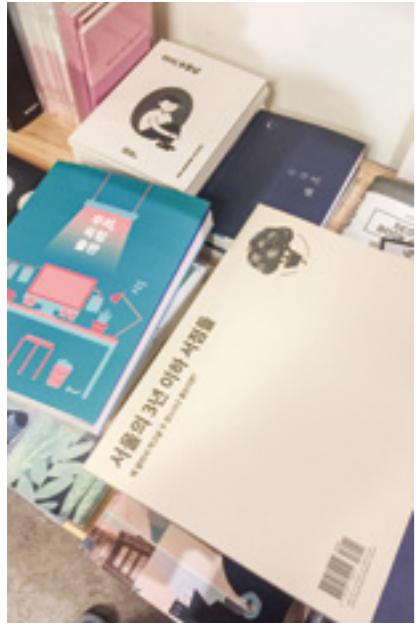


Fig. 2: 북노마드에서 발행한 «우리, 독립출판»과
브로드컬리에서 발행한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Fig. 3: 이미지 조각 모음



Fig. 4: 독립출판 문학과죄송사 시선집

골목 안 이웃과 풍경 담는 골목잡지 «사이다»

지역출판물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회적기업 더페이퍼가 발간한 골목잡지 «사이다»도 지난 5년간의 기록과 풍경을 아카이빙하는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2012년 남수동을 시작으로 총 열다섯 곳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의 이야기와 골목 풍경을 스케치하여 현재 13호까지 낸 «사이다»는 그 골목에 얹힌 역사를 조명하여 독자들에게 다정한 골목여행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매호 5천 부를 발간하며, 누적 외부 필자만 50여 명이 넘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수원 행궁동 여행자를 위한 잡지 «시간 여행자»를 창간했다.) 행궁동 문화 골목에 위치한 더페이퍼는 이전까지 행궁동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공간(‘평상’)으로 기능하던 공간을 지역 아카이브 전문 책방인 ‘곧바로 책, 방’으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출판 및 지역문화잡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북스튜디오 사이다’ 출판학교 강좌를 진행했다. 총 24회에 걸쳐 진행된 출판학교는 책 한 권을 기획하고,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써서, 편집 제작 과정(디자인, 교열)을 거쳐,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저작권, 유통)까지 모두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지역사를 이해하고 ‘사이다’식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강좌의 특징이다. 사이다식 글쓰기란 무얼까. 이번 출판학교에서 글쓰기 강의를 맡은 은정아 강사(EBS 지식채널-e 작가)는 “거창하지 않고 일상적이며,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더욱 주목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내용을 담아낸 글이 사이다식 글쓰기라 말한다.



Fig. 5

Fig. 1-4
참신한 기획과 감각적인 편집으로 제작된 독립출판물은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 작은 무리의 관심과 이야기를 반영하므로, 독자로 하여금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자기만의 책을 ‘구성’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최근에는 지난 독립출판, 독립서점들을 정리한 아카이브 책자들도 출간되고 있다.

Fig. 5-7
골목잡지 사이다 부스. 더페이퍼 팀도 <수작, 먹고 사는 예술>에 초대되어 전시 부스를 꾸며 관람객을 맞이했다. 곧바로 책, 방에서 출판강좌를 진행하는 모습과 수강생 출업작품. (순서대로)



Fig. 6

‘총’스럽게 멋스러운 ‘지역잡지’

최근 독립출판물 못지않게 지역출판사들도 약진하고 있다. 통영의 남해의봄날, 부산의 인디고, 산지니, 광주의 한얼미디어, 원주의 도솔오두막, 홍성의 그몰코 등의 지역출판사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성’이 반영된 출판물을 전국의 독자들에게 읽힌다. 지역출판사들은 인쇄 시설이 없는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지역 콘텐츠 기획 및 생산에 전념하고 제작과 배포는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로 자생하고 있다. 또한 택배와 인터넷 등을 배송과 홍보(SNS) 등에 적극 활용한다.³ 아울러 지역 문화잡지는 지역색을 반영한 독특한 콘텐츠로 일찍부터 전국의 마니아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가장 사랑받는 잡지는 광주의 «전라도닷컴»(2002년 3월 창간, 황풍년 편집장). 이 잡지는 비주류(마이너리티)와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언어 등을 다루며, 전라도 방언을 그대로 글 속에 녹여내는 등 독자적인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 «토마토»(2007년 5월 창간)는 대전에서 사랑받는 문화예술 잡지로 북카페 ‘이대’를 함께 운영 중이다.⁴ 부산에는 횟집에서 후원하여 계절마다 나오는 «안녕, 광안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보일라» 등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독립출판물, 독립서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이나 카페는 그 공간을 연대와 커뮤니티 형성의 장소로 활용한다. 또한 독립출판물 창작자들이 같이 도모해 아트마켓을 꾸리거나 전시를 열고, 작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 함께 배운다. 앞서 소개한 «사이다»등의 지역문화잡지들도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문화를 나누고자 네트워크를 만들어(2013년에 ‘지역문화잡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6년에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출범) 사진전도 열고(‘총스럽네’, 부산, 서울, 2015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독립출판, 일인출판, 지역출판의 창작물들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기존 출판물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획의 콘텐츠와 이야기들, 감각적이고 독특한 시각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창작물을 만드는 주체는 책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화를 구성해 낸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 작은 무리의 관심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 주기에, 독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 ‘나’도 나의 책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권의 좋은 책은 한 사람의 삶과 이웃과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준다. 때문에 책은 상품이 아니라 손수 만든 질그릇같이 온기를 지닌 마음이어야 한다. 연대가 아니라 독과점 일색인 지금 출판 현실에 반감을 느끼며, 고요서사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 이 말에 공감한다.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10만 부씩 팔리는 사회보다 열 권의 책이 1만 부씩 팔리는 사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서점들이 필요하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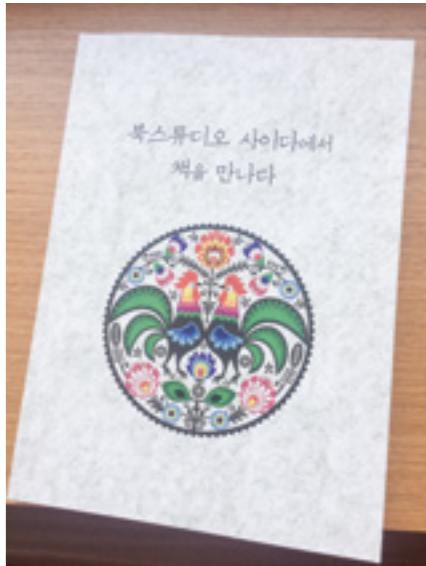


Fig. 7

3

일례로 산지니는 부산 지역과 관련한 불교, 차, 김치 연구, 해양 등을 주제로 한 책을 냈고, 인디고는 지역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른 인문교양서를, 한얼미디어는 아름다운 남도 시리즈와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 단행본을, 도솔오두막은 잡초들의 생존방식을 다른 책과 시골 삶을 사는 이의 반농반출(半農半出) 철학을 출간했다. 홍성의 그몰코는 인근의 풀무농업기술학교와 귀농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기반이다.(출처는 «한겨레», (지역출판 ‘지역’을 밀천으로)(임종업 기자, 2016. 6월 15일

이모저모 도모소

윤현옥(비빔펫 대표)

창생공간 사업은 경기도의 낙후된 구도심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수도권에 형성되었다가 산업구조의 재편, 노동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낙후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농촌으로부터 이주하는 값싼 노동인력들을 위해 계획 없이 확장되면서 저렴하게 조성된 주택지역들은 외형적으로 매우 낡고 냉난방, 기반시설 역시 낙후하여 주변의 신도시에 비해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면서 쇠락과 슬럼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두리 주거지들은 대부분 노동을 위한 대안적, 임시 주거지로 주민들의 애착심, 정주의식이 희박한 편으로 도시공동체를 형성할 여유나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거나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은 근처 신도시 등으로 이주하고 노동력을 상실해가는 노인들이 관성적으로 남아 있고, 빈집들은 저렴한 주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빈민들로 채워져간다.

서울의 위성도시는 기대와는 다르게 과거 농촌공동체와 같은 긴밀한 사회시스템이나 공동체 체계, 성공 경험에 부족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는 회복 보다는 남아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감, 유대를 기반으로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는다. ‘이모저모 도모소’가 자리한 안양의 만안구는 대학과 공장지대 사이에 있는 안양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노년층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모저모 도모소는 근린상가와 다세대주택이 혼재하는 그리드형(구획계획) 주택가에서도 비교적 활기를 띤 대학가의 앞에 위치하여 지역에서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이점이 있다. 노인들에게 3층 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실내공간이 독특하고, 간판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메니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여 작가들은 이전 프로젝트에서 지역의 특성을 자원화하여 상품화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과의 소통경험도 있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통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상품생산과 수익창출, 경제적 자립의 목표까지 수행하는 목표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1차년도 사업은 공간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등 기초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2차년도 사업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다면적인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조사는 작가들의 감수성에 기반한 조사로 파일럿 프로그램과 상품들은 기존 작가들의 작업과 작가의 시선에 집중한 편이다. 지역에 대한 역사, 지역 계획, 인구분포, 거주자들 인터뷰, 자원, 스토리 등 콘텐츠화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풍부하게 할수록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문화의 일부가 되는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만안구는 안양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노년층에 관심을 가진 도모소의 방향은 매우 고무적이다.”

공도창공 수동

안태호(문화비평가)

‘공도창공 수동’은 적정기술 기반의 난로 제작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환기하고 사업적 활용의 방식을 모색해 왔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효율 난로가 이미 상업적 영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주체들은 사업기간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 적정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지역활동을 통해 난로 기술에 대한 지역의 교육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향후 로켓매스 히터 운용 원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대안 에너지 전반과 실제 난로 및 구들장 제작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2015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제작, 활용했던 적정기술/ 대안에너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착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술 자체가 갖는 흥미성과 공익성 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등 공공영역과의 접점도 꾸준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적정기술과 관련한 단체의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다양한 단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의 근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는 더 깊고 넓게 확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난로 제작을 병행하는 것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작문화 측면에서 망원경은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천체망원경을 만들기 위한 렌즈는 필요한 비용과 기술이 만만찮아 보인다. 망원경에 대한 대표자의 전문성과 열의, 진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를 보였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바탕에 두고 생각할 때 천문공작실의 강점은 천체망원경이라는 기술과 제작 방식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문공작실에서 준비했던 체험프로그램의 제작키트, 마을회관 옥상과 2층 공간의 시설 설치와 관측용 망원경 구비, 과학교육 및 별자리 수업 등은 공간 나름의 기획을 통해 준비되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비중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천문공작실의 개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인지도 상승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란 판단이다. 향후 사업이 지속된다면 인프라보다 프로그램 개발/운영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을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체들의 역량을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가 유휴주택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시도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 증진 및 나아가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의 특성상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지역 기반 예술가의 참여 의지와 열정이 공간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설 조성과 운영의 주체가 시각예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의 아우라 창출과 디자인 강화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시각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향유자의 체험활동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을 살려 생활예술을 통한 공동체 문화성 증진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성 이후 자생적인 운영 시스템과 수익 구조의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지역주민공동체와 다양한 관련단체들과의 협업 구조를 초기부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수익과 공익, 자생과 지원의 현실적인 병행으로 공공성과 함께 자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시설 조성의 방식에 있어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이 공간의 안전이나 내구성 또는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니, 재단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협업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설 개보수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법적인 인허가 사항과 행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과 향후 보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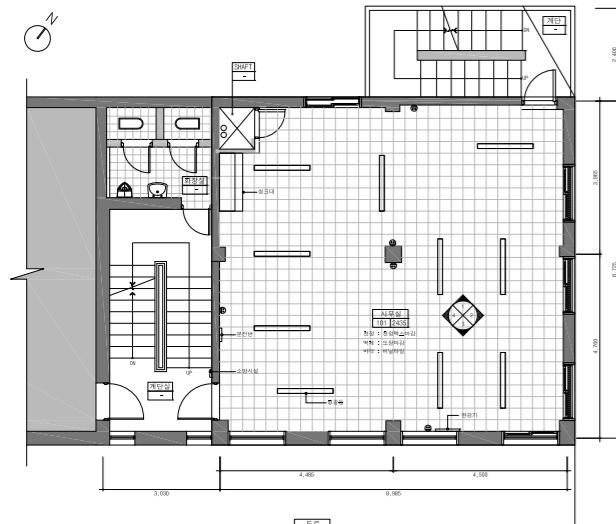
“공간의 인지도와 평판을 구축하는 것이 내용 기획과 운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위해 전문 건축가나 시공자의 정식 설계와 조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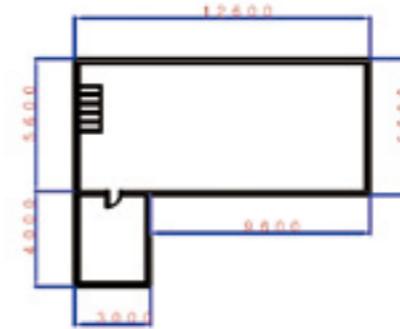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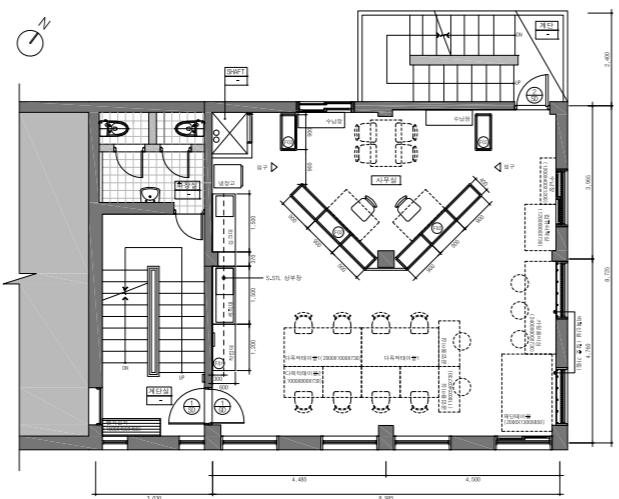
건물 내 층별 공간별 활용 계획의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적으로도 실내와 옥외, 개방과 비개방 등 적절한 조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1층과 2층을 대상과 용도로 구분하여 전문가들을 위한 창작 또는 연구공간과 대중들에게 개방하는 향유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1층은 개방적이고 상시적이며 방문자 중심의 공간(갤러리/카페/사무실/오픈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제한적이며 목적 사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작업/교육/모임/교류 등)하여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기획의 경우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다른 주민 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용에 있어서 운영자의 직관적 판단과 전문성에 충실하는 것도 차별화의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 창출의 원천을 카페 등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공간의 활용도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작물의 판매나 교육 수입 또는 플리마켓 같은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며,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패키징도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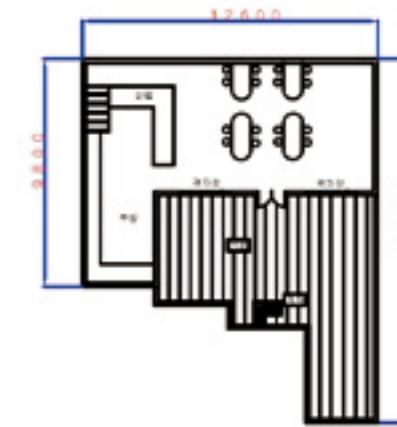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의 각종 매체의 협조를 위해 기본적인 소통 채널에 대한 상시 가동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스토리의 창출과 공유를 위한 세부 수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간의 인지도와 평판을 구축하는 것이 내용 기획과 운영 못지않게 중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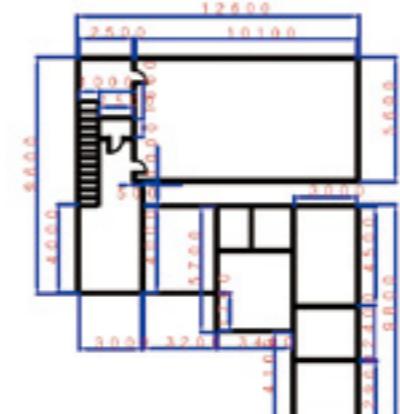


→



2층

→



1층

〈이모저모 도모소〉

공간이 협소하고 커뮤니티공간이 곧 작업장이자 창작 공간으로 통합성을 가져야 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무실을 별도로 중앙에 구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광역적인 입지나, 건물 자체의 3층 입지로 볼 때 현장의 전시장 기능이나 판매장 기능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공간 사용의 목표는 실질적인 사용자, 공동 창작/생산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누구일지 무엇을 창작할지 구체적으로 타깃화하고 형성하는 것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안

1. 중앙의 사무 공간은 따로 구획하지 말고 주방과 오픈 공간 사이에 시야가 트인 수납 겸용 벽을 두는 방식
2. 공간 활용과 가구 배치도 향후 다양한 사용 사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디테일하게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변형을 염두에 두는 방식(가구도 유닛형으로 하여 그루핑 하는 패턴에 따라 다양한 개인과 그룹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아티스트의 사무나 작업공간을 별도 구획하지 말고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생산 창작 작업장으로 성격을 확실하도록 공간을 조성

〈재미〉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주거지역의 공장을 재생하여 로컬을 기반으로 일하던 아티스트들의 창작 기반이자 커뮤니티의 접점으로 만드는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프로젝트로서 지원사업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 사업 구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여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리노베이션의 공사 범위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과 적법성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산과 예정기간 내의 완성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향과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제안

1. 공간 조성에 있어서 1층을 카페로 건물의 뒷동을 창작 공간으로, 2층을 사무실과 접회실로 조성하려던 애초의 계획에 대하여 골목으로 열린 1층을 창작 공간으로 하여 커뮤니티와 공간 사이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고, 2층을 카페 겸 접회실의 모임 공간으로 조성
2. 리노베이션의 건축법상 적법성, 구조 안전에 대한 진단, 그에 따른 공사범위를 해당 관청,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세히 리서치하고 예산 내에 가능한 공간 조성 계획과 공사 계획을 수립

우리 팀은 경기도 성남시의 구시가지인 수정구 신흥동(新興洞)을 거점으로 지역 사회(거주민, 장소, 환경, 상황)와 상호작용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실험하고자 2016년 창생공간 조성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조건부로 선정되면서 성남 이외의 타 지역에 위치한 제2의 공간을 새롭게 물색해야 했다.

경기권 내 타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시되었던 조건은 제조산업단지가 위치해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주민 거주 지역에 위치해 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점, 노인 인구밀도가 높아야 하는 점과 함께 저렴한 임대료 등이 있었다. 우선 제조산업단지가 있는 부천시, 금정시, 안산시, 시흥시 등을 성남시 이후 창생공간 조성을 위한 차선택지로 결정하고, 유휴 공간 및 임대 공간을 지속적으로 알아보았으나, 유휴 공간의 부재, 존재 시 개인이 사용 불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공간 임대료 부분에 있어 시로부터 공간을 무상 임대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한 지역이 있었으나, 작가들의 좀 더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민간 임대를 결정하였고 대부분 상가지역의 경우 1층 임대시 매불 부족, 고가의 임대료 및 보증금 등으로 인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낙후된 건물의 3층에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다.

우리 팀의 경우 대다수가 서울 거주 작가로 조건부 선정 후 다시 새롭게 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 지역을 탐색해야 했던 부분에 있어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우리 팀은 ‘이웃상회’가 가진 시니어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한 비전을 주축으로 하며, 안양시 만안구의 원도심 주거지역이자 대학가가 위치한 동네에서의 시니어 및 청년 세대 문화 교류를 지향하는 제작문화 실험 및 확산에 초점을 두고 〈이모저모 도모소〉를 조성하게 되었다.

운영 주체가 스스로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재단의 지원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공간이 자립도를 가진 정착기에 접어들 때까지 본 사업의 연간 지원 비율이 1년차에 비해 급격히 감소되어 사실상 민간 임대 중인 공간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높은 편인데,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 예산 집행이 운영 주체의 실정에 맡게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각 지역의 창생공간이 예술가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이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공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예술가그룹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는 운영 시간에 대해 각 운영 주체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기를 바란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2015. 8. – 2016. 10.]

지나가던 사람 1.

20여 년간 식육판매모범업소였던 서둔동 200–45번지(상탑로 104)의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정육점 아저씨가 가게를 내놓고 떠나게 된 이유는 웬만한 동네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은 관심의 대상이 되곤 했다. 지역을 읽는 도구로 많이 들여다보았던 지도들을 벽에 붙여놓은 했는데 그걸 보고 ‘떴다방’이라고 소문이 났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본 이들이 건네는 말은 ‘종교단체에서 뭐 하러 온 거냐?’였다.

지나가던 사람 2.

공간을 얻은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낯섦도 익숙함으로 바뀌는 듯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이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인지 잣은 질문도 ‘여기서는 무슨 강좌해요?’ 하는 정도였다.

찾아오는 사람 1.

지역 연구, 문화 기획, 예술, 문화 공간에 호감이 구체적으로 들어 적극적인 대화를 청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동네가 시시하고 각박해지기만 하다고 느끼시는 할머니, 구직 중인 청년, 뭔가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은 주부,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였지만 오랫동안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바람만 있었던 이들은 공간을 매개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 딱히 어떤 시설이라고 할 만한 인프라가 있지도 않았던 당시의 공간은 천원진 작가가 작업한 테이블 몇 개와 마차 모양의 식탁이 전부였고 미처 치우지 않거나 남겨놓은 지역 연구의 흔적들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창생공간 지원사업의 심의 과정으로 공간을 방문했던 한 건축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잘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찾아왔던 그들에게 기존에 동네에서 보아왔던 가게들의 쓰임과는 다른, 뭔가를 팔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가운데 낯섦을 해소하는 것이 그들이 접하거나 떠올리는 문화와 예술의 어떤 것들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들의 ‘여기 뭐하는 곳인가요?’는 사는 일에 관한 지극히 평범한 대화와

만남이었다.

절실하게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내 공간의 쓰임을 고민해왔다. 개별적인 동기와 배경, 공간을 매개로 하자 하는 일들에 대한 그림들이 있었고 동시에 창생공간 지원사업과 연결되는 개념이나 의미의 부분과 실제로 벌어지는 활동의 영역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왔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그동안 공간을 통해 만나왔던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도 합류하게 된다. ‘발효’라는 컨셉은 주도적인 작업자(들)의 필요성, 창생, 제조 문화, 동네라는 질문의 주체나 키워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개념이자 방향으로 본 것이다. 제작 활동의 구체적인 영역으로서만 ‘발효’를 사고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확장하면서 동네의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선택은 공간 조성이 완료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공간의 정체성이나 공간 기능을 특징화하고 설명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6. 11. – 2017. 1.]

공간 조성

익숙한 단어나 개념들의 어색한 조합은 ‘생활적정랩 빼꼼’으로 정리되었다. 삶의 문제를 ‘생활’로 현실화하고 개인의 삶을 꾸리는 일이자 제작 활동으로서 발효 기술의 적정성이 기준의 발효 활동과 달라야 하는 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해서 공간이 대단히 특별한 시설은 요하기보다 공공적 주방과 거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간의 매력도를 높이고, 작가 주도의 디자인과 설치 작업을 이루고, 작은 공간의 아늑함을 극대화하면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화에 주력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시간과 재원을 들여 공간을 돌보는 일은 빼꼼이 위치하고 있는 상탑로 거리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저마다의 시선에 따라 다른 내면을 갖는다. 공사 이후가 궁금한 사람, 벼려지는 책장이나 테이블 같이 가져갈 것이 없는지 살피는 사람, 철근이나 목재, 종이가 나오지 않나 매일 들르는 사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작가들의 목공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 등 이유는 다르지만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묻는 일은 인사치레로라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7. 3. -]

고민과 논의, 준비가 제법 오래도록, 진지하게 있어왔지만 여전히 빼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계획대로 될지 어떨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논의의 과정을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공간을 열고 머물며 작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자 한다. 이런 행위의 의제는 당연히 제작 문화와 발효, 문화 실천이나 아트워크(Art Work)과 같은 것들이 개념, 분야, 영역, 방법론 차원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풀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다소 거칠게 서술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 문화 실천과 제작 활동
- 지역, 동네 – 서둔동, 수원
- 관찰과 기록
- 재미와 놀이
- 공간의 미, 사적인 활동이 사회적인 공간이나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것의 의미
- 일상–문화–예술–살림–발효–순환–관계
- 기존의, 커뮤니티 공간과의 다름에 관한

공간 조성 전에 이뤄진 리서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학습했어야 할 내용이기도 했는데 콘셉트와 공간의 방향에 비해 운영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던 이유로, 리서치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던 의도가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향후 과제가 남게 되었다. 그러나 리서치에 참여했던 작업자들과 리서치 활동을 통해 구체적 경험을 얻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리서치 결과에 대한 아쉬움

4명의 작업자가 여러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많은 대화가 이뤄졌지만 기대했던 발효와 관련된 이슈가 의미 있게 도출되지 못했다. 리서치 방식의 한계, 작업자들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발효 문화가 현재 사람들의 삶에 크게, 유효하게 남아 있거나 전승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작업자들이 만난 많은 할머니들이 장을 담그기보다 사 먹거나 지인을 통해 얻어 먹으면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고 리서치 대상으로 의미

있다고 가정하였던 할머니들이 장을 담그는 등 발효 활동을 생활에서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등 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함께하는 어려움과 재미”

정기적인 문화 활동의 유의미성

‘어느 날 가게’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역시 대중 다수를 염두에 두 활동이기보다 빼꼼에 관심 있는, 빼꼼의 인프라가 필요한 이들의 관계를 활동으로 이어가며 그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쪽에 수요가 더 많다는 점이다. 멤버십을 구조화하고 몇 가지 충위를 통해 누구든 멤버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 모임이 커뮤니티 키친과 같은 문화 활동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이와 같은 구조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수록 빼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공유, 거래되고 빼꼼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아카이브의 절실함과 섬세함의 보완

빼꼼의 창생공간 조성사업 1년차는 공간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리서치나 ‘어느 날 가게’와 같은 활동 속에 적지 않은 제조 문화의 자원과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이를 세심하게 기록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쉽다. 2017년, 발효와 관련된 학습, 조사, 실행을 앞두고 재료나 도구, 이야기, 제조의 기술, 과정, 시간, 변화, 결과, 공유, 교류 등의 요소를 지표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자 한다.

‘빼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되다, 알맞다, 어울리다의 의미를 갖는 ‘Become’을 구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문을 조금만 열고 얼굴만 내밀고는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하며 물어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공사가 완료된 후 일상적으로 머물기를 구체화하고 날이 풀리면서 이런 모습은 매일매일 벌어진다. 주요 작업자들은 1년 계획을 세우면서 균을 부르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은 모임들이 공간을 쓰기 시작하였다. 고백하였던 빼꼼의 불완전함은 작업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최대한 기록하려고 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어쩌면 ‘발효’의 근간이 되었던 ‘시간’과 ‘노동’에 관한 다양한 사유는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듈다. 각각의 개인이나 관계된 서로에게, 또는 우연히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작가들이 마을 벽화 작업을 하며 발견해 낸 지은 지 43년 된 폐허주택. 앞동 단층주택과 뒷동 1, 2층 공간이 가지는 미묘한 구조적 매력에 흠뻑 빠져 마음 설레며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설레임과 흥분된 기쁨도 잠시…… 앞동 주택의 천장을 뜯어내며 노출 시키는 과정에서 곧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은 나무 골조들이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난감함에 봉착, 어쩔 수 없이 지붕 철거가 시작되었다. 노후된 주택의 슬라브 과정은 보강 뼈대를 더 철저히 세워야 했고 거푸집을 비롯 예상치 못한 꽤 많은 과정과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레미콘 18루비가 지붕 위로 쏟아지며 거푸집을 흔들던 날 참여 작가 모두 심장이 쿵쾅거리던 날이었다. 오래된 정취가 남은 공간이라 너무 좋았지만 결국 오래된 건물의 실체를 절감하며 힘든 수고로 공사는 계속계속 진행되었다

부족한 자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업 기한이 있는지라 그 공기에 맞춰 인원을 추가 투입시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 가오픈 이후 지원금이 고갈되는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다. 가오픈 이후 추가 지원금이 나오기까지의 춥고 배고프고 맘고생까지 해야 하는 고난의 기간이 이어졌다. 2017년 1월의 겨울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맘에 그 어떤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로 느껴졌다.

이번 조성 사업 참여로 느낀 점은 팀원들의 역량을 무조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하다 보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협화음을 생길 수 있고 오랜 노동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에서부터 ‘함께’하는 일의 어려움과 재미는 늘 공존하기 마련인 듯하다.

“물골안공동체와의 협력”

결론부터 언급한다면 6개월의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기대 이상의 사업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한다. 우선 자립을 위한 제작아이템 중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시제품으로서 ‘우드가스 스토브 타입 E’와 우드펠렛 스토브 ‘버드(Bird)’, ‘네모(Square)’를 들 수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로켓 스토브를 기능성 심미성 편의성의 차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비엔나 스토브’와 친환경 청정연료 우드펠렛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매스 히터 펠렛 연소기’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밖에 교육용, 모바일 하우스용, 국가재난 구호용 키트로 기획 제작된 바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 공생도구 키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옵션으로 한 시제품 개발 계획 또한 공간 자립 및 공공성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시도이다. (개별 시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6.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시도’, ‘제작아이템 시제품’ 항목 참조)

지역커뮤니티 발굴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물골안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진행된 ‘새집 만들기 워크숍’, ‘우드가스 스토브 제작 워크숍’, ‘로켓 스토브 – 가마솥화덕 만들기 워크숍’ 등 세 차례의 워크숍과 공간 오프닝 부대행사 ‘적정기술 난로 폐스티벌 수동’ 또한 팔목할 만한 성과로 간주된다.

워크숍의 경우, 당초 두 차례의 워크숍을 제안 받았으나, 두 번째 우드가스 스토브 워크숍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여 한 차례의 워크숍이 추가되었다. 운영 공간이 위치한 남양주시 수동면은 경기북부 산촌마을의 특성상 겨울이 유난히 춥고 같다. 때문에 워크숍 참여자들의 관심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로켓 스토브 워크숍의 진행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 워크숍의 실행은 로켓 스토브 워크숍과 로켓 스토브 가마솥화덕 제작 워크숍이 병행되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 포켓로켓 스토브, 핫플레이트 로켓 스토브, 트윈 스토브, 로켓 스토브 야외용 화덕 등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브를 선 보였으며, 참여한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진행된 로켓 스토브 가마솥화덕 제작은 워크숍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서 물골안공동체 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설계 및 기술은 본 운영 공간이 지원하고, 일체의 제작 비용은 물골안공동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실행되었으며 성공적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1, 2차 워크숍 참여 인원: 각 20명 / 운영 공간 팀원 및 스텝 각 6명, 3차 워크숍 참여인원: 약 50명 / 운영 공간 팀원 및 스텝 10명(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활동기록 카페 공도창공 수동(cafe.naver.com/convivialmake) 혹은 활동자료집 ‘워크숍’ 항목을 참조)]

이 밖에 공간 오프닝 및 전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적정 기술 난로 폐스티벌 수동’ 또한 결코 일회성 행사로 간과할 수 없는 성과 중 하나이다. 한국적정기술연합회(난로부대장터)는 국내 난로 제작 기술의 향상을 위해 연소 원리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파주, 제천, 양평, 아산 등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사 기획을 통해 적정 기술을 보급해 온 고효율 난로 개발자들의 모임이며, 이번 행사에는 충청 이북지역의 주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적정기술연합회[난로부대장터] 회원들은 기계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본 운영 공간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로켓 스토브/ 매스 히터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 기술을 경기북부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동계 문화예술콘텐츠로서 지역 난로 축제를 기획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에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작업자 네트워크 협업 파트너이다.

[사업 추진 인원: 운영 공간 팀원 및 스텝, 물골안공동체 협력 인원, 난로부대장터 회원 등 약 25명, 행사 방문객수: 오프닝전시 포함 약 150명(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활동기록 카페 공도창공 수동(cafe.naver.com/convivialmake) 혹은 활동자료집 ‘오프닝 & 전시’ 항목을 참조)]

창생공간 조성사업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초기 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있어 적지 않은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는 계기가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적정 기술 및 지속 가능 발전을 모티프로 한 공간 운영 이니셔티브와 그에 따른 용접, 목공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방향에서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환이 불가피함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 초기의 혼선은 지역 커뮤니티의 발굴과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며, 워크숍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출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 관계를 보다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 혹은 단기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및 특수성과 공간 운영 주체의 활동 지향성이 부합된 중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연구, 시간, 인력 등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 활동에 대한 한계를 보면, 현재로서는 공간 부족 및 본격적인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가적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한계이다. 우선 공간 부족 문제는 공간의 부분 개조(다락 설치)를 통하여 작업장 내 수납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해소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완성된 제작물들과 각종 기자재로 인해 재포화에 다다른 상태이며, 향후 본 운영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용접 및 철공 제작 실습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보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립을 위한 제품생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1인 중심의 작업 운영 체계가 갖는 한계 또한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공도창공 수동은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시제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제작공정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보충해야 하며, 생산 및 유통시스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창생공간의 방향성 또는 정책 제안은 쉽게 답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본 글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글을 쓰는 도중 떠오른 단상을 간단한 스케치 형식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창생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1차 단계인 공간 조성 실행 단계라고 여겨진다. 이는 리서치와 공간 조성, 지역 커뮤니티 연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1년 차 사업이 집중된 결과이다.

보다 더 긴밀한 관계 유지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예비 단계에서 계획된 바 있는 통합 사이트의 개설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창생공간 실무팀과 각 운영 공간들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진행상의 혼선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서치는 운영 주체의 지향성이 반영된 공간 운영

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 공간 운영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혹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지역 커뮤니티의 욕구 및 요구를 수렴한 후 운영 주체의 공간 운영 지향성에 부합하는 공간 운영 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 철학의 부재에 따른 수동적 포퓰리즘의 한계에 노출될 뿐 아니라, 자칫 사업전체가 지역 커뮤니티의 1차원적 욕구에 대한 단순 서비스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커뮤니티의 상황과 유리된 의사 예술적 관념의 유희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자립과 공공성의 확보는 파일럿 프로그램 사업 수행에 있어 커다란 과제이자 화두이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으로 매몰될 수 있기도 하고, 자립에 치우칠 경우 공공재원을 개인 및 단체의 사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확보에 치우칠 경우 역시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한계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행모델에 대한 학습과 동행자 간의 조언, 길을 여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

창생공간 아카이브 전시는 초기 아이디어 수렴 단계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전시를 위한 아이디어는 그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외연(장소, 공간의 규모 및 상태, 전시 실행 주체의 구성, 소요 예산 등)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카이브 전시를 위한 아이디어 구상은 그저 막연했을 뿐임을 밝힌다.

‘수작, 먹고사는 기예술展’의 창생공간 파티션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결과적으로 창생공간 아카이브 전시는 독립적으로 기획되어야 했으며, 그 형식 또한 완성된 제작물을 보여주는 결과 중심보다 과정 중심, 기록 중심의 전시 기획으로 이루어져야 했다고 판단된다.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단체는 예외이지만 리서치와 공간 조성에 치중한 공간 조성 사업 수행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원할 수밖에 없는 전시로 비쳤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정 중심, 기록 중심으로 창생공간 아카이브 전이 기획되었다면 별도의 전시팀을 구성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실무팀의 부담과 각 공간 조성 운영 주체의 스트레스 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문화 확산과 커뮤니티 결합은 공간 조성 사업 및 파일럿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한 이니셔티브이다. 각 운영 공간 별로 이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일반 및 사회경제적 접점에서의 진단과 통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창생공간 조성사업 전체의 성패를 검증할 주요한 모티프로 작용할 것이다.

1-4

사례 발표

평소 출판인재 교육과 양성을 위한 출판학교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판계 종사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망을 넓혀가는 등 출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뿐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에게도 교육의 기회와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었고, 출판 인재 양성과 인력 확보면에서도 성과를 드러내었습니다. 지역의 각 중·고등학교에서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출판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은 수강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상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출판학교를 진행하면서 출판업 관계자 및 지역의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련 분야의 관계망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라는 출판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출판학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각 지역으로 프로그램 사례가 확산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제작 기반의 확산과 인력 양성 등으로 출판전문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판학교 운영과 지역아카이브 서점을 통한 자립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자립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부분에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간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강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서적 구입비를 비롯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였고, 향후 출판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전담기획자, 그리고 지역아카이브 서점 운영을 위한 상시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건비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예산 규모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폭을 넓혀주시길 제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간 조성 운영 사업이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든 하나로 통일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생기다 보니 파일럿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염연히 공간 조성과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은 사업 내용이 다르다보니 재단측에서 안내하거나 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 조성 사업 견 위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아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럿 프로그램 1년차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들이 제작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등 전문화된 심화 과정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기술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현상에 대하여 – 제작기술문화를 둘러싼 탐험

창생공간 착수 워크숍(6. 29.) 사례 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송수연이라고 하고요, 제작기술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봤던 현상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작기술문화를 둘러싼 탐험'이라고 지었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소개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nmake Lab 소개

저희는 언메이크랩(Unmake Lab)이라고 하고요, 저는 거기에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언메이크랩에서는 '제작', '연구', '활동', '교육'이 주요하게 발화되는 내용들이고요, 예전에는 '청개구리 제작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제작기술문화'가 주요한 키워드고 그런 것들이 산업사회에서 지금의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작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매개적인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송수연(언메이크랩)

그래서 양털폭탄연구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안밤잉(Yarn Bombing)'이라고 해서 뜨개로 문화행동, 평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안밤잉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양털폭탄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열었고요, 2014년에는 '전자양털폭탄연구실'로 확장이 돼요. 뜨개로 시작했지만 전자바느질 같은 것을 하면서 여성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전자회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고요. 저희는 사실 목적 지향적인 만들기보다는 도구나 기술을 다루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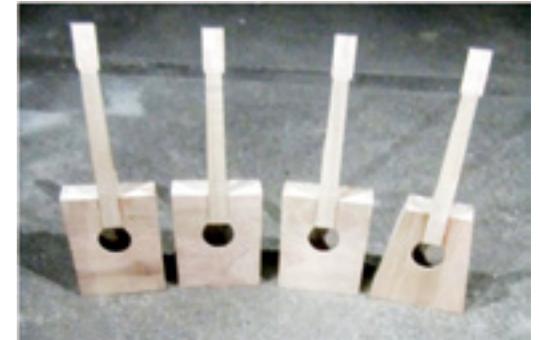
그다음으로 안정적이게 연 공간이 '디스코-텍'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좁습니다. 8평 정도의 공간인데 다행히 옥상이 옆에 있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역시나 앞서 '양털폭탄연구실'에서 썼던 모듈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공간이 작다고 무조건 제한적이거나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시적인 학교를 한 6개월 동안 열었습니다. '기술놀이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기술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했었어요. 이때 '아톰'과 '비트'라는 게 주요 주제였고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저희가 도대체 뭘 만들었을까,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박스 기타고요, 기타가 완성되기 전 모델이에요. 콜트콜텍 노동자분들이 오랜 시간 싸우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공장으로 돌아가서 기타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농성장이 있었을 때 저희가 가서 기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2012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콜트콜텍 분들이 기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노동은 분업화된 노동이여서 모든 기타 제작의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함께 만들고 했었는데, 이때 노동자 분들 5명하고 언메이크랩하고, 예술작업하시는 분들 몇 분을 초대해서 한 10명이 제작연구를 했었어요. 각자 하나씩을 만들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인터넷에서 CNC나 레이저커팅으로 쉽게 기타를 만들 수 있는 도면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기타를 만든 건 저희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멤버 한 분이 디자이너인데 프린팅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2012년 말 정도인 것 같아요. 실크스크린과 관련된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6명을 초대해서 실크스크린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를 모아서 3박 4일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연구워크숍 형태로 만들었어요. 실크스크린에 대한 경험을 함께한 거죠. 사진에서 옆에 살짝 보이실 텐데 연구를 통해 정리한 제작 자료집을 공유를 했어요. '슬라이드 세어'라는 곳에도 올려서 실크스크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베틀입니다. (웃음) 이게 저희가 만든 베틀의 진화 과정인데, 사진에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나무에 못으로 망치질하면서 베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버전이 4차까지 갔어요. 마지막 4차에서는 레이저 커팅으로 했었는데, 계속 어떤 만드는 과정, 일종의 도구에 대한 탐험인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베틀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워크숍을 해봤고요, 이렇게 키트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상품화하거나 제품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제품화까지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 키트를 5만 원에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팔지는 않았어요. (웃음)

또 기초적인 전자적 워크숍을 해요. 스피커인데 단순한 스피커는 아니고요, 소리를 채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생들하고 교육적인 워크숍에 대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회로도 직접 설계 했고요. 이런 회로를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상에 오픈소스로 올라온 도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 겨울에 했던 건데요, 저희가 기술놀이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계속 워크숍을 하는데 보시면 약학 분위기

같죠. (웃음) 이게 ‘빵퓨타’라고 해서 컴퓨터의 1비트의 기계어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1과 0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아시겠지만 많은 전자제품이 기계어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 수 있을까가 저희한테는 화두였어요. 이건 기초적이지만 확장되면 8비트에 대한 이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공중 촬영과 지도 뜯개’라는 건데요,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에 카메라를 달아서 공중촬영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걸 드론이라고 하죠. (웃음) 드론이 대세가 되기 전에 했던 실험입니다. 카메라에 연속촬영이 가능한 고무줄을 달아서 했고요.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기록을 남겨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과 같이 했던 거였어요. 용산의 기지 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살짝 엿본 거거든요. 불법인거죠. 용산공원에 가서 했고요. 행위들이 만들어내는 도구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은, 동네에서 캠페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탈 수 있는 보드와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자전거예요. 이런 거는 목공을 하는 분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난 선거 때 지역에서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쓸 수 있는 선거물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나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보드 두 개가 이어지면 테이블이 되고, 자전거에 스피커를 장착해서 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눠서 쓸 수 있겠죠.



이건 저희가 만든 사운드 시스템인데 별 기술은 없어요. 있는 스피커를 달았고 거기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위해 밖에 나가서 사용했었습니다. 이건 안산 세월호 관련해서 ‘순례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드는 것을 탐험하는 과정들이 저희들에게 다른 성장과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언메이크랩에서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모이자고 하면 잘 안 모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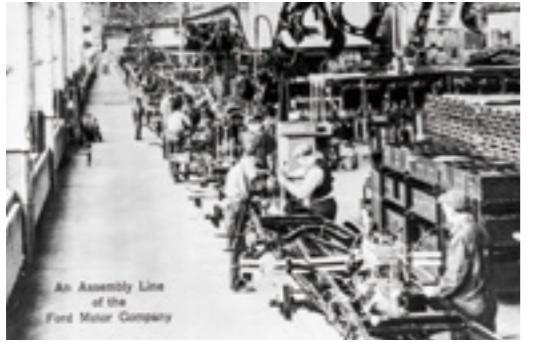
왜 제작문화가 사회적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가. 만드는 사람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왜 ‘메이커’로 다시 호명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주변에 메이커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찾아보면 이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IT문화나 인터넷문화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이미 외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모임들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오픈된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지금 왜 이런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는지 보면, 계속 듣는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창조경제나 사회적 경제가 지금의 제작문화, DIY 문화, 공유문화에 조응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안에서 배치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정부나 기업, 민간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만 봐도 개방이나 공유, 창의성과 같은 토대에서 정책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해커톤을 연다거나 시제품을 만드는 워크숍을 연다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창의재단에서 ‘무한상상실’이라는 것을 계속 열고 있어요, 역시 사회적 경제에서도 공유문화라는 것을 사회적인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다 관련된 키워드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안에 무엇인가 서로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기술사회로의 변화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보기술사회에 대한 감각이나 체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단적으로 ‘차’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 사진이 포드사의 모터 컴퍼니예요. 초창기에 이런 공장형 자동차를 생산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언론에서 노출되는 전기, 무인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되어가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모터는 정말 작아지고 모든 칩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현재 주목받는 자동차 회사는

IT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Maker Movement)' 제작 운동이라는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커 페어(Maker Faire)'라고 해서 도시마다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열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 '메이커 페어'라는 명의는 비용을 내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올해 열리면 네 번째 인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0여 명의 개인과 그룹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것 외에도 전자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작자는 많았지만 지금의 '메이커'라는 호칭에는 IT나 전자적인 것들, 즉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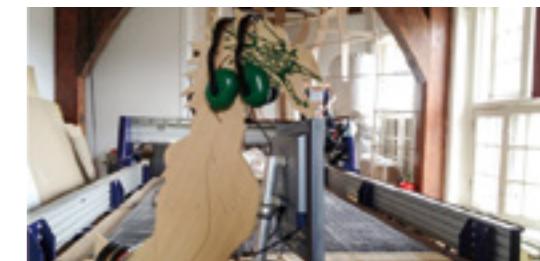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리서치 다음에 공간 조성이여서 공간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도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많이 아실 거 같아서 제가 봤던 공간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몇 가지를 얘기 드리면 해외에서 제작공간으로 '팹랩(FabLab)'이라는 게 있고, 해커스페이스(Hacker Space),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테크숍(Tech Shop) 이런 이름으로 공간들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테크숍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누구나 가서 멤버십이 되는 돈을 내면 자기가 원하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커스페이스는 풀뿌리 기술적인 접근을 해요. 그리고 IT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기술정치적인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한 팹랩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요. 역시 가입을 해야 공동의 명의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좋은 점은 서로 질문과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1년에 한 번씩 네트워크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세운상가에 가면 팹랩의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해커스페이스도 있었는데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최근 만들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모델들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커스 베이스(Makers' Base)라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건물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3D프린터기, 레이저 커팅기, 봉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실크스크린을 할 수 있는 프린트 공방이 있고요. 이런 곳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멤버십을 가지면 이 공간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투어프로그램 한 달에 몇 번씩 있고,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기술들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도예나 목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관련된 것도 있고 금속공예도 할 수 있어요. 제작 공간이 앞으로 한국에도 규모 있게 생긴다면 이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보시면 도구들도 용접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간이 멋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구들이 다 세련되어 보이지도 않아요. 일본의 장인들이 썼을 법한, 손때가 묻은 느낌들이 좋았어요.



팹랩 중에서 '와그 소사이어티(Waag Society)'라는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규모가 있어서 지금의 한국모델과는 거리가 있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고요, 이런 공간의 모습이나 외형은 똑같아요. 도구와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도구들이 잘 구획되어 있고요, '메이커 길드'라는 표현이 재밌어서 포스터를 찍었어요.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바이오적인 것이었어요.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이 하는 실험이 취미가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여기 발효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혹시 공짜폰(Fairphon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에서 기획한 제품과 물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페어폰'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서 개발이 되서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스마트폰에 콜탄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고릴라 서식지에서 가서 채취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해치게 되고,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이 안 돌아가잖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리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액정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건 수리가 가능한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그런 설계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팔릴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미리 구매자들을 모집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시판이 됐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물건이나 제품까지는 만들 수 없겠지만 저는 물건 하나가 갖는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를 할 수 있는 것,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것, 제작 물건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공정 과정에 프로세스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쁘띠 로케(Petit Rocke)라는 곳이 여러분들이랑 맞는 모델일 것 같은데요, 파리 도심에 있어요. 여기는 아름다운가게처럼 재활용가게예요. 수집한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리와 수선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워크숍을 열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여기 빈 공간에서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지역 참여 워크숍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를린에 있는 프린세신 가르텐(Princessin Garten)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도심에 있고, 완전히 공유지가 된 공원 같아요. 쓰레기장을 지역의 활동가들이 공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텃밭을 만든 거예요. 텃밭이라고 하지만 공원처럼 커요. 여기에서 500가지의 식물을 키우고 있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제작을 했고, 계절요리라든가 화덕, 자전거수리가 가능한 공방들이 컨테이너 안에 있었습니다. 지역 교육의 장이자 주민들의 쉼터예요. 공동의 부엌도 있고, 씨앗 도서관도 있고요.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모델삼아서 마포의 석유비축기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운영자가 올해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린세신 가르텐이 인상적인 점은 도시적 삶의 통합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제작공간이라는 말은 운영자들 스스로 하지 않지만,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서 좋았고요. 앞서 소개한

공간들과 다른 카테고리화되지 않는 새로운 제작 공간의 가능성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처럼 작은 공방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주워온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글로벌 트랜드 맥락에서 보는 메이커무브먼트

앞서 창조경제를 말씀드렸는데, 메이커무브먼트라는 글로벌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에 '창조경제'가 있다면, 일본에는 '신모노츠쿠리(새로운 물건 만들기)'가 있어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제작은 아니지만 제조업에서의 생산 공정의 혁신이나, 인력 중심의 생산에서 자동화된 생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통합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력 중심의 생산에서 자동화된다는 건 회사에서 노사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들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과 함께 혁신을'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인 재작년에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가 열렸어요. 이런 것들이 제작을 국가적인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Fixing the City'라고 해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건 아마 디트로이트에 관련된 사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업의 메인 도시였던 디트로이트가 임금의 문제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중심이 아니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시 재생의 방법으로 보고 있고, 테크숍의 모델이 생긴다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제조업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고요.

해커 윤리

제작문화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해커 윤리'예요. 블랙 해커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사회문제를 푸는 해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커들은 프로그래머이거나 엔지니어이기도 하죠.

이들은 자유롭고 사회적 부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개방적이어야 한다. 본인들이 짠 코드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어떤 보살핌이라거나 창조성이 해커 윤리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의 사회적 경제라든가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체를 정확히 볼 필요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메이커 커뮤니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테크셰비'라는 말은 기술을 좋아하면서 그걸 친화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로부터의 자유나 권위를 의심하면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사회적 이행기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제작문화·DIY 문화·오픈소스 문화가 조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 혁신의 솔루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창조경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국 선전에서 대규모 메이커 페어가 열렸는데, 드론이나 자기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자기가 만든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 제품화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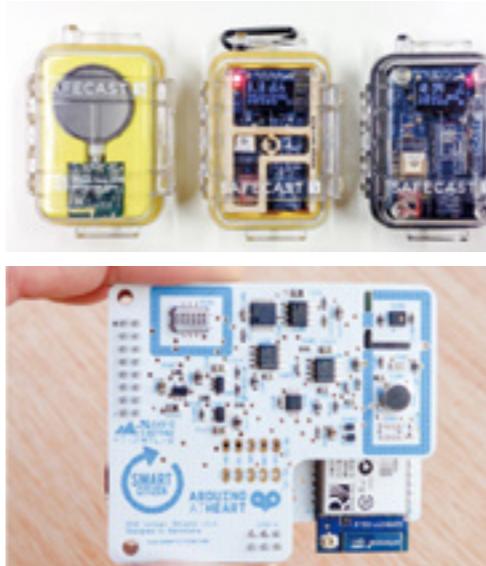
한국은 얼마 전에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렸었죠. 홍대 프리마켓 하는 분들이 거의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놀이터를 벗어나서 이런 페어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와 연관해서 여셨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웠다고 느낀 건 모두 제품화되고 상품화된 것들만 나왔더라고요. 만들다가 망친 것도 있고 팔리지 않을 것도 다양하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공간이 협소해서 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흐름도 있지만, 놀이터에서 시작한 모델들이 한국에서 이런 페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럼의 주제로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것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유통시키고, 그것이 제품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펀딩을 조성할 수 있을까가 화두였어요. 이런 흐름도 같이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연 선생님이 '해커톤'을 이야기하셔서 준비해왔는데, 혹시 이 지하철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인데요, 기업에서 제품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델이에요. 1박 2일 동안 몇십 명이 모여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 과제를 찾고, 제품을 만드는 건데 서울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센서를 만드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보는 관점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기술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겨요.

시민 기술(시빅 테크)

'시민 기술'은 '시빅 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가 방사능 지수를 오픈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측정 가능한 도구(센서)를 키트를 만들고 사용해서 서로 지수를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방사능 측정하고 그걸 공동의 지도 형태로 공개했어요. 방사능 센서는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제작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유하는 문화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공동체 협력의 기술

수리 카페, 모든지 고장 난 것들이 모여드는 카페, 리페어 카페 같은 이런 모델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수행 자체가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곳의 조직문화는 결국은 누구도 노동하지 않는 조직문화예요. '공동체 협력의 기술'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repaircafe.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모델이 앞서 소개한 해커스페이스나 팝업 보다 더 대중적인 제작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리티컬 메이킹(Critical Making)

'크리티컬 메이킹'은 레퍼런스가 되는 책이에요. 독립출판으로 만든 책이고요, 직접 해보는 생산적인 일이나 만들기가 얼마나 비판적인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지 흥보하는 책입니다.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

(Jogjakarta Transformaking 2015)

작년에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에 다녀왔었는데요, 족자카르타는 상업시설이 없고 버스도 거의 없고 주택도 허름한 도시예요. 비평적 제작축제에서는 상업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회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들기에서 '비평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발전 양식을 제작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최근 족자카르타에는 자본 투자가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어요. 도시 공간에 큰 빌딩을 짓는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저항하는 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족자카르타는 호텔이 아니다!" 같은 문구들이 있었어요.



비평적 제작 축제에서 포럼도 하지만 만든 것들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치유적인 것이나 바이오 제작이 많았어요. 이들에게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술해 보이지만 집을 적정기술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중요한 화두였고, 스쿠터 대신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족자카르타에서는 적정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스스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비평적 제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거나 농업, 도시에 관한 문제를 축제로 만들고, 사회적 문화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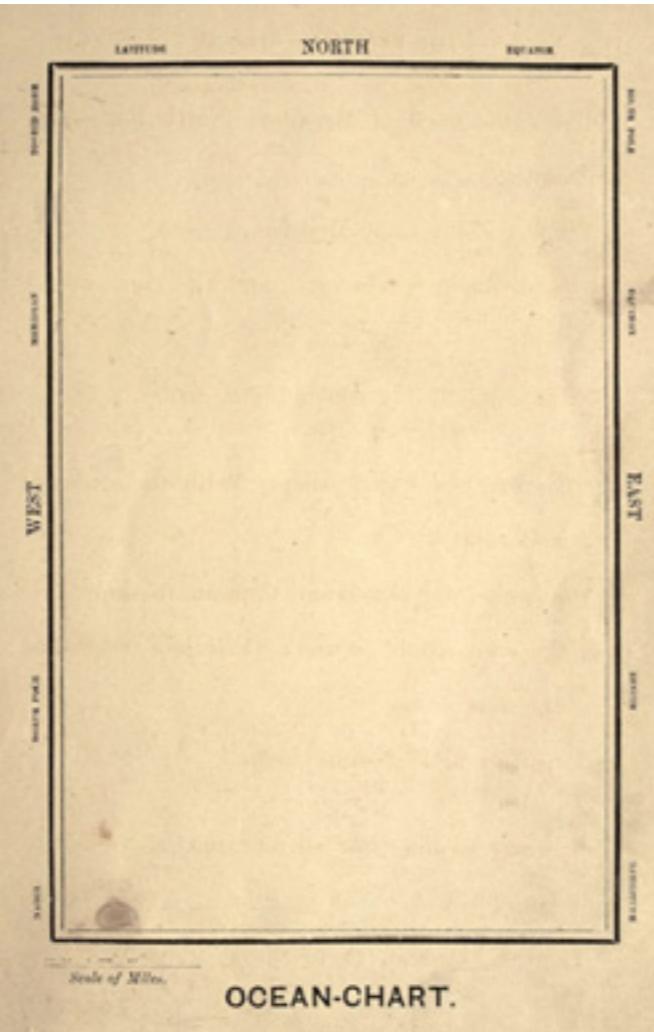


결론과 제언

“지금의 사회구조로 이 이행의 시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그 사이에서 제작기술문화가 어떤 역할을, 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메이커 문화가 받아들이고 소멸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바꾸고 있나?” 제작기술문화가 공간이나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사회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DIY화(군중외주화 DIY CITY)와 시민성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 지고 있나” 전반적으로 DIY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가 DIY화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문제를 시민들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료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새로운 시민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도를 소개할게요.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의 저자 루이스 캐럴의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Ocean-chart’라는 지도예요. 지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다는 것이 난센스죠. 선장과 선원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찾고 있었는데, 위도나 경도나 동선이 아무것도 없는 빈 지도를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길을 떠났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도 없는데 말이죠. 정해진 길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모험에 대한 지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활동이 이 지도 어딘가에 채워지고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것을 많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에도 많은 레퍼런스 있어서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신들의 맥락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리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적인 것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화재생 플랜

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일시: 2015. 11. 25.(1차) / 12. 9.(2차)

장소: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주제: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1차 참석자: 박세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진(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장),
안세웅(문화재생팀장), 조지연(문화재생팀)

2차 참석자: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찬웅(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
본부장),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본부장),
소홍삼(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임재춘(커뮤니티스튜디오104),
김종길(문예진흥실장), 안세웅(문화재생팀장),
조지연(문화재생팀)

배경

문화재생 전략을 위한 방향성 수립 필요

- 경기도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생 전략 부재
-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자생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문화재생팀 역할 부각

- 저성장 시대, 노령 인구 증대, 청년 실업률 증가, 서비스 산업의 대두, 지식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사회 핵심 동력인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원 정책의 제시 필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문화산업, 공공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
- 공동화 지역의 발생, 급격한 구성원의 변화, 다른 이익 집단의 출현과 갈등, 공공 공간의 감소 및 사적 이익에 대한 극대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문화 예술의 시각 안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의 필요

목적

경기도 지역문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3년간 문화적 재생을 위한 정책제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 정책 전략 수립



주제: 문화재생 개념과 방향 논의

이슈	요약
'문화적 재생' 개념	한국의 근대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중앙 단위 상부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하위 마을단위 소규모, 작은 마을공동체부터 활동이 시작되어야 함. 시작점이 문화재단도, 경기도도 아닌(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주민들의 발의과정이 취약한 구조임) 밀단의 의견수렴 방식을 도입해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 부여(중국의 로자호 제도),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물리적 재생이 아닌 가치의 재생임. 문화재생은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 문화가 갖는 가치를 찾는 정책이 필요. 사업의 형식을 문화적으로 개선하고 '커뮤니티 공동체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문화재생 동향	국토부, 문화부 등 부처 간에 협력하여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지역활성화에 문화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물리적 시설공급에 집중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 생기고 나서 문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비판의 대상이 됨. 지역에 기초한 예술인들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며 추진할 역량 있는 민간 운영 조직이 필요함. 도시 자체를 유기체로 보고 창조적으로 살림(일본의 경우 지방 창생).
대상범주 설정	도시재생 대상지는 쇠퇴지역, 인구 및 물리적 공간 감소 등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므로 문화재생 대상지 범주 설정이 필요함. 서구는 '문화가 경제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한다'는 기대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가 도시의 핵심이자 모든 사업의 추진 방식 자체라고 봄'(민주적임). 작은 단위 장소, 공간들이 삶을 재생시키고 단절되어 있던 삶을 회복함.
추진 과정, 주체	관주도의 문화재생이 이루어지면 안 됨. 시민과 관계 맺기를 하지 않으면 문화 개념의 명료성이 떨어짐.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합의하기 위해 설득하고 공통성(Common)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에게 필요함(문화적 재생과정). 지역 작은 단위에서 활동하는 주체적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중심으로 구축, 지속되기 위해서는 매개 전문 인력이 키워져야 함.
방향성	재생의 방향이 공동체성, 역동성, 창조성에서 지속성, 자생성으로 전환되지 않음. 공동체적 시민을 얘기하면서 뜻이 없음. 장소 중심으로 재생이 이루어지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광역, 기초, 정부 정책 제도에서 주민, 거리(공공), 문화 핵심에서 접근.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들이 설계되고 활동가,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중심으로 기반을 발굴해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5년 이상을 보고 설계해야 할 것임.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의 단점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만족도가 떨어짐. 해당 지역의 삶, 지역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행정적 성과 강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함.

문화재생 전략 연구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문화재생 개념과 방향성을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하였다. 경기도 문화정책 내에서 재단의 문화재생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과제 수립을 위해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전략 연구>를 (주)티팟 주관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생이 갖춰야 할 철학적 개념을 논의하고, 지역 의제를 모으고 전략과제를 추출하는 프로세스 '액션리서치 & 액션플래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1. 경기도 일반 현황

경기지역 문화재생의 배경, '뿔뿔이 경기도'

총 31개 시군구(시 28개, 군 3개)
총 인구수는 약 1,302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1 차지
30대~40대 젊은 층과 신규 유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동서 간 거리 130km, 남북 간 거리 155km, 면적 약 1만 172km²에 달함
북부/남부, 서울 인접/비인접, 신도시/구도시/농촌 간 경제·사회·문화적 격차

연구개요

리서치

배경

경기지역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재창조를 위한

문화재생 요청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서 문화재생에 대한 주목

목적

문화재생 흐름과 경기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문화재생 방향 제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

범위

시간적 범위: 2017년 – 2019년(3개년)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내 생활권역 중심으로 4지역 내외

내용적 범위: 경기지역 문화재생의 기본 콘셉트 도출,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정책 프로세스 제안, 재생이 필요한 지역별

자원과 의제·수요·역량 리서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중단기

정책 제안

문화재생 필요성

부유하는 지역에 돌봄의 관계 재생 필요

- 낮은 정주성: 1993–2014년 경기도 인구 순이동률은 연평균 2.0%로 타시도의 2~3배
- 서울의 베드타운: 2002–2016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139만 7,825명

갈등하는 지역에 협력의 계기 재생 필요

- 뉴타운 해제: 2007년 이후 뉴타운 지정된 14개시 23지구 중 3분의 2가 사업 해제되며 주민 갈등 초래
-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 2017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 2016년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 등 경기도 내 군사시설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

정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기 재생 필요

- 개발 제한: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 21%가 팔당특별대책지역, 12%가 개발제한구역
- 북부/농촌 문화 인프라 소외: 2014년 지역문화지수 조사 결과 북부의 포천, 파주, 의정부와 농촌인 양주, 이천 등은 지수가 낮은 '하'급으로 나타남

단절된 지역에 연속적 흐름 재생 필요

- 1인 가구 증가: 2016년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 가구. 지난해 대비 10만 가구 증가로 전국 최고
- 고령화와 세대 단절: 경기도 인구 중 10%가 65세 이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지수 100 이상

1.2. 관련 계획 분석

행복한 삶터를 꾸리는 문화적 계획에 대한 주목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2016년 경기도 도정계획
비전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목표 하나 되는 경기	공유적 시장경제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일자리 창출
•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통일 기반 미래 도시
•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		도민과 상생협력
전략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동반 성장, 공정·공유 경제
문화예술 창작의 발신지 조성	지역문화 격차 해소	기반 마련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재생	지역문화 발굴 창조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따복 공동체 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신복지
		북부 지역 산업 기반 조성, 관광 거점 육성
		스마트한 행정시스템

1.3. 관련 정책 분석

지역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정책	내용	초점	한계 및 시사점
도시재생	낙후·쇠퇴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정비. ⇒ 주민 참여-협치 프로세스 강화	하드웨어 사업을 통한 경관 조성과 시설 정비	하향식 사업 구조와 물리적 목표 설정으로 실질적 주민 참여의 어려움.
따복 공동체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결합. ⇒ 지역사회 민간 주도 복지 체계 수립 시도	개별 사업 대상이 아닌 제도 구축에 중점	포괄적 사업 범위로 인한 목표의 모호함.
생활문화진흥	주민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예술 소외 지역의 향유 기회 확충. ⇒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생산하는 계기 마련	일상 속 문화 향유·활동 확대	개별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는 지역문화 기반 마련의 어려움.

1.4. 문화재생의 법적 근거

문화 기본권, 문화 다양성, 문화 복지, 문화 민주주의 등의 기본 가치를 바탕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 기본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목적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고유 문화 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 국가 실현.	문화 가치와 위상을 높임. 문화로 삶의 질 향상, 국가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
원칙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문화가 민주국가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 문화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다함.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문화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집단과 사회 내에서 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모든 사회 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 모든 사회 구성원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함.

1.5. 경기문화재단 사업 흐름

일상성으로부터 지역성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변화

	2014년	2015년	2016년
정책 기조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문화복지	일상 속 문화 생산을 촉진하는 생활문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주요 사업	전문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공단·오지 등 소외 지역에 커뮤니티 아트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생활문화동호회 육성 지원, 생활문화사랑방 조성. 북부지역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특화 사업. 청년 문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구축. 북부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활동 지원, 문화 일자리 창출.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운영. 경기만 문화창조벨트, 에코뮤지엄, 선감학원 사업 등 지역 디자인.
시사점	장르로서의 문화예술과 전문적 문화예술인 지원에 집중. 소외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아트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음.	문화를 소비·향유할 뿐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시민문화 활성화에 주목.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과 공동체의 경험이 만들어졌으나 자생적 구조로 이어지기 어려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주목. 삶의 터전인 지역을 스스로 문화적으로 일구는 시민문화력 성숙의 과정.

2. 경기지역 문화재생 정책 틀 설정

2.1. 1차 전문가 워크숍: 철학

일시: 2016년 7월 15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제: 문화재생의 개념과 철학

참석자: 조주연 (주)티팟 대표(진행),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발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차재근 문화체육관광부

(재)생활문화진흥원 이사(토론)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개념과 사람 중심 관점 회복

문화재생은 어떤 정책? ‘문화’를 ‘삶의 방식, 가치, 환경’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문화재생은 문화예술을 결합한 도시재생이나, 지역 특성화 사업과 차별화.

문화재생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환경을 회복하는 일

- 도시와 커뮤니티의 문화적 유산 + 사회변동에 대응 +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주체 형성.
- 근대적 도시계획에 대항하는 패러다임 전환 사업이자 성찰적 도시계획.

어떻게 추진할까?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 생산, 연결하면서 성장하고, 지역 계획까지 해낼 수 있는 사업 설계

- 재생의 핵심은 주체의 생명력. 주체들이 주도해 문화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중요.
-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적 방식으로 지역의 공동체와 역사를 되살리는 활동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 충분한 시간과 실험의 기회를 보장하고 협치를 강화.

2.2.1. 2차 전문가 워크숍: 과제

일시: 2016년 7월 19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제: 경기도 문화재생의 과제

참석자: 조주연 (주)티팟 대표(진행),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발제) 윤현옥 AEC비빗펌

대표,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토론)

경기도의 낮은 정주성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거점, 지역성 재생의 과제

왜 경기도에

문화재생이 필요한가?

정주의식이 낮은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는 공동체 재생

- 인구 이동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서울 통근 인구가 많음.
- 미군 기지, 공단 지역 등에 역사적 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가 많음.
- 이해 관계를 넘어선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부여, 액션 플랜 과제.

공동 활동의 거점 조성, 지역별 자생의 근거가 될 지역성 발굴 과제

- 공동체를 지속시켜주는 장소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경제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지역성이 필요.
- 장소는 공동체의 경험에 축적, 발현, 창발되는 플랫폼.
-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려내는 재생은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조건이 존재되어 있는 경기도에 특히 유효.

2.2.2. 유형화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기간: 2016년 7월 29일 – 8월 7일

채널: 온라인 설문조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포털,

13개 기초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내용: 경기지역 문화재생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로

고려할 지역 특성(문화자원/문화재생 수요)

경기지역 문화재생 정책에 대한 의견

기간: 2016년 7월 27일 – 8월 10일

대상: 31개 시군 도시계획·재생, 문화예술 관련 부서

1부서씩 총 62개 부서 팀장급 담당자

내용: 관할 구역 내 경기지역 문화재생 대상지 추천



2.3. 3차 전문가 워크숍: 유형화

일시: 2016년 8월 19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제: 경기지역 문화재생 대상지 유형화

참석자: 조주연 (㈜티팟 대표(진행), 김윤환

뚝도기획단 단장(발제)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

박찬웅 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장,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토론)



문화재생 유형

어떻게 나눌까?

경기지역 문화재생 과제에 대응하는 유형화가 필요

- 공동체 형성, 거점 조성, 지역성 개발의 과제.

지역별 자원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가 필요

-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북돋아, 지역의 가능성과 고유성,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

열려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유형화

- 유형은 단순화하되 사업 방식이 다양하게 나오도록 틀 짜는 전략이 중요.
-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플랫폼'으로서의 유형에 대한 접근 필요.

2.4. 4차 전문가 워크숍: 프로세스

일시: 2016년 9월 19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제: 경기지역 문화재생 정책 프로세스

참석자: 조주연 (㈜티팟 대표(진행), 윤수진

성남논골작은도서관 관장(발제) 안정희

마을과사회적경제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정기현

봄날예술인협동조합 대표,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토론)



지역 주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프로세스

지역별 사업

어떻게 추진할까?

주민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휴먼웨어 중심 과정

- 의지를 가진 주민 리더들이 가장 중요.
- 주민 역량 강화와 소통 등 휴먼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을 결합하는 구조가 효과적.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 가능성을 높일 필요

- 지역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지속가능.

경기도 기반

어떻게 마련할까?

도민에게 주도권을 주는 공모 프로세스 적극 활용

- 공모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별 동력과 숨은 문화자원을 끌어내고, 문화재생 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킴.

경기도 내 문화재생 인력 성장–활동의 선순환 고리 마련

- 도민의 전문적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 지원.
- 지역문화자원을 살려 지역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화.

3. 실행전략 연구

3.1. 현장 리서치

일시: 2016년 8월 25일 – 9월 21일,
지역별로 문화반상회·현장 탐사 1회씩
대상: 오산시 남촌동, 양평군 지평리, 파주시 용주골,
부천시 도당동
내용: 지역별 수요와 자원 정리, SWOT 분석,
지역별 문화 주체 현황과 역량 확인

3.2. 주민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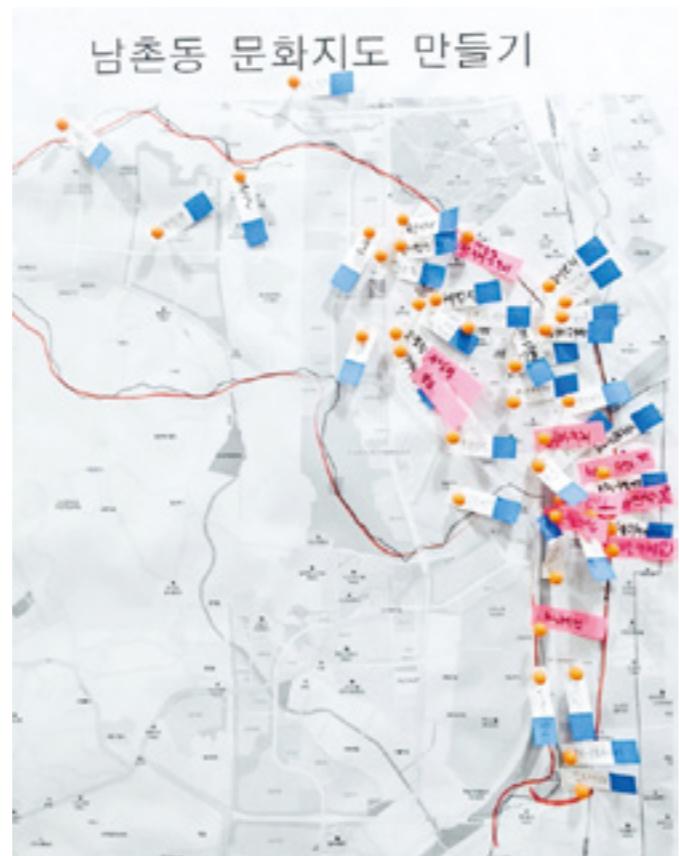
일시: 오픈테이블 2016년 10월 10일, 상상워크숍
2016년 10월 18일
장소: 오산시청 물향기회의실
참가자: 남촌동 주민 20여 명
내용: 문화재생 의제·과제 발굴/사업·로드맵 기획

지역별 수요·자원 매핑으로 사업 단계 판단 기준 마련





오픈 테이블: 문화 주체 네트워킹



문화자원 매핑



문화재생 과제 도출

<여정이, 청년들의 행복한 일상>	
1. 여정이	여정이
2. 청년들의 일상	여정이
3. 여정이	여정이
4. 여정이	여정이
5. 여정이	여정이
6. 여정이	여정이
7. 여정이	여정이
8. 여정이	여정이
9. 여정이	여정이
10. 여정이	여정이
11. 여정이	여정이
12. 여정이	여정이
13. 여정이	여정이
14. 여정이	여정이
15. 여정이	여정이
16. 여정이	여정이
17. 여정이	여정이
18. 여정이	여정이
19. 여정이	여정이
20. 여정이	여정이
21. 여정이	여정이
22. 여정이	여정이
23. 여정이	여정이
24. 여정이	여정이
25. 여정이	여정이
26. 여정이	여정이
27. 여정이	여정이
28. 여정이	여정이
29. 여정이	여정이
30. 여정이	여정이
31. 여정이	여정이
32. 여정이	여정이
33. 여정이	여정이
34. 여정이	여정이
35. 여정이	여정이
36. 여정이	여정이
37. 여정이	여정이
38. 여정이	여정이
39. 여정이	여정이
40. 여정이	여정이
41. 여정이	여정이
42. 여정이	여정이
43. 여정이	여정이
44. 여정이	여정이
45. 여정이	여정이
46. 여정이	여정이
47. 여정이	여정이
48. 여정이	여정이
49. 여정이	여정이
50. 여정이	여정이
51. 여정이	여정이
52. 여정이	여정이
53. 여정이	여정이
54. 여정이	여정이
55. 여정이	여정이
56. 여정이	여정이
57. 여정이	여정이
58. 여정이	여정이
59. 여정이	여정이
60. 여정이	여정이
61. 여정이	여정이
62. 여정이	여정이
63. 여정이	여정이
64. 여정이	여정이
65. 여정이	여정이
66. 여정이	여정이
67. 여정이	여정이
68. 여정이	여정이
69. 여정이	여정이
70. 여정이	여정이
71. 여정이	여정이
72. 여정이	여정이
73. 여정이	여정이
74. 여정이	여정이
75. 여정이	여정이
76. 여정이	여정이
77. 여정이	여정이
78. 여정이	여정이
79. 여정이	여정이
80. 여정이	여정이
81. 여정이	여정이
82. 여정이	여정이
83. 여정이	여정이
84. 여정이	여정이
85. 여정이	여정이
86. 여정이	여정이
87. 여정이	여정이
88. 여정이	여정이
89. 여정이	여정이
90. 여정이	여정이
91. 여정이	여정이
92. 여정이	여정이
93. 여정이	여정이
94. 여정이	여정이
95. 여정이	여정이
96. 여정이	여정이
97. 여정이	여정이
98. 여정이	여정이
99. 여정이	여정이
100. 여정이	여정이



상상 워크숍, 소셜 픽션



사업·로드맵 기획

3.2. 주민 워크숍

일시: 오픈테이블 2016년 10월 10일, 상상워크숍

2016년 10월 18일

장소: 오산시청 물향기회의실

참가자: 남촌동 주민 20여 명

내용: 문화재생 의제·과제 발굴/사업·로드맵 기획

3.3. 공유포럼: 숙의공론

일시: 2016년 11월 7일

장소: 경기문화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 gap

주제: 경기지역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전략 연구

결과 공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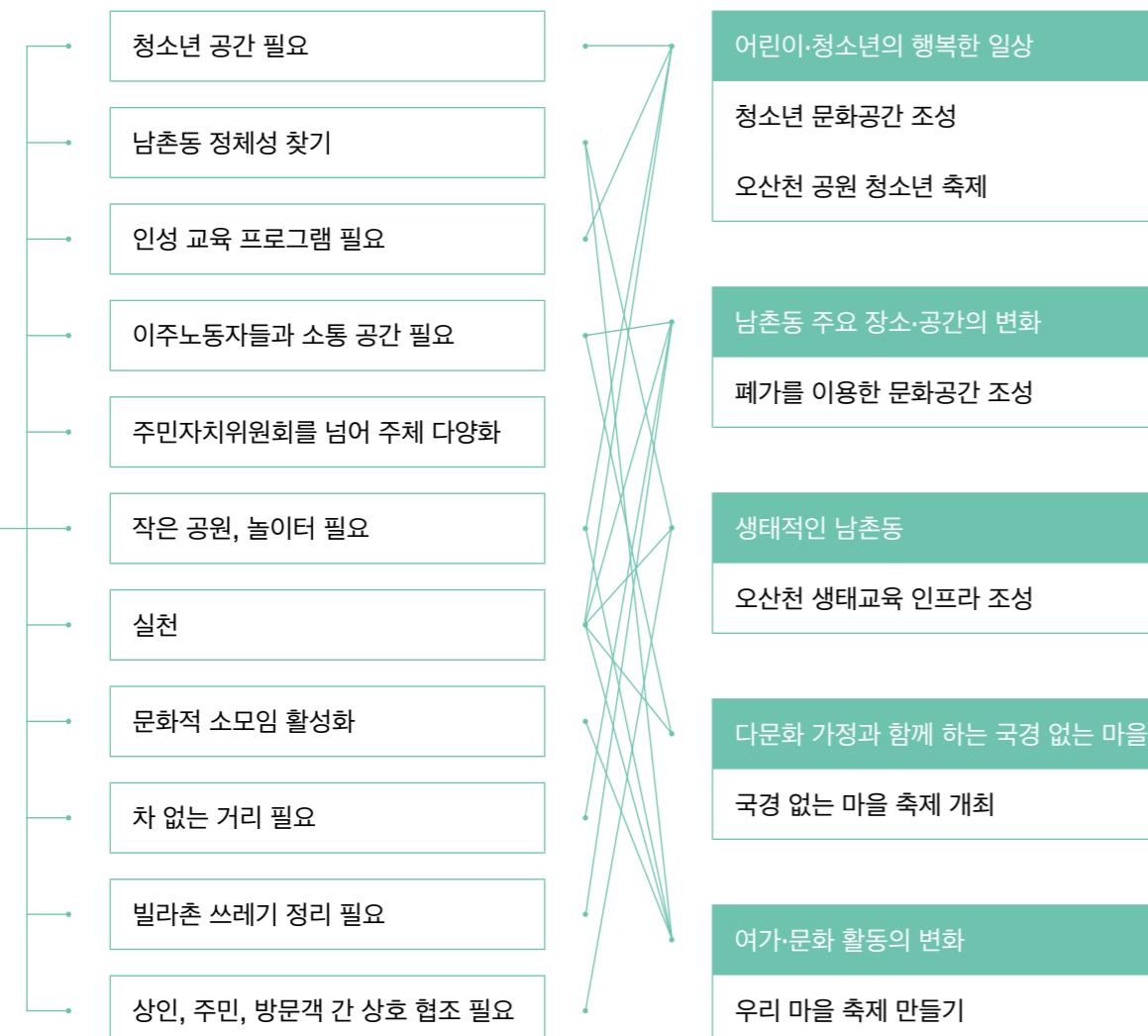


문화자원 발굴

문화재생 의제 도출

사업 기획

132개의
문화자원



문화재생 정책 연구 결과의 현실 적용 가능성 논의

정책 실행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역사회와 주체의 의지를 확인하는 리서치 과정

- 지역사회에서 문화재생을 이해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필요.
- 역량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지역 문화 주체들 찾기.

보완되어야 할

프로세스?

사업 실패에 대응하는 전략

- 사업 실행시 전문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청년·문화예술인 간 갈등에 대응.
- 유형별 예상되는 실패에 대한 준비.

사업 대상지 주변부에 대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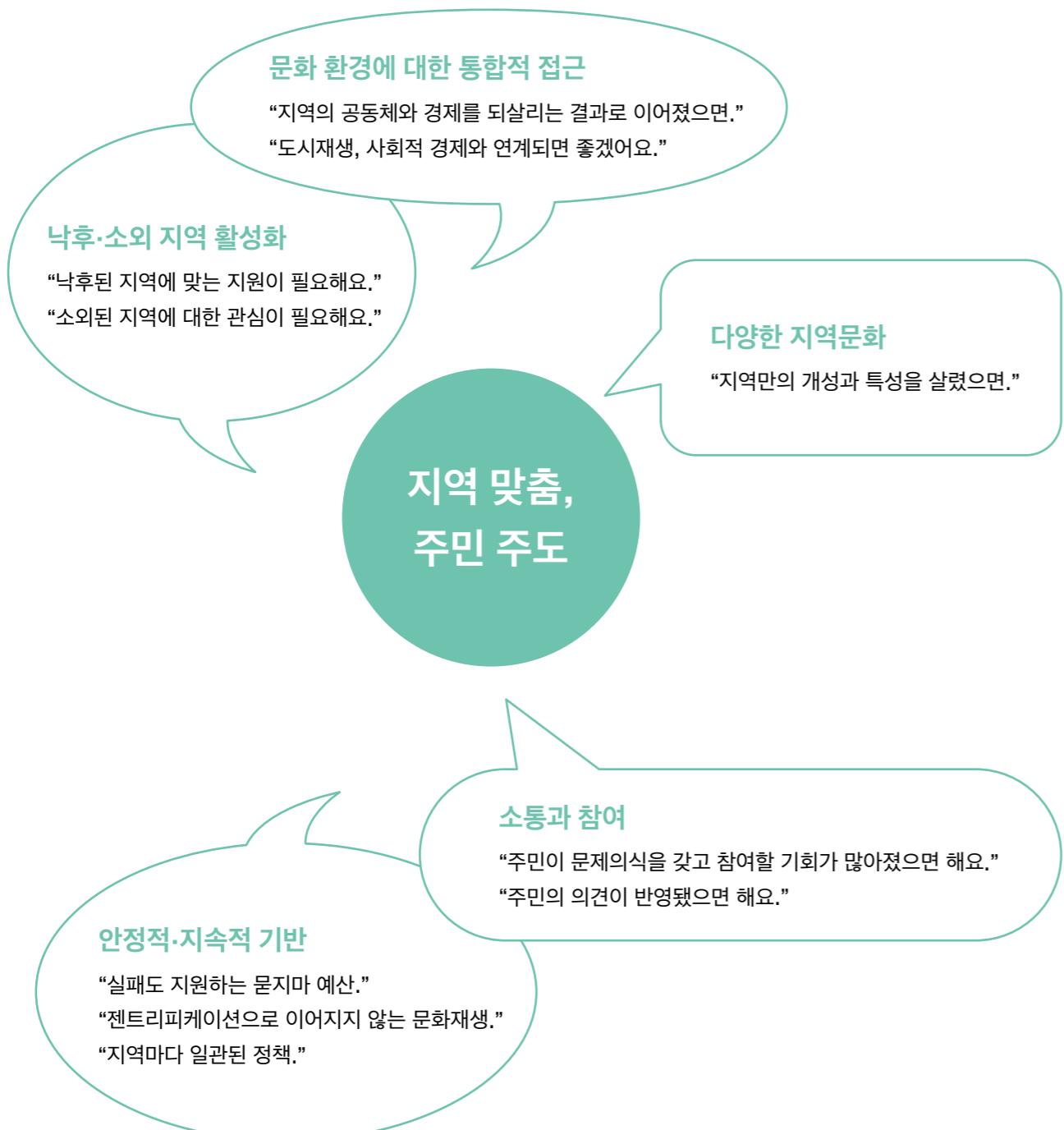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설계.
- ‘커먼즈’(공유지, 공유적 삶)에 대한 논의 반영.

지원 정책 통합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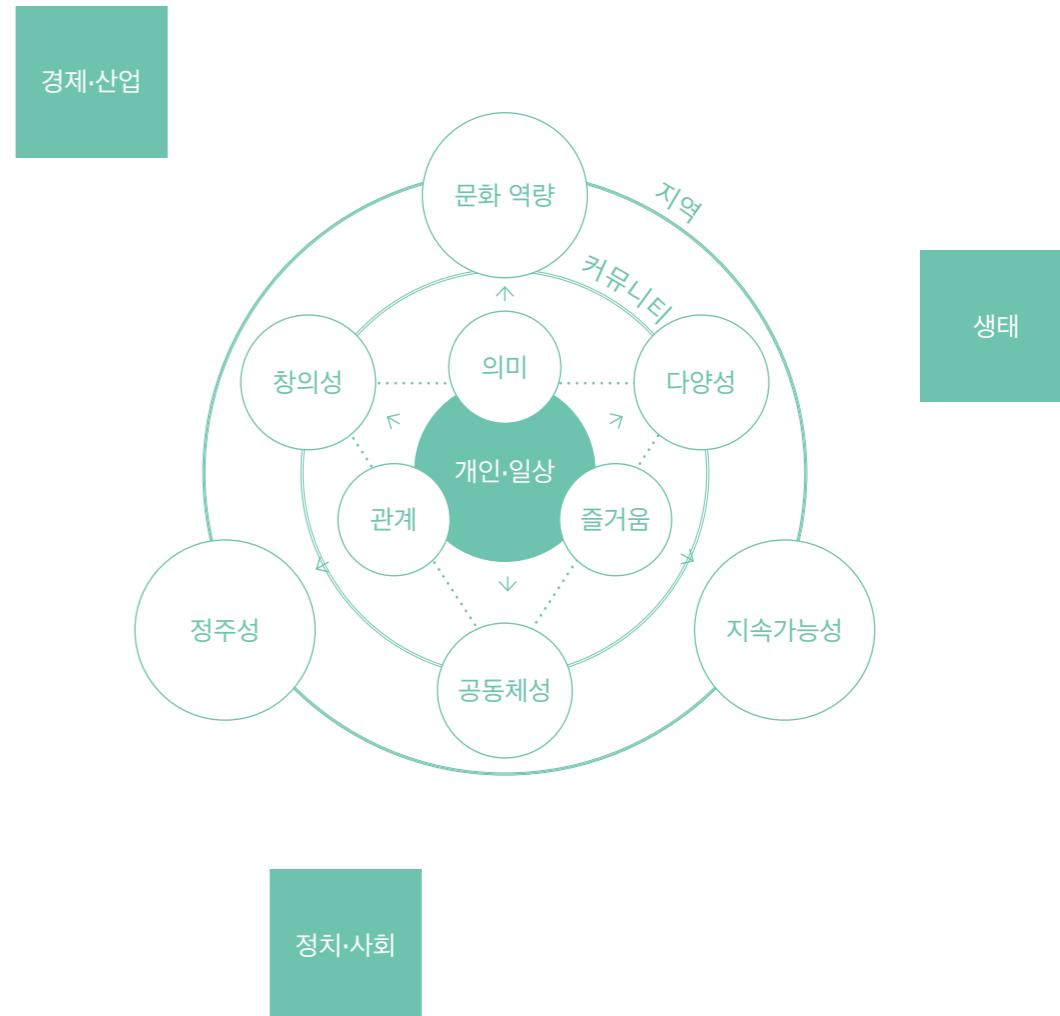
-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채널을 통합하는 설계.

1. 정책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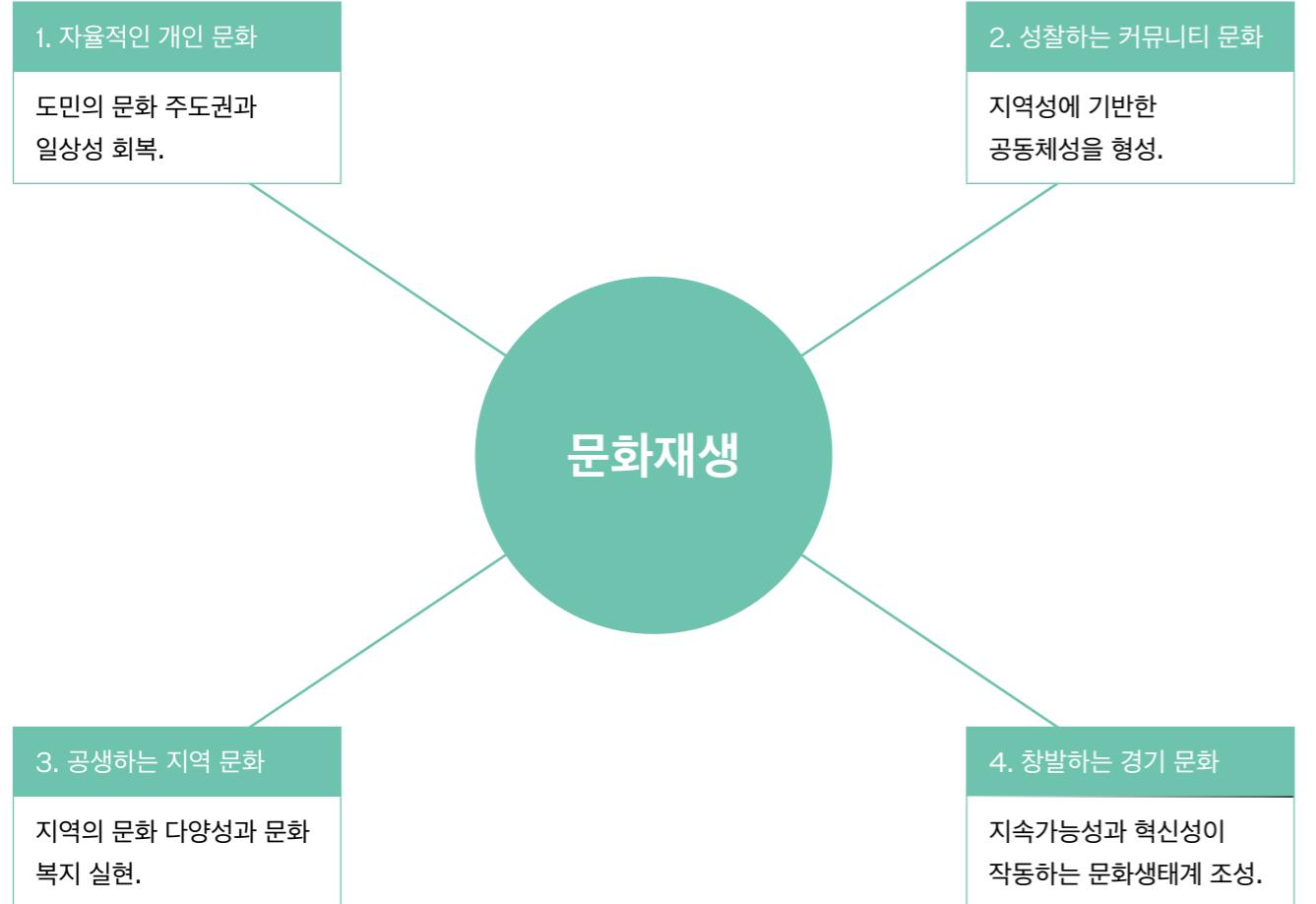
경기지역 문화재생에 대한 같은 생각



개인으로부터, 커뮤니티와 지역 문화생태계로 확장되는 문화적 경로의 설계와 적용



1. 경기도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주도권 회복.
 2. 경기도민 문화역량 강화로 자생적·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형성.
 3. 경기도 지역사회의 문화생태계 경작을 통한 지역문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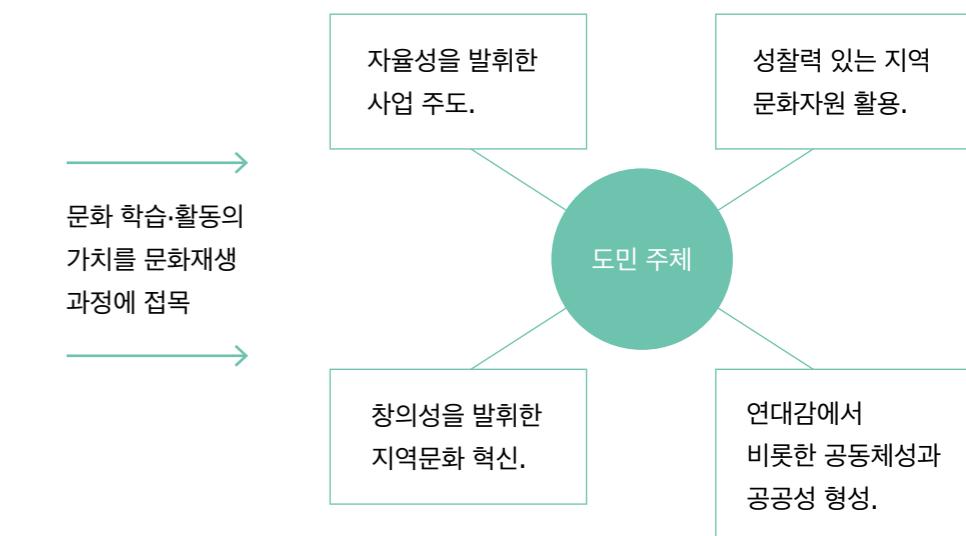


2. 정책비전 체계: 정성적 목표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문화적 프로세스로 도민의 문화 역량 성장

“창의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유능한 인간이라 느끼고 자율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며 타인·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키우는 활동들을 보장한다.”

풀 클라드 창의문화교육회 대표,
'Creative thinking: the role
of creativity in our education
system'(2012) 중



3. 로드맵

개인의 자율성이 경기도의 창발성으로 확장되는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1차연도(2017년)	2차연도(2018년)	3차연도(2019년)	4차연도(2020년-)
목표	정책 도입기: 유형별 시범 사업 추진 및 주체 양성 커리큘럼 도입	정책 공감기: 31개 시군별 문화재생 주체 및 의제 발굴	정책 확산기: 지역별 사업 모델화 및 주체 활동 기반 체계화	정책 안정기: 지역별 사업 자립화 및 사업 평가·환류 체계 마련
중점 과제	자율적인 개인 문화 문화주도권, 일상성 회복.	성찰하는 커뮤니티 문화 지역성 기반, 공동체성 형성.	공생하는 지역 문화 문화 복지, 문화 다양성 실현.	창발하는 경기 문화 지속가능, 혁신 여건 조성.
지역 사업	유형별 지역 사업 공모를 시군별 문화자원 발굴 과정으로 진행.	주체 양성 과정과 지역별 사업 연계 본격화.	유형별 사업 모델 구축 및 자립 방안 모색.	자립 모델 운영. 현장 경험 반영 유형 및 사업 프로세스 재조정.
기반 사업	주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사업 도입. 풀뿌리 문화사업 인큐베이팅.	도민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강화 및 아카이브 사업 본격화.	아카이브 체계화 및 정책 사용법 매뉴얼 제작. 커뮤니티 자산화.	커뮤니티 자산화 지원 현장 경험 정책에 반영하는 상설 채널 조성. 풀뿌리 문화사업 모델 개발. 프랜차이즈 지원.

* 상세한 액션전략은 『경기지역 문화재생 전략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

배경 및 목적

문화재생팀 신설 이후, 도내 문화재생 활동에 대한 모집단 규모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수요자 입장의 문화재생 전략 수립 필요
지역사회에 기반 한 공동체 활동이 주민자치, 복지, 도시, 지역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음. 이에 그런 공동체 활동이 갖는 문화적 역할과 동기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 분석을 통해 경기지역의 문화재생 환경을 DB로 구축하고자 함
공동체 철학이 반영된 문화재생 기획과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내 풀뿌리 추진 주체의 규모와 수요를 파악, 정책에 반영코자 함

조사 내용

조사 기간: 2016. 9. – 2016. 12.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남부권역 중심(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용인)

내용적 범위

- 활동의 형태별, 지역별 조사.
- 지역사회에 기반 한 개인 및 단체 활동 조사.
* 문화재생 활동 형태를 세부화, 재생사업 및 마케팅 활동 등

조사 방법:

인접검색, 공공기관 데이터 조사, 현장 조사, 인터뷰 등

1단계: 규모 조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모집단 1차 조사 및 DB 구축, 통합DB에서 활성화 된 단체 중심으로 추출, 심층자료 2차 조사.

2단계: 수요 조사

심층자료를 토대로 개별 심층인터뷰 대상 추출 및 인터뷰 조사.

조사원: 수원 박승현(공존공간 대표), 부천 김현석(공동주거 모두들), 성남 장미나·전율(문화숨 재미), 안양 송용남·정혜림(알텍), 안산·오산 신성은·백지원(문화광부), 용인 주조양(공유공간 플랫폼 OO)

인터뷰어: 김진주(시각예술가), 안태호(문화비평가), 은정아(EBS 방송작가), 민하늬(미술평론가), 이정화(독립 에디터)

규모조사 결과

추진 과정

1단계 규모 조사: 2016. 9. – 11.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모집단 1차 조사

- 오리엔테이션: 9. 12. 경기문화재단
- 1차 워크숍: 10. 19. 살롱드공공 / 10. 21. 공존공간
- 2차 워크숍: 11. 16. 공존공간

2단계 수요 조사: 2016. 11 – 12월

심층자료를 토대로 기초 인터뷰조사

- TIG: 12. 23. 살롱드공공

결과 요약

규모 조사: 총 521건 / 수요 조사: 총 110건

단위: 건

구분	용인·이천·여주	수원	성남·광주·하남	안산·오산·화성	부천·시흥	안양·군포·과천·의왕
규모조사건수	111	58	81	96	96	79
수요조사건수	20	17	20	22	20	11

활동분류

지역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문화 일반	예술 활동	문화 예술	문화 동호회	취미	교육	복지	(전통) 예술	협동 조합	기타
용인	-	-	-	-	-	-	-	-	-	-	-	-
수원	2	19	18	1	-	2	-	3	2	-	8	
성남·광주·하남	24	5	9	31	-	1	1	4	-	-	6	
안산·오산·화성	34	38	1	3	2	3	4	3	-	1	1	
부천	22	23	11	14	-	7	4	3	-	-	12	
안양·군포·과천·의왕	12	-	6	1	-	-	29	3	9	-	15	

조직형태

지역	협동조합		(인증·예비)		마을관련	
	일반	사회적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마을 모임	마을 기업
용인	37	8	12	13	9	6
수원	13	6	6	-	-	-
성남·광주·하남	9	1	1	4	-	2
안산·오산·화성	3	-	3	-	28	8
부천	5	1	16 (부천형)	-	-	4
안양·군포·과천·의왕	35		3	20		3

비영리(민간) 단체	임의 단체	기업·영리 단체	기타
-	-		시군자활기업
10	-	7	사단법인 등
4	15	14	공유기업, 사단법인, 지역거점 공간(식물원, 작은도서관 등) 등
5	-	3	청년모임(14), 동호회, 네트워크, 예술단체 등
-	4	7	동호회, 동아리,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마을잡지, 라디오 등
1		1	회원제모임, 지역단체, 고유단체 등

공간소유: 전 조사지역 70% 이상 공간 소유

구분	용인	수원	성남·광주·하남	안산·오산·화성	부천	안양·군포·과천·의왕
공간 소유률	88%	93%	83%	76%	70%	85%

설립년도: 2010–2016년도 집중

구분	용인	수원	성남·광주·하남	안산·오산·화성	부천	안양·군포·과천·의왕
설립년도	2010–2015	1994–2016	1994–2016	2003–2016	1994–2016	2007–2015

활동유형 분류

대분류

- 공동체 활동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경제적 이윤을 위해 연대한 것이 목적일 경우
- 교육
- 복지: 소외계층 자립지원, 기부 등
- 문화일반: 출판, 폴리마켓, 축제 등

취미동호회(생활문화): 레저, 자전거 등

예술활동: 장르 중심의 문학, 연극, 무용, 국악, 음악, 건축, 미술(문예진흥법)

기타: 상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분류

- 공간 운영(공방, 카페, 도서관 등 지역공간)
 체험(농촌체험, 녹색체험, 마을체험, 문화체험 등)
 상품제조A(판매 목적의 상품제조: 로컬푸드, 지역특산품 활용 상품)
 상품제조B(커뮤니티활동 기반 상품제조: 술 제조, 마을밥상)
 시민교육(캠페인, 멘토링, 활동교육 등)
 예술교육(장르 예술에서 교육활동을 확장)
 생태(도시텃밭, 양봉 등)
 폴리마켓
 축제
 언론(방송, 신문, 출판)
 봉사활동
 자립지원
 기부활동
 예술(문학, 연극, 무용, 국악, 음악, 건축, 미술 등)
 기타: 상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요 조사 결과

지역: 용인, 이천, 여주

조사원: 주조양(예비사회적기업)

(주)공유공간플랫폼공공)

조사 방법: 검색, 자료수집, 대면, 설문, 전화, 방문

지역 여건에 대한 대략적 언급:

문화적 활력도, 특징 등

용인시는 동쪽으로 이천시, 서쪽으로 수원시·의왕시·화성시, 남쪽으로 평택시·안성시, 북쪽은 성남시·광주시와 접해 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3개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다. 시청 소재지는 처인구 삼가동이고, 1읍 6면 24행정동을 관할하는 도농복합시다. (처인구: 농촌 지역 / 기흥구·수지구: 도시지역). 용인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좁은 분지들로 이루어진 지형이어서 일핵(一核) 구조가 아니라 도심이 여러 곳에 분산된 다핵도시(多核都市)이며, 기흥구는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기흥과 구성으로,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수지와 죽전으로 생활권이 구분된다. 기흥구, 수지구를 중심으로 문화적 활력도가 높고 처인구는 농촌형 문화가 남아 있다.

조사 대상 선별 기준, 추천 사유

조사대상은 지역에서 문화재생, 지역재생, 마을공동체운동 등 지역이나 공간 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 조직, 개인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들을 추천하였다. 또한 아직 제도권의 인증,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대상들도 추가하였다.

1차 조사 100여 팀에 대한 분석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점을 고려,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처인구의 활동가, 활동팀, 활동조직 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했다. 도시지역 조사 대상은 문화재생, 마을축제, 마을네트워크 등 최근 한국사회와 도시, 공동체 운동의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들이 많았다. 반면, 농촌지역 조사 대상은 축산, 로컬푸드 등 농촌형 활동과 마을 노인들의 복지자원의 지원과 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정책 수요 진단

수지구, 기흥구 등 도시지역 활동가와 활동팀들은 정보, 경험 등이 많은 편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기획들이 실행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적정할것으로 생각된다. 처인구 같은 농촌의 경우, 문화재생·도시재생의 수요와 필요는 많으나 활동가, 활동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활동가양성과 지역운동조직 마련을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부천, 시흥

조사원: 김현석, 현병택, 김이민경(모두들)

조사 방법: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면담

부천 지역은 예전 공장지대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었던 지역이고 그 멤버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 공간,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천 시에서도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좁은 행정구획으로 인한 특징이 겹쳐져 전체적인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등 활력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극심한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특징처럼 보인다.

대상은 지역 내 활동을 주된 목표로 삼는 팀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개의 팀은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의지,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정도를 기준으로 추천 팀을 선정하였다.

주로 전문적인 문화예술 역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 많았다. 이는 초기에 팀을 운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의 열정에 의하거나, 기금 혹은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수요, 그것을 만들어내고 제공할 의지가 있는 인력, 구심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천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필요한 점, 운영상의 장애물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 대상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드물게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팀은 모두 종교 재단 혹은 개인적인 기부라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을 직접 지급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 혹은 사업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 안산, 오산, 화성

조사원: 신성은, 백지원(문화광부)

조사 방법: 대면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안산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생긴 도시답게 동네 곳곳에서 주민 주도의 사업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집중 피해 지역(고잔2동, 와동, 선부3동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생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면서 문화재생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 중에 시화호 환경 운동을 필두로 했던 시민운동의 뿌리가 남아 있어 다양한 문화재생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최근에는 청년 활동 늘어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례도 꽤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조사는 안산문화재단,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큐브, 청담, 평생학습관 등 문화재생활동으로 보이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참여 단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단체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층 인터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밖에 심층 인터뷰를 요청한 단체들에게 주변 단체를 소개 받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단체의 경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인건비 지원이나,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세무 및 회계 교육, 공간 지원 등이다. 그밖에 문화재생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는 보다 세심한 지원과 사업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예술가와 마을을 매칭해주는 것이나, 지역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작업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여는 것 등이다.

오산과 화성 문화재생활동의 양상은 여러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관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체가 나서서 활동을 조직하고 관계 기관이나 기타 단체를 찾아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막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시작되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는 지역 사회적 경제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나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주로 지역 문화재단과 이루어지는 관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1차 조사에 선정된 단체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적경제센터의 분석자료를 통해 활동의 적극성이나, 활동내용,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여 선정하였고 일부 단체는 SNS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거나 지역신문에 활동이 포착된 단체 혹은 미리 선정된 단체의 네트워크 안에 있어 연결된 단체이다. 이하 지역의

정책적 수요는 다섯 갈래로 나뉘는데, 사업 초기 혹은 지속 과정에서의 경제적 지원과 공간 지원, 지역단체 간의 네트워킹 형성, 관과의 소통문제 해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컨설팅이 그 내용이다. 화성은 서울의 약 2.5배가 되는 큰 면적의 도시로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동서부의 생활모습이 상이하며 경제, 문화적 행태 또한 차이가 크다고 포착된다. 동탄, 병점 등 신도시, 학원가를 기점으로 하는 동부 권은 아동,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나, 그 공급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크지 못하다. 문화예술 주체 중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심층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과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접계된 다섯 팀 정도이며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충족하지 못하여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오산은 면적이 작고 평균연령이 젊은 도시로 최근 오색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평균연령이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대의 기본적 문화 예술 수요가 그 공급이 많은 인근 대도시 수원을 통해 충족되고 있고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실질적 젊은 층은 지역 공장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인구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할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은 곳이다. 대부분의 단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젊은 층을 도시에 유입시키는 것이며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임에 비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성남

조사원: 장미나, 전율(문화숨)

조사 방법: 온라인 리서치, 콜링, 대면인터뷰

성남지역은 전체가 이주도시로 형성된 지역이다. 본도심의 경우 1960년대 용산,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택 도시로 형성되었다면 분당과 판교는 신도심, 고소득층을 위한 도시로 형성되었다. 광주와 하남의 경우 생태도시, 도시 언저리의 시골마을로 전원주택 형태가 강해 한 구심점에 문화적 요소들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하되, 공간과의 거리가 타 지역보다 넓고, 공공영역에서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 지역에 대한 솔루션, 공간에 대한 요구보다는 프로그램 활동 중심의 요구들이 많다. 다양한 시민단체,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러한 단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옮겨가거나 단체의 경제적 자립, 지속적 활동을 위해 여러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조직 형태로 활동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재생 활동에 있어 기준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공간을 보유하거나 거점 공간이 있는, 공동체적 활동을 이루고 있는 단체 및 모임을 조사해야 한다.

검색 기준 주요 키워드: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작은도서관, 공방, 문화예술단체, 지역기자들을 통해 성남의 경우 크게 4가지 형태로 분석하였다.

1. 이주도시이기 때문에 본도심 또는 신도심에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어 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지역재생에 관련한 단체
2. NGO,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등 시민단체 형식, 또는 활동경험을 가지고 지역재생에 연결되는 경우
3. 재원의 집중, 시기적 흐름에 따라 일반 예술기관이었다가 지역, 공동체와 연결된 예술교육이나 지역재생으로 활동이 확장된 경우
4. 공동체,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으로 활동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단체

지역: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조사원: 송용남, 정혜림(알텍)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및 전화 인터뷰

지역 여건에 대한 대략적 언급: 안양, 군포는 지역관련 예술가, 협동조합, 공방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지역 공공기관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가능하여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의왕, 과천의 경우 타 지역의 단체에 비해 정보 및 지역 연계의 접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단체가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조사대상 선별 기준, 추천 사유: 단체 홈페이지, 연락처, 언론 홍보 등을 조사 내용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중 실제 단체의 연락처로 개별 연락을 하여 단체 대표자 혹은 실무자와 통화 하였으며 향후 경기문화재단의 다양한 교육과 포럼에 참가 의지를 가진 단체에 한하여 추천을 하였다.

1차 조사 100여 팀에 대한 분석: 4개의 지역에서 문화예술, 생태교육, 전통문화, 메이커 교육 관련한 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체는 20개 미만으로 파악된다. 단체와 인터뷰 결과 지역공공기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은 설립 초기 프로젝트를 하기위한 실무교육 및 정보 제공을 받길 원한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1. 단체 예산 집행 실무 교육
2.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일방적, 행정 중심에 탈피)
3. 지원사업 선정시 예산 편성에 있어 단체 실정에 맞는 예산 지원 요청 함
4. 공공 기관과 연계된 신규 사업을 위한 사전 세미나 및 포럼
5. 단체 홍보 지원

지역: 수원

조사원: 박승현, 김민호, 장혜주(공존공간)

조사 방법: SNS, 수원문화재단 문화지도,
포털사이트검색, 인적조사

수원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문화정책 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리서치의 취지에 부합한 단체는 비교적 적었다.

수원의 단체들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문화와 결합이 된 재생사례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4.02.06.)에 따르면 2013년 지역문화지표수화를 통한 비교분석에서 수원시가

지역문화지수 1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문화적 역량을 빌려와 내부적으로 역량이 축적된 사례가 부족하다.

그 예로 지속가능성면에서도 지원 예산이 종료 시 사업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시장 사업, 마을르네상스사업)

따라서 수원은 문화재생에 관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와 니즈가 높다고 사료된다.

1차 조사는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거나 문화적 역량이 내재된 팀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결과 공유 워크숍

일시: 2017년 1월 5일(목) 15:00 – 18:00

장소: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내용: 문화재생 활동 현황 규모조사·수요조사 결과
공유 및 심층조사 논의

참석자

- 조사원: 장미나(재미), 김현석(모두들),
송용남(알텍), 신성은·백지원(문화광부),
주조양(공유공간플랫폼공공), 박승현(공존공간)
- 인터뷰어: 김진주(시각작가), 안태호(前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은정아(EBS 방송작가),
민하늬(미술평론가), 이정화(독립 에디터)
- 경기문화재단: 김종길(문화재생팀장), 조지연, 이진실,
장희주(문화재생팀)

수원지역 박승현

[지역적 특성]

기준 모임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만, 새로운 모임들이 생산되지 않고 침체되었다고 생각한다.
획일화되었던 활동 형태에서 다양한 활동형태로 진행되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행궁동 지역 내 카페나 유관 활동을 진행하는 곳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정책적 수요 및 제안]

'살만한지?' 아직은 살만하지 못하며 재원방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드물다.
정책이 실행된다면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조직 구성, 역할 등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홍대앞문화예술 사례참고).
문화재단이나 정책에서, 문화재생이라는 정책적 큰 흐름에서 참여를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참여를 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참여의 응답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천팀]

PQR: 마을 내에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고민과 스몰비지니스에 관심이 많다. 동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며 이것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마돈나 사회적기업: 대추골시장에서 시장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구성원들이 축제, 문화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단순 사업진행이 아니라 마을사람과의 소통, 교류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며 시장 내에서 조합을 통해 영리활동의 수익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적인 것이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가 날 듯하다.

예술공동체 술래: 타지에서 온 팀으로, 자체 역량은 뛰어나지만 지역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 협업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지역 장미나

[조사 개요]

공적자원이 투입된 유명 단체는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조사기준은 물리적 지원이든 정서적 내용이든 공동체 형성 여부, 거점공간의 소유 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요구로 형성된 단체
- 기존 활동경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생과 연결된 경우
- 재원이 지역재생이나 공동체활동쪽으로 집중되다보니, 일반 예술활동을 하다가 영역을 확장한 경우
- 지역재생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경우

[수요조사 선정 기준]

-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외곽으로 오게 되는 경우
- 시민사회영역에서 오래된 경우
- 문화예술단체로 있다가 지역재생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확장해 나간 경우
- 개인 예술가인데 공공예술, 지역재생 활동을 참여한 경우
- 개인취미활동, 생활문화로 시작했으나 의도치 않게 지역재생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공동체로 엮인 경우
- 지역재생에 대한 요구와 관점이 있는 경우
- 공공재원 없이 자력으로 성장한 단체
- 지역재생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겪었다가 극복한 단체

[지역적 특성]

도시 전체가 새로 구성된 신도시로, 지역적 환경에 의해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높다. 원도심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수요가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는 하드웨어는 있지만 공동체가 결핍되어 있기에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책적 수요 및 제안]

대체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 활동이 오래되었을수록 인건비 욕구, 신생단체일수록 네트워크 욕구가 높았다.

[추천팀]

꿈너비 공동체: 분당지역에서 새롭게 조성되었고 이사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팀이다. 지역문제로 인해 주민갈등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문제가 문화활동과 결합이 되어 해소가 되는 경우이다. 금빛평생마을학습공동체: 본도심에서 오래된 공동체 (90년대 설립)로 거의 공적지원을 받지 않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지원받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한 케이스로 자력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팀이다.

안산, 오산지역 신성은, 백지원

[조사개요]

[안산] 기존 마을만들기를 하다가 재생활동을 그만둔 단체, 다른 네트워크는 없지만 문화재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 중심으로 조사했다.

[지역적 특성]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생긴 도시이다. 안산문화재단,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센터, 세월호 관련 희망마을만들기 등 마을지원사업이 많아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안산에 청년공간이 생겨 청년들의 활동을 알아보았다.

[오산화성]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로 젊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문화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얘기가 많으나 주변도시(서울, 수원 등)로 유출되기에 청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정책적 수요 및 제안]

[안산] 간접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 특히 청년단체의 경우 사업컨설팅보다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세무회계 등 실질적 교육), 실질적 운영교육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지원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문화재생 활동이 지역성과 밀착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역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고민까지 가는 데는 부족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느꼈다.

[오산화성] 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네트워크가 없으니 홍보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신도시 개발로 문화적 수혜도 차이가 있었다.

[추천팀]

화성열린문화터: 지역문화재단과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술가로 지역에 와서 기획을 하고 싶어 한다. 지역에서 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한다.

리드어스: 개인사업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단체. 중고책판매수익금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재원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듯하며 중고책 판매 유통망에 대한 고민, 지역과 연계한 판매방법을 고민하였다.

부천지역 김현석

[지역적 특징]

과거 공장지대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역 내에 많이 남아 있고 활동가는 그대로인데 조직형태는 변경되는 형태이다(80~90년대 노동운동, 90년대 협의체, 2000년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이고 참여도가 높다. 최근 부천 흐름은 기존 세대의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

부천은 문화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규모가 작아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는 않다.

[정책적 수요 및 제안]

문화에 대한 수요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수요는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수요들이 많았다(재원이 많은 개인 또는 종교단체 예외). 따라서, 상품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추천팀]

카페5km: 일반 카페이며, 카페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Toinz: 공방운영하며 상품 만드는 젊은 팀. 지역 활동에 관심은 있는데 지역네트워크가 없어서 활동 어렵다.

전통연희단 끼: 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함. 리더가 부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안양지역 김용남 송용남

[지역적 특성]

안양군포지역에 단체들이 월등히 많았다(지역문화재단의 존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과천과 의왕은 지역특색이 있는 공동육아, 생태관련 활동들이 많다. 평촌지역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고 교육관련 단체가 많다.

[정책적 수요 및 제안]

초기설립단체는 지원사업 정보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본인 단체와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고 이해도가 낮아서 신청 어렵다.

⇒ 초기설립단체 위주의 지원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 이후,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집행관리,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설계를 잘 못해서 지원사업 신청 못하는 경우 발생이 있었다.

⇒ 소규모 그룹핑하여 지역 내 소규모 스터디를 진행이 요구된다.

단체 브랜딩이나 홍보가 어렵다는 의견. 기관과 연계한 사업홍보 욕구는 있으나 어렵다. 지원사업 선정 후 기관과 연계한 홍보 확대 필요하다(단순홍보 아닌).

매출관련, 문화교육이나 공방을 통한 소량의 문화상품 제작



오리엔테이션

단체들은 지역 내 소규모 활동(체험학습교육이나 박람회 참여 등)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관과 연계해서 더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

수요조사 11개 단체가 사실은 기업인데, 스스로를 단체로 규정하여 문화예술활동으로 규정하였다.

⇒ 지원사업에 제한되어 한정짓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실제 매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공방은 유통 관련, 기관이 사전협의하여 대량생산, 유통할 수 있는 파트너 연계 지원 필요하다.

[추천팀]

군포백자협동조합: 군포에서 발견된 백자를 통해 도자기 제작, 판매, 교육을 진행하였다. 군포시, 군포문화재단과의 연결 어려움을 겪었다.

협동조합디자인가우디: 기존 미술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원장들이 모임이다. 전국단위 조합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상 교육하여 추후 대학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와 연결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경기문화재단 포럼 등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나 접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승터: 학부모들이 구성된 인문학 독서모임으로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며 독서토론을 하고 육아문제 함께 고민한다. 향후 인문학강연 등으로 연결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더 브랜딩이 되면 좋은 단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심층조사 의견

안태호(부천): 부천 내에서 잘 알려지 않은 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총조사 대상은 카페 5km(의견일치)와 토인조와 가치소극장을 고민 중이다.

은정아(용인): 용인은 지역특색이 수지의 경우 고가 아파트, 처인구는 농촌, 기흥은 복합적임. 용인의 특색을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자생하고 있다.

용인의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기동의 그냥가게(고기동네트워크), 처인구의 농촌문화를 반영하는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체 4가지 맥락에서 작성 계획 중이다.

이정화(안산, 오산, 화성): 안산의 경우는 마을공동체가 상당히 발달하였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감골, 일동 등). 조사결과에서, 최근 청년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안산 일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단체, 특히 청담에 집중하여 리드어스, 식물공방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산 오색시장을 중심으로 한 살롱드 공공의 형성 과정이 오산의 오색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확장해나가는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차 워크숍 I



2차 워크숍 II

생각이다.

김진주(수원, 안양): 타 지역 사례는 사회적, 역사적 형성과정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출하여 각 사례에 대입을 하고 각 사례에서 이슈를 가지고 찾으려 한다. 이와 달리 수원과 안양은 경제이슈가 앞서 들어왔다. 이것이 수원과 안양을 잘 드러내는 특성인가 생각한다.

수원, 안양 조사원이 경제이슈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지역적 특성, 쟁점, 현안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경제영역에서 하나, 지역에서 하나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은 문화적으로 대두되는 공동체 이슈는 서수원과 행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활동단체도 분리되어 있다(복수원 동수원은 거의 부재). 서수원 문화공동체 최근 1~2년 안에 재단, 도에서 사업진행하는데 자생적으로 시작한 활동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단의 장려사업을 통해 발굴된 경우가 많다(벌터마을 생태 커뮤니티나 생활협동조합 정도 존재하나 기타 지역은 창작소를 통해 발굴되기도 함).

행궁동은 공존공간과 피큐알을 묶어서 공동인터뷰를 한다거나, 사진축제의 경우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내용을 민간영역에서 풀어내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안양은 조사자 단체를 통해 설계자와 실행자가 나뉘어져 있는 구조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듯하다.

각 사례마다 조사된 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문거리가 많을 듯하며 기 인터뷰 내용을 심층인터뷰하여 정리하여 작성할

잘하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추동력이 있는 곳은 제외(가우디)하고 우승터같은 경우, 안양 내 작은 도서관 단체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도 파악 가능 할 듯하다.

안양, 의왕 군포의 사회적 이슈는 환경인데, 의왕이면 담쟁이협동조합을 고민 중이지만 환경적 이슈가 얼마나 변별력이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

민하늬(성남): 선정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담고자 각 공간이 지닌 시공간적 맥락이나 역사 등을 잘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보편적 문제(세대별 문제 등)를 성남지역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두 번째 성남시가 지닌 지역적 특성(지역형성-커뮤니티형성)이 드러나는 공동체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동체를 선정할 때, 활동이나 먹고사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단체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문제-극복 등에 대한 이야기는 신생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소외되고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단체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 금빛평생마을학습공동체: 서울 강제 철거 이주민 중심으로 형성. 도시가 만들어 지며 부딪힌 문제 –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동체라, 공간의 특성을 담을 수 있을 듯함. 오랜 단체라 운영체계 등도 파악 가능하다.
- 일하는 학교: 자립적, 생활적 측면 고려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기술을 활용한 기업,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식 논의 가능할 듯하다.
- 오픈스페이스블락스: 홍대 앞 현상(예술가 거주로 문화 확산 및 근지역 이동)을 성남 지역에서 이끌어 나가는 포부나 목표, 문제설정들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듯하다.
- 꿈너비공동체: 저소득층 집중 주거지역의 지역적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을 듯하며 해결,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 가능할 듯하다.

인터뷰 결과

결과 공유 워크숍을 통해 조사원과 인터뷰어는 인터뷰이 12팀을 선별하여 2017년 2월~3월 동안 취재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우리 동네 〈펍(PUB)〉이 발간되었다.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Pub
우리 동네 P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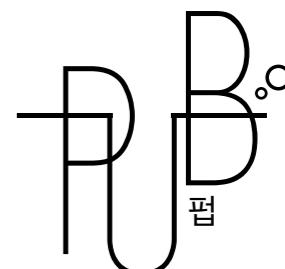


사진: 스팅카페 디자인법 제공



펍
공간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
2017.5



3차 워크숍

‘창생공간’(Maker Space)은 당초 친교와 교류의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는 ‘문화 사랑방 조성 사업’이었다. 활동 지원이 아닌 공간 지원이라는 점, 적지 않은 예산 규모였지만 차기년도 예산 편성을 보장받지 못할 특별예산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조사가 필요했다.

프로그램 지원에서 밀천 지원으로

우선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경험과 한계, 아쉬움, 후속 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3년차 사업으로 접어든 ‘내일을 여는 책방’(시흥·양평·남양주·수원·광주·배영환 작가, 2009-2011)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았을 때도,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우수 사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이어졌을 만큼, 책방은 손꼽히는 사업이라고 평할 수 있다. 이런 데에는 작은 책방이 필요로 했던 지역 기반의 운영 주체가 있었다. 이 운영 주체는 첫째 동기가 간절했고, 둘째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이 수월했다. 몇 명의 운영 주체가 공적 책임감을 발휘한 덕에 지금까지 그 운영에 활기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최근까지도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기부하겠다는

조지연(지역문화팀)

제안 전화가 걸려올 정도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임시 구조물이 갖는 취약점은 해가 거듭될수록 부과되는 수리비와 관리비가 관건이었다. 주민들의 자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재단이 3년 동안 지원한 이후에는 자체 조달해야 하는 지원 사업 구조로 인해 최근 ‘나와우 책방’은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회비에 의존하거나 마을 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녹녹지 않은 재원 부담이 그 원인이다. 작은 공간에서 공공 활동을 위한 최소의 운영 경비를 어떻게 총당해야 할까?

아주 최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웃문화협동조합’이 사용하던 일부 공간을 빼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무척 안타까웠다. 2011년에 청년기획자 송주희가 주축이 되어 창립했던 ‘이문협’은 경기도 첫 문화예술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문화생산자들의 연대와 문화적 소비가 지역 안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처음으로 시도한 당찬 그룹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커뮤니티 사이트 만들기’, 2012-2013, 사업 진행 때 송주희 기획자는 수원시와 함께 ‘되살림발전소 조성’을 제안하여 선정된 이후 ‘오가닉페스티벌’ 등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줄곧 해 나갔다. 그러나 커뮤니티 활동이

갖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 지원금은 활동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문화를 통한 공공 활동으로 전혀 수익적인 모델을 가져올 수 없다. 반면 간접 경비, 예를 들어 임대료, 시제품 개발비, 자산 취득, 공간 리모델링비와 같은 경비는 수혜자 부담의 성격으로 보고 지원금 사용에서 제한적이다. 문화기획자(예술가와 주민 포함)들이 지역 안에서 자립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활동’ 지원에서 ‘기반 구축’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기금을 통해 예술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예술 발표와 향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어떤 거점을 통해 재확산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운영자에게는 든든한 활동 밀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지속가능한 상에 대해 주시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활동은 안정적인 재원 하에 자발적인 운영 주체가 있을 때에만 자체 동력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영역의 주체들

‘논아트 밭아트’(남양주 진접읍, 박찬국 예술감독, 2011-2012)와 ‘장흥삼색프로젝트’(양주 장흥, 조두호 기획, 2012)를 진행한 적이 있다. 두 프로젝트의 총괄자는 모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었다. 이때만 해도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적 관계 형성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험적이며 이슈 측면으로 접근한 것도 없지 않다. ‘논아트 밭아트’는 광릉수목원 인근 오래된 마을에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마을의 공동 텃밭을 일구는 과정을 통해 회복한다는 ‘아트’ 프로젝트였다. ‘장흥삼색프로젝트’는 양주 장흥에 있는 폐역사 장흥역을 사진관, 다방, 마을전시관으로 재생하여 마을의 활력을 찾고자 한 ‘재생’에 강조점이 있던 사업이었다. 문제는 기획자는 있고 자발적인 지역 운영주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두 사업 모두 기초자치단체와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자체와 재단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자극받은 일부 지역 주체들이 이어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슈를 만드는 역할을 했지만 주민 주체가 이어갈 정도로 참여를 끌어내기 버거웠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지속가능함은 지역 기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공적 책임감을 가질 운영 주체에 대한 발굴과 견증 역시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써 밀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세운상가나 석유비축기지 등 공공 공간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을 운영할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 공간의 운영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대행으로 해야 한다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제안을 많이 접하곤 한다. 돌아보면

경기도 내 공공 공간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뽑기 어렵다.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창생공간’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공 공간의 확보였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 공간이라면 임차료도 발생하지 않고 운영자가 재원 부담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을 민간단체에게 사용허가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은, 민간에게 제공하는 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공 공간은 공공 ‘기관’만이 운영해야 하는 건데 시민의 뜻이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만큼 운영단체에 대한 신뢰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창생공간’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자립 기반 마련 보다 우선시되는 전제는 가치, 지향점이 공공적이며 공적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할 그룹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

한편으로는 자립 목적 자체를 상당히 사적인 영역으로 보는 일부 의견도 있다. ‘먹고사는 문제’는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적 특성을 가진 경제적 문제가 개입하게 되면 공적 영역에서는 위축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등장한 ‘사회적인 것’, 동료와 함께 산다는 것, 공동생활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원래 사적 문제였던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관심을 획득하면서 ‘사회적인 것’이 된 것이다. 지역 사회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문화적 실천을 하는 사회적인 활동은 곧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창생공간’ 4팀과 파일럿 프로그램 2팀 중에서 연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팀은 4팀이다. 한 팀은 사업비 부족과 방향성 문제로 포기하였고 다른 한 팀은 바로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보였다. 마을회관이라는 공적인 영역 안에서 목공방, 농장과 연계하며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지역으로 환원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동 협력자를 찾아보기 어려워 운영자 단독의 작업장이자 체험 학습장에 그쳤다. 다른 방면으로 제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만 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만들기의 문화적 동력

‘창생공간’의 핵심 매개는 만들기이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사회에 대한 성찰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문화적 실천인 것이다. 또한 만들기야말로 참여와 실천에 대한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평택 안정리, 아트캠프, 2013-2015)에서 수행했던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가 ·창생공간·의 모티프이기도 하다. 3년 동안 수많은 주민 간담회를 해가며 사업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시니어 치어리딩, 골목木공방, 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 ‘마을이 꽃이다’, 마토예술제, 코스톱플레이페스티벌 등 문화적 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내적 동력을 갖고 확장한 것은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이다. 당시 아트캠프 1층 카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카페 운영을 하기보다는 미군 가족, 다문화 가정과의 쿠킹 클래스를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수업 외의 시간에는 거의 인적이 드문 공간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겸 카페(라이브러리) 기능에 제작소와 예술상점을 결합시켜 여러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재봉틀을 놓고 작가와 지역 장인이 재봉틀을 돌리며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여성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지역에서 세탁소와 양장점을 폐업한 유휴인력이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마을의 풍경이 담긴 예술상품이 제작되자 지켜보던 주민들의 호기심이 발동한 셈이다. 그 이후로 ‘수상한 의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환경 개선이 이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해진 멤버십은 ‘나’에서 ‘지역사회’로 관심이 옮겨간 결과이다.

이러한 메이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즈음 자연스레 ‘메이커 무브먼트’를 접하게 되었다. 팝랩, 테크숍, 해커스페이스, 리빙랩에서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여건을 보면 테크 DIY보다 수리 DIY, 즉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메이커 공간을 갖추는 것이 ‘경기스럽다’고 생각했다. 문화재생의 정신이 되는 시작점은 문화재단도, 경기도도 아닌, 지역 주체들의 발의여야 한다. 이들의 공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물리적 재생이 아닌 가치의 재생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창생공간·은 커뮤니티 교류 기능보다는 제작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메이킹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달리 ‘공유’라는 개념이 더 확장되었는데, ·창생공간·은 제작 도구를 갖추고 작업장과 쇼룸, 카페, 라이브러리 등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된 시민과 작업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다.

주된 기능은 지역 내에 숨겨진 장인과 작업자 발굴을 통해 제작 문화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6년에 오픈한 공간은 발효, 적정기술(로켓스토브), 재봉, 업사이클링, 천체관측(망원경 조립) 등 지역성이 반영된 특화된 제작기술 콘셉트를 갖고 안양8동, 성남 중원3동,

수원 서둔동 등 구도심 지역과, 남양주 삼봉리와 수동면 등 농촌지역에서 각각 오픈하였다. 각 공간을 중심으로 발효기친, 수리수리마수리(리폼, 업사이클링), 시니어 대상 제작 워크숍, 공간별 특화된 시제품 제작, 마켓 등을 추진하며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에 기반 한 작업자 발굴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재생 쇼케이스 전시와 제작 워크숍에도 참여하며 제작 문화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창생공간·은 지속적으로 공동체 협력 기술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확대하는 자발적인 제작문화 운동이 새로운 문화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적 비전

작년에 발표된 «경기지역 문화재생 전략 연구»(경기문화재단, 2016)에 따르면 정주의식이 낮은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로 ‘공동체 재생’을 꼽고 있다. 공동체를 지속시켜주는 ‘장소’와 ‘네트워크’,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역별 자생의 근거가 될 ‘지역성(지역 자원)’ 발굴은 공동의 가치와 활동을 지속시켜주는 재생의 핵심 실행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거점공간에 대한 수요는 최근 주민자치, 복지, 도시재생, 지역경제, 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팽창하는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증가 추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단체들이 수시로 모여 활동을 구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형 매장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출발한 ·창생공간·은 각 분야에서 지원되는 개별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아닌 자립 기반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3년~5년에 걸쳐 단계별 육성을 하는 공간 지원이다. 1단계에서는 주체와 대상 공간의 발굴로 역량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지역문화 주체를 발굴하여 다종의 커뮤니티들과 개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운영 방향을 설계하며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지역 멤버십 확보와 공간 활용도를 심화시키며 3단계에는 자립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재원 확보, 판로 개척을 통해 자생적 활동이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

컨설팅 지원과 네트워크 확장을 돋는다. 메이커 라이브러리† 사례처럼 ·창생공간·에서 생성한 개인의 기술이 곧 공동의 기술로 공유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생성한 기술은 창생라이브러리에 축적되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간 생성과 지역문화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주민들의 문화적 전유는 바로 이 지역의 공간에서 생겨나며 여기서 바로 장소의 정체성(Place Identity)이 생겨난다. 도시공간의 계획에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장소 정체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공간 속에서의 삶과 체험을 통해 생성되는 도시문화에 다시 큰 영향을 주게 된다(박지연·이병준). 작은 단위 지역 문화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생성된 공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생공간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활동 공간의 필요, 지역 또는 커뮤니티와 소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시행된 본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 아직 공공 공간을 개방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여전히 공공 공간이 부재하다. 공공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공공 영역이 존재하고 가능함을 뜻한다. 공공 공간이 개방될 때 비로써 성장하는 지역문화를 기대할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근간이기도 한 ‘지역’에 대한 성찰이 ‘개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창생공간

지역 – 공간 – 기술

경기문화재단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 지역문화팀장

김종길 문화사업팀장(구 문화재생팀장)

조지연 지역문화팀

창생공간

이모저모 도모소

이미화, 한선경, CPE, 이주영

생활적정랩 빼꼼

임재춘, 한문화, 이윤지, 조현대, 이유림,
백소민, 김선우

재미

이현식, 전혜주, 이병철, 이현주, 김진숙
(협력 성남문화재단, 신흥3동 주민센터)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임성빈, 물골안공동체

천문공작실

이동희, 삼봉리 이장, 팜777 목공방 회원
(협력 실학박물관)

곧바로 책,방

최서영, 최주영, 출판학교 학생

자문

이선철(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윤현옥(비빔꽃 대표), 조재원(건축가),
스튜디오O1 대표), 송수연(언메이크랩),
안태호(문화비평가), 이정화(독립 에디터),
박현(경기청년문화창작소 공사PM)

그래픽디자인 둘셋디자인

영상 복고

문화재생 활동단체 조사

조사원

수원 박승현(공존공간 대표),
부천 김현석(공동주거 모두들),
성남 장미나, 전율(문화숨 재미),
안양 송용남, 정혜림(알텍),
안산·오산 신성은, 백지원(문화광부),
용인 주조양(공유플랫폼 살롱드 공공)

인터뷰어

김진주(시각예술가), 안태호(문화비평가),
은정아(EBS방송작가), 민하늬(미술평론가),
이정화(독립 에디터)

조사지원

장희주 북부문화사업단

창생공간 자료집

책임편집 조지연

교정교열 이정미

디자인 서울로(Seoulro)

인쇄 완산정판사

ISBN 978-89-999-0082-2 93600

발행인 설원기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7. 5. 1.

본 자료집은 2016 창생공간 조성사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00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pdf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